

수용자 종합문예지

통권 451호 | 2020 가을호

세 길

희망찬 미래의 디딤돌

직원 작품 | 테마원고 | 수기 | 수필 | 기획기사 | 용서의 글 | 시 | 독후감 | 소감문 | 서간문 | 감상문

2020 | 가 을 호
통 권 451 호

세 길

희망찬 미래의 디딤돌



새길

희망찬 미래의 디딤돌



2020년 가을호 (통권 451호)

1948년 4월 1일 창간 2020년 9월 18일 인쇄
행정간행물 발간등록 : 111-1270000-000299-08
편집인 : 윤창식 인쇄 : 서울남부교도소
디자인실 : 한양애드 (02)2279-0814
우편번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사회복귀과 : (02)2110-3438
e-mail : saegil@hanmail.net

CONTENTS | 목차

직원 작품

- 04 그 길의 가을 | 충주구치소 교도 정성욱
- 05 모든 것이 처음이라서 | 해남교도소 교위 김 철

테마원고 - 가을 풍경

- 08 가을(추석) 풍경 | 김철권
- 09 가을 풍경(부제 : 흥시) | 신우식
- 10 味秋(미추) | 이도현
- 11 가을 풍경(가을아가) | 주소정
- 12 가을의 숙제 검사 | 채형진
- 13 가을 풍경 | 최해성
- 17 아름다운 한국의 가을 풍경 | 강명남
- 19 내 고향 가을 낙조 | 김중석
- 21 가을은 은하수의 계절 | 정재윤
- 23 가을 풍경 | 최윤식
- 25 가을 소풍 | 노수범
- 27 가을 풍경 - 들어가버린..사라져버린..아니.. 새로운 가을 풍경 | 김명량

수기

- 30 수용생활 중간 점검 | 채호병
- 35 가족의 사랑 | 김종수
- 38 옥중 일기 | 김윤봉

수필

- 41 가을에 수확(다짐) | 고영철
- 45 아버지 | 이상희
- 48 가을 동화 | 김금숙
- 52 속죄의 열매 새 날의 꿈 | 김용갑
- 54 내 인생의 마지막 발길 | 금승훈

기획기사

- 57 중국의 홍수로 본 자연의 경고 - 곤의 교훈과 우의 지혜 | 동덕여대 교수 김상철

용서의 글

- 65 아버지 용서 하소서 | 안혜옥
- 67 아내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 고○○
- 69 용서를 구합니다. | 김영규
- 72 아이들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 강성준
- 75 아내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 김태진
- 78 용서 | 박경민
- 80 용서를 구합니다. | 박철수
- 82 저로 인해 상처받은 모든 분들께 용서를 구합니다. | 김 솔
- 84 엄마의 모습 | 김진희
- 86 용서를 구합니다. | 김원정

시

- 88 감 | 박혜진
- 89 구카 | 김근만
- 90 뇌우 | 고영수
- 91 밤의 강물과 갈대 | 권남진
- 92 흥시 | 구옥희

독후감

- 93 『스틸니스』를 읽고 | 박성훈
- 98 『How to become CEO』를 읽고 | 최태수
- 101 『리진』을 읽고 | 박종만
- 105 『부활』을 읽고 | 정광부
- 108 『고슴도치의 소원』을 읽고 | 안동인

소감문

- 110 직업훈련 교육을 마치며 | 김효성
- 112 다큐멘터리(다큐 IT)를 보고서 | 최대호

서간문

- 114 보고 싶지만, 볼 수 없는... 본 적 없는 아들에게 | 윤석진
- 116 어머니께 올립니다 | 김병기

감상문

- 118 새 출발을 위한 방향타(方向舵) - 새길 | 광정환
- 120 새길 여름호를 읽고 | 김희성
- 123 새길 여름호를 읽고 | 오현숙
- 125 새길지 여름호를 읽고 | 이석환

그 길의 가을

정성욱 | 충주구치소 교도

햇님 머금은
황금빛 들판이
은은한 바람에
나긋이 일렁이고

햇님의 거울처럼
익어버린 곡식처럼
물결 따라 반짝이는
금빛나는 개울물과

자갈밭 위로
손뻗으면 닿을까
뛰어보면 잡을까
약올리는 잠자리들

지신(地神)이 머문다는
산 너머로 숨는
햇님 따라가면
삼척 장군이 된
그림자 보며
빨리 어른이고 싶었던
나의 어린 시절

모든 것이 처음이라서



김철 | 해남교도소 교위

오늘도 어둠이 질게 내리면 돌아갈 가족이 있다는 것은 나에게도 공기를 들이쉬듯 평범하고 흔한 일상이지만, 가족이 없는 다른 이에게는 공허한 부담으로 다가오는 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한다. 내게도 감사한 일인 줄은 당연히 알면서도, 행복하면서도, 한편 혼자만의 시간을 영유하고픈 마음도 간절히 원하는 건 무슨 심보인지 모른다.

사랑하는 아내와 그리고 일곱 살 아들, 곧 돌이 다가오는 딸과 한 가정을 이룬지 어느덧 7년이 되었다. 결혼이라는 것은 나이가 차면 당연히 해야 하는 관례로 생각하고, 아이를 낳는 건 의무로 생각했다. 그것이 가족의 완벽한 형성이라고 사회에서 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가족이 더 생긴다는 생각에 그 상황이 새롭고 감사하기도 하였지만 마냥 행복하지는 않았다. 한편으로 내가 가정을 잘 꾸릴 수 있을까하는 책임감이 나를 두렵게 만들었다. 누구나 남편, 아버지는 처음일터인데 유독 엄살을 많이 부렸다.

아내는 항상 “우리 아이한테 부드럽게 말을 건네주고 사랑 표현을 많이 해줘. 지금 이 시간은 절대 오지 않아.”라고 말을 할 때 마다 “나 원래 아이 싫어하는 것 알지? 내 핏줄이라 이 정도면 진짜 발전한 거야!” 라고 무심하게 말을 툭 쏜다.



글쎄. 가장의 책임감을 훌훌 털어버리고 어떤 요소에도 구애받고 싶지 않아 무작정 여행을 떠난 적이 있었다. 여행에 깊은 설렘도 잠시, 떠난 지 단 하루가 지났는데, 마음 구석 어딘가 허전하며 가족들이 그리워지기 시작했다. 이 좋은 것들을 같이 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았다.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 음식, 풍경 그냥 그뿐이었다. 내가 버킷리스트로 원하고 원했던 곳을 직접 눈으로 보았어도 마냥 기쁘지는 않았다. 숙소에 들어오면 적당한 분위기로 노곤한 몸을 이끌고 침대에 몸을 맡겼다. 영상통화로 아내와 여섯 살 아들이 “아빠, 언제와? 보고 싶어!”라며 동그란 눈이 나를 향하는데 불쑥 미안함이 들었다. 아내도 나처럼 여행도 하고 싶을 테지…. 아내도 어깨에 나만큼 짐이 있다는 것을 잠시 잊었다. 내 어깨에 올린 짐을 받아달라고 투정부린 나는 이기적인 사람이다.

모두가 잠든 조용하고 어두운 밤에, 휴대폰에 저장되었던 사진을 무심코 넘겨보다 우리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지금보다 젊었던 아내와 귀여운 아기가 해맑게 웃으며 나를 반기는데 이 모습을, 사진속의 그때에 내가, 아내 그리고 아들과 추억을 분명 공유했을 테지만, 처음 본 것처럼 낯설게 느껴졌다. 자세히 더듬어야 기억이 나는 정도이다. 가족들과 나를 추억을 많이 만들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도 기억이 흐릿흐릿 해져버리니, 추억을 많이 만들어야 훗날 기억나는 장면이 조금이라도 남겠구나. 그리 생각해본다.

사람은 누구나 시행착오를 겪는다. 다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 행복하다고 느낄 수 없다면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 가족들에게 무심코 했던 행동으로, 말 한마디로 어떤 크고 작은 상처를 주었는지…. 지금 현재 이 글을 적으면서 생각해보면 나는 그런 적이 정말 많았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당연히 받아주는 줄 알았다.

회사에서 업무를 할 때 마음이 복잡할 때가 종종 있다.

안 좋은 감정을 집으로는 가져오면 안 되지만 혹 가져올 때는 아내는 직감으로 내 눈치를 보며 언행을 조심히 사린다. 나는 내 기분들을 가족들에게 푼다. 그럼에도 우리 가족은 내색을 일절 하지 않고 다 받아 주었다.

두부는 많은 영양분이 있는 완벽한 식품이지만, 잘못 다루었다간 으깨진다. 가족도 마찬가지로 일 듯싶다. 가족은 가장 완벽하면서도 가까운 존재지만, 상처를 받기 쉬운 존재다.





지금 이 순간도 나는 실수하며 연습을 하고 있다.
아빠가 처음이라, 남편이 처음이라서 항상 서툴고 어색하다. 유독 나만 해당되지는 않을 것이다.
아내도 아내가 처음이고 엄마가 처음인데 어찌 힘이 들지 않을까.
책으로, 미디어로 배운 나의 표현의 방식을 지운다.
직접 이들과 살을 부비며 슬픔과 기쁨을 함께하며 그 감정을 느끼며 배운다.
그리고 비록 오답이지만 너무 멀리 돌아가지 않으려 한다.

‘시간은 단 1초라도 돈으로 살수 없다’ 는 어느 영화의 한 대사가 유독 내 마음을 흔들리게 한다. 시간이 무심하게 흘렀지만, 일곱 살이 되어버린 내 아이와 내심 마음고생을 한 아내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음을 그 시간에 감사하며 나는 오늘도 어김없이 어둠이 질게 내리면 불이 켜진 우리 집을 바라보며 퇴근을 한다.





가을(추석) 풍경

김철권

추석 전 달밤에
온 가족이 모여 마루에 앉아
송편을 빚을 때

그 송편 피 안에
푸른 완두콩 말아 넣으면

휘영청 보름달은 더욱 밝아지고
뒷동산 노루들은
종일토록 슬피 울고

저 밝은 보름 달빛에
앞마당 감나무 가지도 휘어지겠네

달을 바라보시며
어머님 한 말씀 하시면

대나무 숲에 숨어있던
울빼미도 덩달아 웃고

추석 보름달님도
소리 내어 깔깔거렸네

작품평 가을은 추석을 빼놓을 수 없는 계절입니다. 가족이 다 모여있는 추석. 한가위만 같아라 는 말이 그래서 있는 것 같습니다. 가을은 그래서 행복한 계절입니다. 달빛에 감나무 가지가 휘어지는 고향의 풍경과 그 풍경 속에서 그저 좋은 식구들. 사람이 행복하면 달님도 소리 내어 웃나봅니다.



가을 풍경(부제: 홍시)

신우식

가을바람에 단풍들이 파도를 치고
들녘에 황금물결 넘실거리면
귀뚜라미 울음소리에 홍시가 익어간다.

동동주 익는 내음 대문 밖을 나서면
일 나가신 아버지 발걸음이 바빠지고
떨어진 밤송이에 놀란 강아지
풍지 빠져라. 줄 달음 친다.

단풍 따라 오곡백과 알알이 여물어 가면
시집갈 누이 얼굴 웃음 꽃 피고
개구쟁이 아이들 입이 즐겁다.

먹지 않아도 배부른 하늘 가을햇살
풍요로 물들어 가면 창고마다 곡식이 가득하고
가을이 익어가듯 나도 익어 가겠지.

작품평

'귀뚜라미 울음소리에 홍시가 익어간다' 는 표현이 참 좋습니다. 가을이면 햇살만으로도 배가 부릅니다. 가을의 저 풍요가 있기까지 어떤 수고가 있었는지 저 맛있는 음식들이 다 어디서 어떻게 온 것인지 생각해봅니다. 깊은 밤이 지나야 아침이 오듯. 긴 고통 뒤에 탄생이 있듯...



味秋(미추)

이도현

시골집 앞마당 장독대 한권에
 커다란 감나무 한그루
 가을바람에 풀벌레 울고
 황금 들녘에 춤을 출 때면
 수줍은 소녀의 빨간 볼처럼
 익어가는 홍시
 조심스레 장대로 따서
 한입 베어 물면 사르르 녹는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가을 맛
 가을이면 지천이 어린 날 우리들의 먹거리 천국
 밤 줍기 콩서리하기 불에는 홍시가 묻고
 콩서리 김정에 서로 얼굴 마주하고
 깔깔 거리며 맛나게 먹던
 어릴 적 가을은 맛있는 계절
 오곡백과 익어가듯 우리도 익어가는 가을



작품평

‘가을’ 하면 떠오르는 풍경이 고스란히 그려져있네요. 홍시가 익는 감나무 아래 타닥타닥 콩서리하는 웃음과 친구들. 어릴적 가을은 먹거리가 풍부한 시절이었습니다. 오곡백과가 익어 수확을 하는 때, 사람에게도 가을과 같은 시절이 있을텐데 무엇을 수확하게 될까 생각하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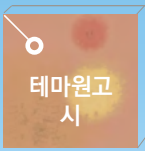
가을 풍경(가을아가)

주소정

제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여행을 시작한지 어느덧 9개월이 되었어요.
매일 같이 들리던 뜨겁다는 소리는 이제 들리지 않아요.
사실 저 소리를 들을때마다 저마저 뜨거워지는 기분이었거든요.
이제는 예전과 다르게 '사각사각' 무언가를 밟고있는 소리가
저에게는 여행초기에 들던 음악소리를 듣는거 같았어요.
푸르던 저만의 생각속에서도 다양한 색들이 생겨가고 있어요.
무언가에 이끌려 사랑살랑 색들이 춤을 추고 행복한 기운이
온몸에 퍼지는 기분이에요.
여기저기 아름답다는 소리와 '코스모스'를 외치며 찰칵소리도
함께 들려와요. 이제는 저에게 느껴지는 소리와 색들이
궁금해졌어요.
엄마! 아빠! 저 이제 나갈 준비해요~
저도 엄마가 느꼈던 풍경과 소리를 소개시켜 주세요!

작품평

뱃속의 아이가 가을을 보고 싶어합니다. 엄마의 가을이 아이에게 전해진 것이지요. 낙엽 밟는 소리가 음악소리로 들렸다는 것. 알록달록 예쁜 단풍 때문에 행복한 기운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코스모스를 보러 세상을 향해 준비하는 태아의 목소리가 신비롭습니다. 아이의 고운 심성이 그려집니다.



가을의 숙제 검사

채형진

일 년의 숙제를 내 주시고
그 검사를 위해 당신은 여지없이
돌아왔습니다.

일 년 동안의 결실을 풀어 놓습니다.
같은 시간을 받았지만
얻어낸 결실은 각기 다릅니다.

이집 저집 돌아다니며
기대에 찬 눈빛으로
지난 일 년의 삶을 바라봅니다.

지난 일 년간 대체 무얼했길래
나는 내 마당에 널어놓을 것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분주히
자기 집 앞마당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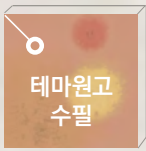
대체 언제까지 나
남의 수고에 의지해서
이 목숨을 부지 할까요?

작품평

가을은 긴 겨울을 지내기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합니다. 인생에 빛대자면 춥고 힘들 시기를 지혜롭고 슬기롭게 보내기 위해 준비한 것들을 거두어들이는 시기인 것이지요. 가을이 숙제 검사를 하러 온다니 가슴이 뻘뻘합니다. 무엇을 했는지 내놓으라는데 빈 이면 어쩌나 싶습니다. 내가 수확한 것이면 아무리 사소해도 든든하겠지요.

※ “테마 시” 부문은 새길 심사위원 시인 신경민 선생님이 작품평을 해주셨습니다.






가을 풍경

최해성

2019년 11월 초 늦가을이라고 하기에는 웬지 마음도 몸도 시리고 추웠던 어느 날 저는 ○○ 구치소에 수감이 되었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1968년 저는 인천광역시가 경기도의 일부분이었던 시절 인천 ○구 소재 ○○ 부닷가에서 태어났습니다. 수입한 원목을 바닷물에 띄워놓은 곳이었는데 저는 그 원목과 원목사이에서 다이빙도 하고 해업도 치며 유년시절을 보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육성회비(수업료)를 납부할 수 없는 집안사정으로 인해 석 달 혹은 넉 달 정도는 늘 수납을 밀려서 내야만 했던 시절이 있었고 그러했던 부분이 창피하고 부끄러워 종종 학교에도 출석을 하지 않기도 하였지만 꼭 그런 것이 최선이 아니라는 것을 초등학교 2학년 시절 학교안의 태권도부 형들을 보며 저의 마음을 움직여 운동을 시작했던 계기가 되었고 이러한 부분이 서울 ○○구에 위치한 체육고등학교와 ○○동에 태권도학과가 있는 대학교에 진학하게 되었던 실질적인 계기와 기초가 되었습니다.

1988년 88올림픽 태권도가 정식종목으로 채택되기 전 저는 국가대표 품세시범단에 우연히 뽑혀 장래의 꿈을 꾸기 시작하였고 관련 감독님과 코치분들 통해 여러 가지 앞으로의 저의 진로와 직업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결정을 여러 가지 방면으로 고민해보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아버님은 공사현장에서의 추락사고에 골반 뼈와 대퇴부쪽 뼈가 손상되었던 일로 인하여 점점 더 어려워졌던 집안사정에 고액의 학비에 도움이 되보려 했던 아르바이트는 바위에 계란 치기일 뿐 끝내 견뎌내지 못하고 어머님과 몇 차례의 대화로 대학교 2학년 반 학기를 포기하기로 하였고 그 해 12월 해군부사관으로 입대하였습니다.

진해교육대에서 부사관 기초 교육을 수료하기 며칠 전 모처에서 차출특명이 내려왔다고 하며 검정색 양복에 덩수룩한 머리스타일에 건장한 사내 두 명이 은색 현대 스텔라 승용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 포함하여 3명의 부사관 후보생들은 이미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 입대확인동의서에 서명하신 부분까지 보여주며 확인시켜 주고 돌아갔고 3일 뒤 퇴소식과 함께 하사에 임관되고 세 명만 대형 버스에 올라타고 여섯 시간을 달려 인천의 연안부두에 도착하여 다시 해군 전투함에 승선했고 그렇게 시작된 군 생활은 7년이라는 시간동안 바다 속 밑을 다니며 특수한 상황에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1995년 7년 뒤 다시 12월의 추웠던 겨울 어느 날 저는 외롭게 혼자 퇴사(전역)하였고 이미 연세가 환갑을 목전에 두신 부모님을 뵈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갔는지 사회복지와 직장을 서서히 준비해야 했던 시기 인터넷을 사용하기에는 어려웠던 시절 벼룩시장과 신문광고에나 소개되는 구인·구직광고를 통하여 직업을 찾아볼 수밖에 없었던 저는 중앙일보 하단 광고 창에 ○○지검 8급 무술특채 채용공고를 확인하게 되었고 두말할 여지도 없이 몸이 반응하는 대로 이력서를 지참하고 서초동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1차 서류전형과 2차 실기테스트까지 거친 저는 3차 구술(면접)시험을 기다리게 되었고 늘 저희 가정에 기쁜 일로만 항상 가득할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도 잠시 당시 어머님의 인천○○병원 소화기내과의 검사결과가 나왔고 저희 가족들에겐 또 하나의 청천벽력과 같은 슬픈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에 3차 시험을 코앞에 두었던 저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대장암 4기 진단과 6개월 선고를 받으신 어머님의 간단한 옷가지와 필요한 간소한 물품 등을 챙겨 바로 입원 수속 후 어머님의 입원절차를 밟았습니다.

어머님께서서는 바로 입원하셨고 상황이 너무 안 좋아 수술은 불가능하지만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로 최선을 다해보겠다는 의료진의 말씀을 듣고 아버님과 형님과 깊은 상의 후 힘든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때 즈음 저는 3차 시험을 치렀고 며칠 뒤 어머니의 곁에는 당신 몸도 불편하신 아버님께서 간병을 하셨고 개척교회를 시작한 형님은 필리핀 민다나오로 목사 사역을 나가셨으며 저는 법무연수원에 들어가 교육을 받았습니다. 마음은 늘 어머니의 걱정 때문에 편치 않았으며 6개월의 선고를 받으셨던 어머니께서는 점점 더 식사는커녕 물도 못 드신다는 아버님의 전화 음성을 들어야만 했고 연수원 교육을 마친 뒤에서야 비로소 야위시고 초췌해진 어머니의 모습을 뵈 수 있었습니다.

병상에서도 늘 자식 걱정에 마음을 놓지 못하셨던 어머니께서는 그 와중에 27살의 제가 빨리 서둘러 결혼을 해서 임종을 하시기전 손주가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싶으시다는 바람이자 심정을 평소에 관심 있게 지켜보아두셨던 주사와 링거를 놔드리느 담당간호사 선생님을 지긋이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한 달 뒤 어머니의 뜻대로 저희 둘은 교제하게 되었고 두 사람의 손을 꼭 잡아주시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무겁고 가늘어진 손목을 내려놓으셔야만 하셨습니다.

49제를 치러드리던 구름 한 점 없는 가을 하늘에 한 쌍의 잠자리와 주변에 예쁜 가을꽃들은 어머니의 주위를 감싸드렸고 훗날 결혼하게 된 아내와 가족분들 앞에서 저는 정성스레 공무원 신분증을 어머니 앞에 살포시 내려놓았습니다. 막내아들이 학비로 인하여 대학교 2학년을 채 마치지도 못하고 늘 당신의 마음속에 슬픔과 아픔이 가시방석으로 남아서 미안해 하셨을 마음을 어루만져드리며, 이젠 편히 쉬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16년 뒤 저는 또 한명의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야만 하였고 폐 섬유성 종양 4기로 보내야 했던 아내와 사별로써 이승에서의 저와의 인연을 마쳐야 했습니다. 세상을 더 이상 살아가야 할 이유와 명분도 없었던 못난 저는 거칠게 살다 끝내 일순간의 범죄로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전부 잃고 말았습니다.

2012년 이후로 7년이라는 시간 동안 극단적인 생각과 부질없는 행동을 시도하며, 스스로의 노력으로 쌓아올린 경력과 자부심을 유리창처럼 깨트리며 현재를 제 과거가 바라보기에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깊고 넓은 쇠창살을 수줍게 밀고 들어온 한 줄기 바람, 그 맑은 바람에 정신이

깨어 주위를 바라보니 비로소 인지된 감방생활, 저는 이제 제 자신과 영혼과 자존마저 부정하고 떠밀리듯 살아왔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그러나 너무 슬펐던 모든 지난날을 한마디 한마디씩 제 머릿속에서 지워가며 다시 살아갈, 아니 살아낼 미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천명을 맞이한 지 이제 3년, 어느새 60세가 저 멀리 산중턱에 걸린 해처럼 환하게 보입니다. 이 땅에서의 육체와 영혼의 질량은 비록 잠시 소멸되거나 사라진다 하여도 저 세상에 그대로 존재한다는 걸 알기에 눈물 나게 그리운 그 사람들과의 재회를 꿈꾸며 난, 이에 기쁜 마음으로 현실의 바닥에 두 다리를 굳게 뻗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제2의 삶을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시작하고 완성할 것입니다.

교화되고 수정되는 피동적인 삶이기보다는 이제 다시 제 삶의 주인이 되어 지난 모든 날들을 반성하고 담금질하는, 빙판위에 비친 겨울햇살처럼 투명한 삶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새롭게 태어나 언젠가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그 사람이 안장되어 있는 그 곳으로 찾아갈 수 있는 그 날... 민들레 꽃 풀잎 하나 머금고 한 쌍의 잠자리와 눈부시게 파랗고 높은 하늘 이름 모를 가을꽃들이 만발하고 있을 그 아름답고 정겨운 “가을 풍경”을 그려 봅니다.

작품평

해군 하사관으로 7년 동안 잠수함을 탄 모양입니다. 무술 특채 공무원이 되어 멋지게 살아왔으니 인생 후반부도 멋지게 살아야지요. 어머니, 아버지, 아내 등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죽음 앞에서 자신을 잘 추스르지 못했나 봅니다. 마음 단단히 먹고 홀로서기를 한다면 말씀대로 삶의 주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외로움도 단련이 되면 큰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름다운 한국의 가을 풍경



강명남

가을. 한국에서 열한 번째의 가을을 맞이하는 중국교포 2세 강명남이라고 합니다.

울긋불긋 바야흐로 다가오는 가을 진풍경을 떠올리며 흘러가는 주마등마냥 지나간 추억속의 가을을 되새겨 봅니다. 사실 저는 가을이 오면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가 더욱 그립습니다. 왜냐면 따뜻하고 포근한 어머니의 품과 같은 봄과는 달리 아버지의 시원하고 드넓은 가슴은 항상 저에게 유난히 높고 푸른 가을하늘을 연상시키고 아버지와의 행복한 추억이 가을계절에 유난히 많았기 때문입니다.

고향이 경상북도 상주시인 아버지는 1934년 열 살 때 할아버지와 함께 중국으로 넘어가셨고 열아홉 살 때부터 참전하셔서 치열한 항일전쟁터에서 수많은 전쟁을 치렀다고 하셨습니다. 7년 동안 생사를 오고가는 전쟁터에서 37개의 훈장을 받으셨고 중기관총중대 중대장으로 싸움터에서 오른쪽 손바닥에 두발의 총상과 오른쪽 다리 허벅지에 세 발의 총상을 맞아 야전병원에 실려가 소중한 목숨을 건졌다고 하셨습니다. 어린 시절 매일 아버지를 졸라 전쟁이야기를 들었던 그 시절도 어느덧 40여년의 세월이 흘러갔고 아직도 흥미진진하게 귀담아 들었던 아버지의 전쟁 이야기가 귓가에 생생히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쌓은 많은 추억 중에 고향호수에서 낚시로 월척 같은 붕어와 팔뚝보다 굵은 메기를 낚아 올릴 때의 신났던 일과 산에 올라가서 각종 산열매를 따먹던 즐거운 시절도 기억 납니다. 매번 산에 가면 호두와 도토리를 자루가 넘치도록 가득 주어 왔고 오미자를 따고 약초와 터덕을 캐서 팔았던 그 시절이 머릿속에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아버지는 벼, 옥수수, 콩, 배추 등



많은 농작물의 수확하는 방법을 손수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고 제가 실수로 낮에 손이 베이면 즉시 손을 뜬어 뭇개어 지혈을 해주셨으며 수건을 찢어 상처를 싸매주시던 기억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모님께 꾸지람 한 번 듣지 않고 커온 나는 부모님의 자식사랑은 언제 어디서나 느끼고 볼 수 있다고 생각 들었습니다. 역시 이 세상에서 부모님의 사랑을 받는 일이 가장 행복한 일이고 저 또한 커서 꼭 이 사랑을 부모님과 자식들에게 돌려줘야겠다고 여러 번 다짐한 적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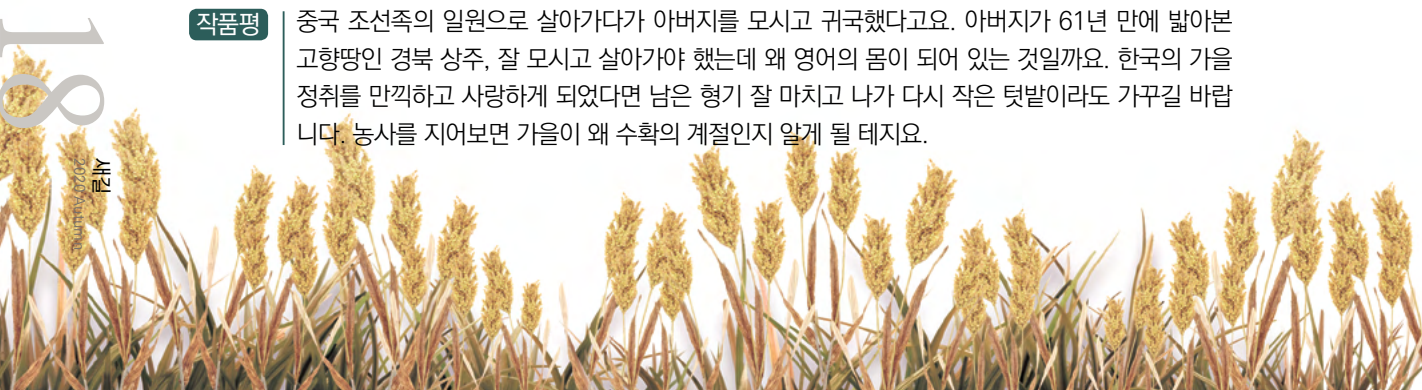
우리 부모님은 일 년 내내 구슬땀을 흘리며 수많은 작물을 가꿔 오셨고 가을 풍년이 되면 갖가지 오곡과 산나물 버섯 야채 등은 전라도가 고향인 어머니의 손맛이 더해져 밥상은 항상 진수성찬으로 가득 찼었습니다. 고향이 전라북도 익산시인 어머니의 고향에 가보면 황금빛을 띤 잘 익은 벼 이삭들이 마치 거대한 황금비단을 깔아놓은 듯 넘실넘실 춤을 추었고 아버지의 고향인 경상북도의 과수원에는 상기된 봄 처녀의 얼굴처럼 빨갛게 무르익은 사과의 맛이 정말 일품이었습니다. 아기 눈동자처럼 새까맣게 잘 익은 포도는 손대면 툭 터질듯 넝쿨에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고 한국에서나 많이 볼 수 있는 조롱박과 큰 박은 예술인양 지붕위에 보기 좋게 달려있었습니다. 그밖에 많고 많은 멋진 가을풍경과 대풍년을 안아오는 농작물, 과일 등 일 년 농사의 땀 흘린 결실을 집합해놓은 추석명절의 푸짐한 밥상은 우리민족 고유의 전통밥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1995년 10월. 깊어가는 가을을 맞이하여 중국에서 아버지를 모시고 61년 만에 아버지의 고향 땅을 밟았습니다. 기억 속에 아물아물했던 고향산천을 보시고 아버지는 감개무량하시며 끝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사계절이 유난히 뚜렷한 부모님 고국 땅은 그 어디를 가나 정말 한 폭의 그림 속에 들어가 있는 듯 아름다웠고 황홀한 가을풍경에 빠져들면서 해가 바뀌면 그 어느 계절보다 더 기다려지게 됩니다. 이처럼 아름답고 풍요로운 가을계절처럼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도 항상 건강하고 활기차고 풍족한 삶을 살아가길 진심으로 기원하는 마음입니다. 그동안 코로나 19로 인해 받은 고통과 무더운 더위에 지쳐있는 국민들의 답답한 마음도 다가오는 가을바람으로 시원하게 날려버렸으면 합니다.

오늘도 나는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을 올려 보며 꿈에도 그리운 아버지와의 잊을 수 없는 아름다웠던 가을 옛 추억을 다시 한 번 되살려봅니다. 대한민국의 가을풍경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작품평

중국 조선족의 일원으로 살아가다가 아버지를 모시고 귀국했다고요. 아버지가 61년 만에 밟아본 고향땅인 경북 상주, 잘 모시고 살아가야 했는데 왜 영어의 몸이 되어 있는 것일까요. 한국의 가을 정취를 만끽하고 사랑하게 되었다면 남은 형기 잘 마치고 나가 다시 작은 텃밭이라도 가꾸길 바랍니다. 농사를 지어보면 가을이 왜 수확의 계절인지 알게 될 테지요.





테마원고
수필

내 고향 가을 낙조

김중석

나의 고향은 가을 하늘에 그림을 그리듯, 바다 저 멀리 떨어지는 태양의 그림자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다.

우리나라의 서해안 최남단에 위치한 환상의 섬으로 바다에서 항해 중 바라보는 섬이 겹겹 보인다고 해서 '흑산'이라는 설과 섬 처녀들이 새까맣게 타서 '흑산'이란 설을 가진 '흑산도'이다. 흑산도는 홍어와 해산물로 유명하지만, 홍도와 영산도 또 장도 등의 여러 개의 크고 작은 섬 자체와 오랜 비바람을 견딘 천연의 기암 등, 바다의 자연과 어우러진 조화가 일품이기도 하다.

이곳 구치소에 수감되어 한 여름을 맞이하고 있지만, 문득, 창가로 불어오는 신선한 바람의 청량감이 곧 다가올 '입추'의 탓인가, 그리운 고향의 가을 하늘이 생각나게 한다.

어린 시절 학교를 시골에서 조금 다니다 도시로 전학을 와 평생 살면서, 바쁜 생활이란 핑계로 가보지 못했던 고향의 그리움인 것 같다. 어린 시절 십리 길의 학교를 걸어서 갈 때면 길가의 해바라기의 반가운 인사와 정겹게 맞이해 주는 듯한 코스모스의 흔들 춤이 멋쩍은 웃음까지 자아내곤 했다.

해안도로 꽃들의 길을 옆으로, 집에 돌아가는 길에는 멀리 내일을 기약하며 숨어 버리는 태양의 그늘인 석양의 아름다움에 마음까지 숙연해 지는 듯하다. 하얀 뭉게구름이 하늘의 도화지에

수를 놓으면, 태양이 빨갛게 물들인 듯 자연의 모든 색을 자아내며, 조화롭게 그림을 그리곤 한다.

그리고, 이맘때면, 태풍들이 자꾸 불어와 먼 바다에서 조업하던 각국의 어선들이 잠시 피항을 하곤 한다. 그때면, 여러 나라에서 모인 선원들로 인해 인산인해를 이루며, 서로의 나라의 물건들을 나누던가, 물물교환도 하는가 하면서 자유시장이 형성이 된 듯한 착각을 일으키기도 한다.

이때 느끼는 외국인들의 최고 음식은 단연 ‘흑산 홍어’이다. 홍어의 맛에 느끼는 감정은 각기 다르지만, 엄지를 치켜 올리는 각국의 선원들이 꽤 있는 것을 보면 홍어의 참맛을 아는 모양이다. 흑산의 명물인 홍어가 유명한 것은, 저 멀리 흑산 앞바다 밑, 갯벌에 홍어가 살기 최적의 조건이 형성이 되어 있으며, 세계의 바다를 돌아다니던 홍어가 산란기가 되면 그곳 흑산도 앞바다 갯벌에 와 산란을 한다고 한다. 그때가 홍어가 가장 맛있을 때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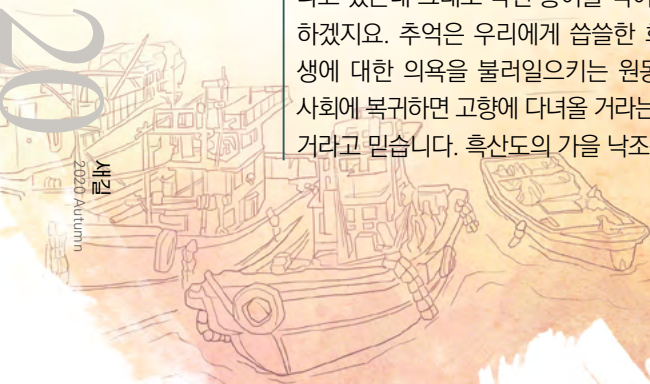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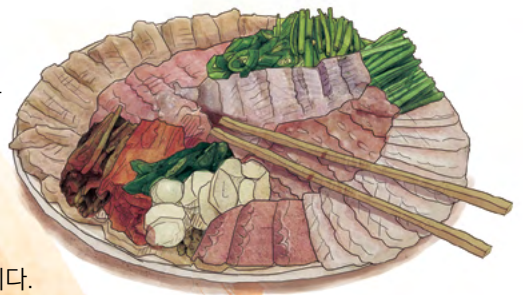
홍어는 먹을 때 삭혀서 먹는 사람도 많은데, 삭힌 홍어의 유래는 흑산도에서 잡은 홍어를 쌀가마나나 벧짚에 덮어서 육지의 목포나 영산강을 따라 무안까지 가다보면 자연 숙성이 되어 버린 것을 처음 맛을 본 육지 사람들이 그 맛에 반해 숙성시킨 홍어, 즉 삭힌 홍어가 유래된 것이라고 한다.

홍어삼합 등 먹는 방법도 다양하고, 모든 게 맛이 있지만 삭힌 홍어의 맛이야 말로 진짜 가을의 맛이 아닌가 싶다. 수감생활 중 생각이 많아지면서, 더욱 애뜻하게 그리워지는 가을의 고향 낙조와 풍경들의 추억이 소중하게 느껴지는 하루하루이다.

이번에 죄 값을 치루고, 사회에 복귀하면 꼭 시간을 내서 내 고향에 다녀올 생각이다. 가을의 문턱에서, 더욱 그리워지는 고향 가능 하늘 저녁이다.

작품평

흑산도가 고향인 글쓴이의 추억담이 흥미롭습니다. 태풍 때 피항 온 외국 선원들로 부두가 인산인해가 된다고 했습니다. 외국인들이 홍어를 맛보곤 엄지를 치켜올린다고 했는데 그래도 삭힌 홍어를 먹어본다면 기절초풍하겠지요. 추억은 우리에게 쓸쓸한 회한도 제공하지만 생에 대한 의욕을 불러일으키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사회에 복귀하면 고향에 다녀올 거라는 자신과의 약속, 반드시 지킬 거라고 믿습니다. 흑산도의 가을 낙조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가을은 은하수의 계절

정재윤

2019년, 사랑하는 여자 친구와 나는 어느 노래 가사 내용처럼 차를 구매했다. 그것도 중고차가 아닌 신차를. 여자 친구는 차의 이름을 지어주었다. 차의 모델명을 본따 코코라고 이름을 부르며 2019년에 33,000km를 코코를 운행하며 전국을 풍찬노숙 하듯 여행하였다.

산이면 산, 바다면 바다.

전국 어느 곳이든 안 가본 곳 없을 정도로 여행을 한 탓에 다음 여행지를 탐색하는 시간이 많이 소비 된다는 것을 느끼던 참이었다. 서로 “어디 갈까?”, “어디 갈래?” 반복되어지는 질문에 늘어지며 갈 곳 잃은 어린아이 마냥 휴대폰으로 다음 여행지를 찾던 중 여자친구가 SNS에 올라온 사진 한 장을 보여주었다. 바로 은하수가 잘 보이는 국내 명소들의 사진이었다. 여자 친구는 국내에서 은하수가 보이냐며 의아해 하면서 나에게 묻는 순간! 나는 마침 좋은 생각이 났다.

사랑하는 여자 친구에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을의 풍경을 보여주고 싶었다. 여자 친구는 도심에서 벗어나 본 적이 없어서 촘촘히 펼쳐진 별들과 은하수를 본 경험이 없었다. 반면 나는 군복무를 하던 시절에 보았던 수많은 별들을 본 경험이 있었고, 여자 친구에게 그 경험을 열거 하면서 자신 있게 도시에서 벗어나 수많은 별들과 은하수를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여자 친구도 기대하는 얼굴이었다. 은하수를 보여주기 위해 다급해진 나는 국내 은하수 관측지들에 대하여 사전 조사를 하기 시작하였다. 은하수는 생각보다 많은 조건들이 일추 맞아야 관측이 가능했다. 달빛이 강하고 오래 뜨는 날은 피해야 했고, 구름이 많은 날은 당연히 피해야 하며 낮과 밤의 일교차가 심하여 습하면 관측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 외에도 은하수 관측하기에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습득하였다. 또한 가을인 10월에서 11월 까지가 은하수 관측 가능한 막바지 였기 때문에 우리는 서두르기 시작했다.

은하수를 관측하기 위해 여러 명소 중, 우리가 선택한 곳은 합천의 황매산이었다. 그리고 우리는 관측하기 좋을 것으로 예상되어지는 날을 기상청과 천문 사이트를 통하여 확인한 후, 출발하였다. 황매산은 정상 부근 오토캠핑장까지 차로 올라 갈 수 있기에 수월했다. 가을의 바람은 생각보다 강하게 우리를 맞이하였고, 황매산의 밤은 스산한 기분이 들었다. 약 3시간에 걸쳐 황매산 오토캠핑장에 도착하였다. 차에 내리면서 조금이라도 빨리 은하수를 보고 싶은 마음에 돛자리와 DSLR, 카메라 삼각대를 챙겨 걸어서 더 올라갔다.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의 두 눈은 밝은 빛들과 함께하여 몰랐던 어두운 밤의 작은 빛들이 차츰 적응 되면서 우리를 반겨주기 시작했다. 우리는 하늘에 펼쳐진 별들을 감상하면서 목적지에 향해 올라가는 내내 감탄의 연속이었다. 황매산의 갈대밭은 바람과 맞물려 서로 대화라도 하듯 복잡한 소리가 지속 되었고, 그 소리가 잔잔히 고요해질 쯤 우리는 도착지에 도착했다. 드넓은 갈대 밭 아래에 안개 혹은 구름이 환하게 비추는 마을을 가리는 것으로 보아 그보다 높은 곳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지할 수 있었다. 그리고 황매산 고지에서 우리는 돛자리를 깔고 은하수를 찬찬히 육안으로 느끼고 있었다. 우리는 당연하게 손을 잡고 같은 곳을 향해 바라보았다. 동시에 나는 사랑하는 여자 친구에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을의 풍경을 보여줄 수 있어 뿌듯했다. 드문드문 포착되는 별뿔별은 보너스라고 이 가을의 멋진 밤이 우리에게 건네주는 것 같았다. 눈 안에 가득 찬 별들을 함께하며 세상에서 제일 큰 IMAX 스크린으로 은하수와 별들을 감상하는 기분도 들었다.

너무나 황홀했다. 가을은 은하수의 계절이다(박준의 산문집 '운다고 달라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겠지만' 내용 중 '봄날에는 사랑의 눈빛이 계절.'에서 변용했다.)

가을에는 독서의 계절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처럼. 가을에는 은하수의 계절이다. 그 후 우리는 가을이 다 지나가기 전에 황매산에 이어 안동, 의성, 평창, 강릉, 안면도, 장수 여러 곳에서 가을의 은하수를 느꼈다. 우리에게 가을의 풍경은 위안이 되었고, 가을에 붉게 물든 이파리처럼 우리의 사랑도 더 붉게 물들었다. 그래서일까? 우리가 주고받은 편지에는 함께 보았던 은하수가 자주 언급되어 지면서 사회에 복귀하는 순간을 기다리며 사랑하는 여자 친구와 함께 은하수를 다시 마지 할 날을 기다리면서 나는 수용생활을 반듯하게 하고 있고 여자 친구는 열심히 일을 하면서 각자 서로의 재회를 위해 건강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우리의 행복했던 시간과 추억은 우리를 더 끈끈하게 만들었다. 또한, 가을의 붉게 변하는 풍경처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관계 속에 진하게 스며들어 또렷이 번져가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작품평 오랜만에 유쾌한 연애담을 읽으니 기분이 날아갈 듯이 좋습니다. 연인이랑 은하수를 관측하고자 합천 황매산 오토캠핑장까지 차를 몰고 갔다고 하니 역시 젊음이 좋네요. 그래요, 지금은 헤어져 있지만 인생 공부를 마치고 출소해서는 더 열렬히 사랑하고 위해주세요. 다시는 죄짓지 마시고.



가을 풍경



최윤식

봄이 지나가고 우리 주위를 풀들이 키만큼 자라서 모터와 함께 땅 흘리며 자르는 소리가 귓가에 들려 옵니다. 꽃들을 멀리서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인데…….

방 안에 갇혀서 답답함을 잘 참지 못하고 호소하며… 옛날의 가을 풍경으로 달려가 봅니다. 저는 1973년 00월 00일생입니다. 한국 띠로 소띠입니다. 그만큼 일을 하고 소만큼 긴장합니다. 그래도 나이를 먹어가는 소라 옛 기억으로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최윤식입니다.

무작정 예고도 없는 이별을 하고 어머니와 헤어지고 어릴 때 말입니다. 일곱 살때 초등학교에 다니다가 제 기억으로는 의정부에서요 누나와 저만 있는 줄 알았는데… 서울 관악구 신림동으로 가니까, 아버지와 새어머니, 할머니 그리고 형, 큰누나가 있는 집입니다. 동생은 아주 어려서 포대기에 업혀 있고요. 이렇게 친형제고 가족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그 어릴 때 씨가 뭘지 밭이 뭘지 알았겠습니까? 지금 생각하면 아주 어리고 어리석었지요.

할머니께서 어느 날 굳은 결심을 하고 시골로 내려가자 하길래… 할머니를 따라 형과 누나 손을 잡고 경기도 연천군 ○○면 △△리. 279번지인가 8번지인가?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아주 어려서 종이킵만 봐도 놀래고 시골이 뭘지 개구리가 뭘지도 몰랐습니다. 텔레비전도 없는 시대라 아무튼 호롱불로 시작하였습니다. 갖은 고생을 다 하면서, 너무 어려서 공부와 운동을 하고 싶었지만, 집안일이고 밭일이고 짐승들을 돌보느라 경황이 없었습니다. 집은 할아버지는 안 계셨지만, 그 동네 집안에서 유지였고 대감집이라 화장실이 두 개에다 옛날 집치고는 컷습니다.

없는 과일나무는 거의 없었습니다. 제가 너무 어린 나이에든 물 길어오기, 빨래하기, 병아리





키우기, 밤 줍기 등 학교에 다니면서도 할머니님과 식구들을 잘 돌보니 저만 시켰습니다. 하기는 싫었으나 그 당시 당연히 제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의 꿈은 결혼하면 절대 내 가족하고는 안 떨어지고 살아야겠다. 그 마음 뿐이었습니다. 시골에서 겨울에는 가랑잎을 갈퀴로 모으고 낮으로 나무를 자르고 톱과 도끼로 나무를 했습니다. 지금처럼 여름이 지나가고 가을이 다가오면 학교를 오르다가 돌을 주워 밤 알 밤을 맞춰 주워 먹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 가려고 아침 일찍 씻는데, 할머니님이 윤식아, 뒷산에 좀 가봐라. 누가 밤나무 털고 있나 보다, 아까부터 쿵쿵거린다. 라고 하시길래 씻는 거 치워놓고 빠른 걸음으로 뒷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뒷세청(고장이름) 어머니 할머니님이 대추와 밤을 돌로 치며 줍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전부 고인이 되셨지만, 오늘 ○○구치소에서……. 막사 주위를 청소하며 풀 베는 소리가 옛날에 우리가 고장에서 풀 베다 일을 멈추고 뱀을 피하고 쫓던 기억과 함께 가을이 오면 밤을 줍고 장대로 형이 털고 밑에서 밤을 줍던 과거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이렇게 적습니다. 우리는 한민족입니다. 그리고 같은 뿌리이며 형제입니다. 그때 그 시절 밤을 줍던 또 낙엽을 쓸고 걷고 거둬서 불을 피우고 살던 그때가 잊혀지지 않습니다. 제 기억 속에서는요 저는 지나온 나날들이었지만, 그 당시 빨리 성장하고 크고만 싶었습니다. 그런데, 현 48세 내일모레 50을 바라보는 나이에 아무것도 해 놓은 것 없이 그동안의 시간을 허무하고 낭비하며 지금까지 많은 분을 잃어가면서……. 가족은 떠나지 않고 항상 내 옆에 내 곁에 있을 거야 하면서, 짧게 짧은 시간을 보내며 후회 없이 지금의 시간을 낭비하며 살아왔습니다.

곧 여름이 지나면 가을 풍경. 아름다운 가을이 저에게 오겠죠? 모든 과일과 곡식이 풍년과 흥년을 이루듯 낙엽도 소리 없이 그 먼 시간을 알려주며 저의 발 앞에, 눈앞에 지나치며 날리겠죠. 지금의 지나온 시간 또 세월 그분들 먼저 고인이 되신 모든 훌륭한 분들 그분들이 안 계셨다면 구치소도 교도소도 그리고 가정도 없었을 것입니다. 역사는 흐르고 흘렀고 우리는 그 역사 앞에 法 앞에서 있고 가을 단풍을 밟고 쳐다보고 셧습니다.

지나온 과오와 각오를 슬퍼하고 힘들어 마시고 힘을 내어 새로운 단풍잎을 만듭시다. 우리만의 단풍잎을요. 사랑합니다.

작품평

부모님 두 분이 너무 일찍 헤어졌군요. 그 때문에 의정부, 서울 신림동, 경기도 연천군 등 여러 곳에서 살게 되었다고요. 시골에서 보낸 유년기의 추억을 더듬고 있습니다. 그때는 그래도 할머니와 형과 누나가 함께 있지 않았습니까. 스스로 가을 풍경을 만들어보겠다는 결심이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훗날 형제끼리 가을 여행을 꼭 해보세요.



가을 소풍



노수범

남이섬의 메타세콰이어 길에 견줄 만큼 아산에도 현충사로 들어가는 길에 은행나무로 우거진 아름다운 명소가 있다. 수백 년의 나이를 지긋하게 드신 은행나무들은 2차선을 가운데 두고 높은 하늘에서 손을 맞잡고 동굴을 만든다. 그 길이가 짧지 않아서 많은 사진작가들에게 사랑을 받고 시민들이 자주 찾는 유쾌한 가로수 길이 되었다. 특히나 가을이 되면 은행나무 잎들로 인해 세상에서 가장 청명한 노란색의 동굴이 만들어진다. 바람에 날려 떨어지는 은행나무 잎은 결혼식에서 볼 수 있는 축하 색종이 폭탄을 연상케 하고 떨어지는 모습도 다양각색으로 그야말로 자연에서 시작되어 자연으로 끝맺음하는 살아있는 작품이 된다. 관할청에서도 이 아름다운 명소를 인지했는지 차없는 거리를 만들고 오직 도보로만 그 장면을 감상할 수 있게 하며 곳곳에 작은 카페와 문화공간의 연출로 시민들에게 그 공을 돌려주었다. 그 옆으로는 강이라 해도 어색하지 않을 큰 곡교천이 흐르고 또 이 길의 끝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을 기념하는 현충사로 들어가는 입구라서 그 의미가 더해진다. 초·중·고 시절 그렇게 곁에서 소풍을 오고 현장학습을 와도 그때는 이런 가치를 느끼지 못했는데 내가 나이가 든 건지 새로운 아름다운 가치에 눈을 뜬 건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있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다. 이제라도…….

그때도 가을이었다. 일과 삶에 찌들었던 나에게 일요일은 오직 내 부족한 잠을 보충하는 시간이었다. 날씨도 화창하고 걷기를 좋아했던 내에는 나에게 가까운 곳이라도 산책을 가자는 의견을 냈다. 아들 셋에 딸 하나의 자녀 구성을 하고 있는 우리 가족은 무엇보다 아이들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이 항상 첫 번째 목표였다. 그래야 밤에 일찍 잠들고 아주 조금은 얌전해지기 때문이다. 나의 머릿속에 계산기는 지금 데리고 나가 놀게 하는 것이 길게 봤을 때 아내와 나에게 이익이 크고 오늘의 마무리가 순조로울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목적지는 현충사로 가는 은행나무 가로수길로 정했다. 아이들은 신이 났고 나는 가법계 운전대를 잡았다. 집에서 그리 멀지 않아서

15분 정도 걸린 듯했다. 도착하는 그 순간 나와 아내는 아이들보다 더 아이 같아졌다. 이렇게 아름답고 멋있을 수 있는 걸까? 나는 아산에서 40년을 살았는데 이런 절경을 왜 이제야 보고 있는 것인가. 최소 4~5층 높이의 건물만 한 은행나무들이 2열종대로 나란히 사열하듯 맞이해주고 있었다. 아이들은 이미 하늘에서 떨어지는 노란 빗방울을 잡으려 이리 저리 뛰어다녔고 어찌하다 손에 잡히면 가져와 신기한 듯 나와 아내에게 자랑을 했다. 나와 아내는 흐뭇하게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우리도 자연스럽게 손을 잡고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하늘도 높고 은행나무들도 높고 떨어지는 노란 보석들은 우리의 눈과 마음을 즐겁게 했다. 떨어진 열매들로 인해 구수한 냄새들이 올라오긴 했지만 그 정도는 여유롭게 넘길 수 있는 여유가 우리에게는 충분했다. 때마침 마련된 작은 무대에서 인디밴드의 버스킹 공연이 시작되었고 사람들은 시원한 음료수를 한 손에 들고 잔잔히 들려오는 음악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우리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한 잔씩 들었고 아이들에게도 아이스크림 한 개씩을 선물했다. 마음껏 뛰고 힘껏 소리 질러도 눈치 볼 것 없는 아주 값진 무대였다. 아내는 내 손을 더 꼬옥 잡으며 아이들을 행복하게 바라보았고 날씨는 더할 나위 없이 선선했다. 우리는 모두 행복했다. 그리고 오랜 시간 그 자리를 묵묵히 지켜준 은행나무들에게 감사했다. 짧고 굵은 추억을 선물받았다.

여전히 내 가슴 속에는 그때 그 장면을 놓지 못한다. 그 추억은 지치고 딱딱해진 내 마음을 달래 주는 초콜릿 같은 달콤함이다. 당연히 지금은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다. 아빠가 먼 곳으로 일하러 간 줄 알고 있는 아이들은 스마트접견 때마다 아빠 언제 오냐고 놀러갈 궁리를 하고 있다. 남은 수용생활이 짧지 않지만 나에게 소멸되지 않는 초콜릿바가 있으니 지칠 리 없다. 아이들의 기억 속에는 그 시간이 남아 있을지 모르지만 그냥 '아빠와 좋았던 시간'으로만 뭉뚱그린다 하여도 그 추억 하나면 나는 충분하다. 출소 이후에 아이들과 함께 하는 또 하나의 가을 풍경을 그려본다. 산이 될지, 바다가 될지 그건 아무도 모른다. 우리가 지금 서로를 기대하고,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어떤 도화지가 우리 바닥에 깔려도 우리는 또 하나의 멋진 풍경을 그려낼 수 있지 않은가! 어찌면 우리는 이미 자신만의 스케치를 시작했는지도 모른다.

그날을 감사함으로 기다려본다.

작품평

아들 셋에 딸 하나를 둔 다복한 가정의 가장이 왜 거기에 계시는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현충사 가는 은행나무 가로수 길에 놀러 갔던 그날이 바로 천국의 날이었습니다. 아빠가 먼 곳으로 일하러 간 줄 알고 있는 아이들에게 다시 한번 멋진 가을을 선사하기 바랍니다. 아빠 없이 네 아이를 키우고 있는 아내분에게 큰절을 백 번 해도 모자란 것, 알고 계시겠지요.

가을풍경 - 들어가버린.. 사라져버린.. 아니.. 새로운 가을 풍경



김명랑

이 곳에 들어 온 지 1년이 채 안된 나는 곧 1년을 바라보고 있다. 2019년 11월 7일, 1심 선고를 받은 나는 법정구속이 되어 무면허 음주운전이라는 죄로 징역을 살고 있다. 처음 이곳에 들어왔을 때에는 ‘난 피해를 준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난 합의를 볼 사람도 없는데...’, ‘난 사고를 낸 것도 아닌데...’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힘들었지만, 지금은 얼른 가족 품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현재에 충실하고 있다. 미래는 현재가 쌓여서 되는 것이니까 나갈 날까지 난 현재에 충실하면서 미래를 만들어 갈 것이다.

어느덧 1년이 가까운 시간이 흐른 작년 11월 7일 1심 선고 후, 두가지의 중요한 일이 있었다. 나는 스타트업 기업이나 기존 사업으로 디지털 트랜스 포메이션(DT)을 하는 기업들을 컨설팅 하러 다니곤 했다. 나의 첫 번째 약속은 때마침 11월 7일 그 날 오후였다. 오전 재판을 하고 바로 ○○시의 ○○공단에 위치한 KF-94 마스크 공장 세 곳의 대표들과 약속이 있었고, 공장 세곳의 새로운 합동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미팅이 예정된 날이었다.

그날의 약속의 나의 법정구속으로 인해서 취소가 되었지만, 약 한 달이 지난 뒤 직원을 통해서 세 공장을 연결시켜주었고, 계획했던 일을 뒤늦게나마 실행을 할 수 가 있었다. 원래 하려고 했던

대로 한달만 더 빨리했었다면... 그 때는 발생할지 몰랐던 코로나의 대처에 좀 더 많은 마스크를 생산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을 남긴다.

나는 가족들과의 여행을 좋아한다. 항상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여행을 자주 다녔다. 나와 아내의 '사랑의 결실인 둘째'가 작년 8월 2일에 태어났다. 법정구속될 때 아내는 산후조리원에서 나온지 얼마 되지 않아서 몸을 힘들어 하는 시기였었고, 엄마와 아빠의 관심에서 갑자기 떨어진 첫째가 서글퍼하는 시기이기도 했다.

그리고 그 일(육아)은 장모님께서 강력한 서포팅을 해주셨다. 나의 두 번째 약속은 둘째의 100일을 기념해서 장모님과 아내 그리고 두 아이를 데리고 가을의 설악산과 속초바다를 구경하러 갈 계획이었다. 하지만 그날의 법정구속으로 인해서 일은 통보도 없이 연기 되었고, 가족들과 함께 보고 싶었던 가을의 산과 바다 여행은 취소가 되었다. 늦게 이뤄졌던 전략수립과 예약을 해두었던 숙박시설을 생각하면 아직도 마음이 아프긴 하다.

대지의 따스함이 사라져가는 11월에 ○○구치소에 입소하게 되었다. 구속이 되고 법정의 뒷문 안에서부터 구치소의 신입방에서의 5일은 지금에 와서 생각해도 웃기다.

법정구속 될 때

'전화 한 통하고 폰 드릴게요'

'제가 도주의 우려가 있대구요?'

'시계를 안 끼면 손목이 허전해서...'

신입방에서

'밥은 언제 먹나요?'

'식당은 어디에 있나요?'

'매점은 없나요?' ...

뭐.. 몰랐으니까.....

5일이라는 시간은 그렇게 흘러가고, 난 신입방에서 본방으로 갔다. 무거운 공기가 흐르는 기분이 들었다. 난, 그제서야 실감이 났다. 그렇게 구치소 안으로 나의 가을 풍경은 들어갔다. ○○구치소에서 가을의 마지막을 보낼 때는 실내 운동장에 가서 15분간 창밖을 내다보며 떨어지는 구경

하는 것 밖에 없었다. 그렇게 나의 가을 풍경은 사라졌다.

이 곳은 밖에서 알고 있던 험악한 사람들만 있는 곳은 아니었다. 이 곳 역시 사람이 사는 곳이었고, 일반적인 사회처럼 이런 사람들, 저런 사람들이 섞여 있는 곳이었다. 나 역시 이 곳의 분위기에 녹아들어 나를 가다듬고 최대한 물 흐르듯이 살아가려고 노력중이다. 비록 이 곳은 간혀사는 곳이지만, 출소 이후에 생각하게 될 이 곳은 나에게 뜻 깊은 시간이었으면 한다. 바쁘게 살아왔던 세상의 굴레속에서 잠시 쉬어가라며 잡아 놓은 것 같다.

매일 일과 술에 찌들어있던 내 삶에 돌아가는 바퀴가 브레이크 잡히듯 걸린게 아니라 쉬어가라며 브레이크가 걸린 것이 아닌가 싶다. 이곳에서 잃어버린 시간과 금전적인 손해도 크지만, 속도 많이 편안해졌고, 여유도 많이 생겨서 얻게 된 것도 많다고 생각한다.

난 가을이 좋다. 높고 푸른 하늘이 펼쳐진 가을이 좋다. 2019년 가을에 내게 다가온 새로운 가을 풍경은 내 삶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공했다. 2019년의 가을 풍경은 내게서 사라졌다. 하지만 지금은 내 마음속 가을 풍경처럼 남아있다.

새로운 나의 가을 풍경은 나에게 많은 것을 알려주었다. ○○구치소에서 법정구속이 되어 미결수의 시간을 보냈고, ○○교도소에서 기결수로 짧은 시간을 보냈으며, 현재는 ○○교도소에서 교정생활을 하고 있다. 갑작스레 글을 쓰게 되어 좀 두서없는 글이 되었지만,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감사하며 글을 마친다.

작품평

작년 8월 2일에 태어난 둘째아이는 아爸 얼굴도 모르겠네요. 아아, 어쩌면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그곳에 계시는 겁니까. 사고를 냈더라면 어쩔 뻔했습니까. 하늘이 도왔다고 생각하고 남은 형기 성실하게 마치고 나오기를 바랍니다. 일과 술의 나날이었는데 그곳에서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니 인생 자체가 전화위복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에게 아爸 노릇을 곱으로 잘해야 합니다.

“테마 수필” 부문은 새길 심사위원 시인 이승하 교수님이 작품평을 해주셨습니다.

수용생활 중간 점검


 채호병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앞으로 나가는데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과거없는 현재나 미래는 없는 법, 오늘 이렇게 지난 시간을 되돌아봅니다.

이곳에서 보낸 날이 벌써 9년이 다 되어갑니다.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었고 앞으로도 그만큼의 시간을 살아야 사회로 나갈 수 있습니다. 제가 있는 곳은 무기수가 공장마다 4, 5명씩 있고 법정최고형을 받은 사형수도 꽤 있습니다. 그들이 남의 징역 3년보다 내 징역 6개월이 더 길다는 우스갯말처럼 저 역시도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왔고 그런 날들 속에서 한참을 더 살아야할 것입니다.

부끄럽지만 수용생활 한 개 처음이 아닙니다. ○○에서 출소하던 날, 교도소 앞 뺨 뚫린 도로 처럼 제 앞날도 그럴 줄 알았습니다. 이런 곳에 다시는 오지 않을 거라 생각했고 좋은 날만 계속 될 거라 믿었습니다. 운 좋게 별이가 괜찮은 일을 바로 할 수 있었지만 제가 진심으로 원했던 아버지와의 관계회복이나 아내와의 관계회복은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잘못된 게 있어서 적극적으로 다가가기 힘들었고 차일피일 뒤로 미루다보니 소원한 상태가 계속됐습니다.

일할 때는 일에 몰두하느라 외로운 느낌이 덜 했지만 퇴근하고 인기척 하나 없는 어두운 방에



들어설 때에 혹 들어오는 쓸쓸함은 정말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핑계일 뿐이지만 외로움을 떨기 위해 마신 한두 잔의 술은 제 이성을 마비시켰고 본성만을 쫓은 행동은 또다시 철장 속으로 저를 밀어 넣었습니다.

죽자! 현실을 직시한 제가 내린 결론은 '죽자' 이었습니다. 가족들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바에는 이 세상에서 없어지는 게 낫다고 여겼습니다. 유치장에 있는 내내 밥도 거의 먹지 않고 어떻게 하면 죽을 수 있을까, 궁리만 했습니다. 목을 뺨까, 굶어볼까, 높은데서 뛰어 내릴까 등등 여러 생각을 해봤지만 막상 실행에 옮기기는 어려웠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구치소로 옮겨졌습니다.

조서를 꾸밀 때부터 흐리멍덩한 표정으로 어떤 물음에도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등 대답하며 죽음이란 단어를 은연중에 흘려서인지 관심대상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보통의 경우 일주일이면 본방으로 배방 되는데 저는 신입방에서 거의 한 달을 지내다가 감시카메라가 있는 독방에 수용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수용생활 중에 가장 힘들던 때였는데 옆에서 신경 써 주는 분이 있었습니다. 김○○ 계장님, 9년이 지나 얼굴은 흐릿하지만 이름만은 또렷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없었더라면 오늘의 저는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정신을 못 차리는 저를 위해 제 처에게 전화해 주었습니다. 밥을 잘 먹지 않는다며 구매과에 연락해서 먹을거리는 물론이고 면도기나 내복 같은 생필품도 넣어주었습니다.

기동순찰반 팀장으로 계셨는데 수시로 저를 불러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이 구치소엔 10년 전에 무기형을 선고받고 교도소 생활을 하다가 추가사건으로 송치되어 온 사람이 있는데 삼시세끼 꼬박 챙겨먹고 좁은 방에서 팔굽혀펴기 같은 운동도 열심히 하면서 살고 있다. 너는 그 사람보다는 훨씬 나은 상황이니 희망을 가져라.' 같은 말 등. ○○교도소로 이송오던 날에는 대기실까지 찾아와 쓸데없는 생각은 하지 말고 시간은 끊임없이 흐르니까 건강하게 잘 살라고 배웅도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교도소로 오게 됐고 구치소와는 또 다른 환경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에서 지내보아 잘 알고 뻔한 교도소 생활을 반복해야 된다는 것과 낯선 환경에서 오는 두려움까지 더해져서 결국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고 말았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일찍 발견돼 외부병원으로 옮겨졌고 짧은 치료 후, 간단히 조사를 받고 감시카메라가 있는 독거실로 옮겨졌습니다. 고충처리반



에서 저를 집중해서 관리해 주신 분이 있었는데 김○○ 주임님입니다. 이분은 김계장님과는 달리 그냥 제 얘기를 들어주셨습니다. 처음에는 대화 없이 커피만 마셨습니다. 그냥 멍뚱뚱서로 쳐다만 보다가 만나는 횟수가 늘어가면서 한두 가지씩 내 속에 있는 괴로움이나 두려움, 우울함 등을 털어놓았고 당신이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은 바로바로 처리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정신과 진료를 받아보는 건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당황스럽고 화도 났는데 죽니 사니 하는 마당에 그깟 정신과 진료쯤이야 라는 마음으로 상담을 받았고 6개월 동안 약을 먹으면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효과가 있던 건지 약간의 안정을 찾으면서 자연스럽게 공장으로 출역하게 됐습니다. 독거실에서 나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여럿이 어울려 살아야 돼서 꽤 힘들었습니다. 이때도 저를 다독여 주는 분이 있었는데 제가 일하던 조에 조장이던 점○이 아저씨입니다. 조에서 형량이 제일 많아서였는지 보조를 거치지 않고 바로 기계에 앉아 일하게 해주었고 면회 오는 사람이 없던 저에게 속옷이며 겂옷, 운동복을 챙겨 주었습니다. 낯선 환경이라 신경 써주는 아저씨와 금세 친해졌고 방까지 옮겨 마음 맞춰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수용자들의 출소 후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의 자립형 공장이 생겼습니다. 처음엔 몰라도 시간 지나 자리가 잡히면 70만원도 벌수 있다는 소문과 2인실에서 생활할 거라는 소문에 흑한 아저씨는 이왕 징역살이 하는 거 많이 버는 곳으로 가자며 절 꼬드겼고 별생각 없던 저는 그러자며 같이 지원했습니다. 둘 다 전업이 되기는 했지만 저는 5-1공장으로 아저씨는 5-2공장으로 찢어지게 됐습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게 없는 건 사회나 교도소나 마찬가지라 체념하고 80여 명 되는 인원 사이에서 있는 듯 없는 듯 생활을 했습니다. 일 년이 넘도록 저랑 한마디도 못해본 사람이 대부분일 정도였습니다.

저는 사람들을 아저씨라 부르는 버릇이 있습니다.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은 물론이고 한참 아래 동생들도 누구누구 아저씨라 부릅니다. 제 뒤에 앉아 일하던 기○이 형이 그게 못마땅했나 봅니다. 하루는 호칭 문제로 짧은 언쟁이 있었고 버릇이라고 이유를 설명하면서 그 뒤로도 종종 얘기하는 사이가 됐습니다. 죄명이 같고, 형량도 같고, 나가는 날까지 비슷하다는 걸 알게 되면서 묘한 동질감에 서로를 많이 의지했습니다. 밖에 있는 가족 얘기며 살아온 이야기, 공장이나 방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 뒷담화까지, 별의별 얘기 다 나누며 위로도 받고 위로도 해주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그러저러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마음 한구석엔 잘못에 대한 죄책감이 절 괴롭혔고 면회 오지 않는 가족에게 서운함이 들기도 했다가 오죽하면이라는 미안함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살아 숨 쉬고는 있었지만 의미 없는 하루하루가 답답하기만 했고 어떤 계기가 생긴다면 깨끗하게 세상을 떠야겠다는 마음을 다지고 있었습니다.

법무부에서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마약사범 등에 대한 재범방지교육을 하기 위해 심리 치료센터를 여러 곳에 세우고 강제로 교육을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2016년도에 교육을 받았는데 제 징역살이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강제로 받는 것에 거부감이 가득해서 삐딱하게 나가기 일쑤였습니다. 교육하는 시간에도 삐딱하게, 상담하는 시간에도 삐딱하니, 담임 윤○ 선생님과 부담임 순○ 선생님이 묻는 말에 이죽이고 툭툭 쏘는 경우가 태반이었습니다. 제가 속한 사랑반 분위기를 망치는 일등이 저였습니다. 특히 마음에 안 드는 시간은 개인면담이었습니다. 선생님 두 분과 어색하기도 하고 개인사를 말하는 게 내키지 않아서 교육에 대한 불만만 가득 토로했습니다. 선생님들은 화도 나고 답답하기도 했을 텐데 싫은 내색 하나 없었습니다.

보통의 교육생들은 몇 번 상담하면 끝났는데 선생님들 생각에 저는 위험해보였는지 끊임없이 불러내곤 했습니다. 짧게는 교육 시작하기 전후에 길게는 당신들 점심시간까지 줄여가면서 대화하려고 하더군요. 결국 달아 놓았던 마음을 열고 교육오기 전 답답했던 심정을 이야기했고 해결책을 같이 찾아보았습니다. 좋은 일이 연달아 이어지니 교육에 집중했고 수료식 때에는 우수상까지 받았습니다. 무엇보다도 6개월 동안의 교육은 바닥까지 떨어졌던 제 자존감을 높였고 조금은 열심히 살아볼까 라는 생각이 들게 했습니다.

좋은 기운 가득히 안고 돌아온 5공장은 같이 지내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모르는 사람 천지였습니다. 당시에는 자동차 부품을 조립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보통 짝을 지어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저는 15년째 수용생활하고 있던 무기수 종○아저씨랑 일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런 말하긴 우습지만 무기수는 보통사람들이랑 여러모로 다른 사람이라는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내보니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고, 좋으면 웃고 화나면 찡그리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종○아저씨가 당신이 볼 때 징역살이 시작이나 다름없는 저를 걱정하고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면 좋겠다는 조언을 많이 해주었고 이 곳에서 구하기 힘든 물건들도 여럿 챙겨주었습니다.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니 제 주위에는 못난 저를 걱정해주는 사람이 늘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 드린 분들 말고도 자립형공장 처음 갔을 때 담당근무자였던 김○○ 주임님(제가 특하면 죽는다고



반 험박했었습니다). ○○ 미지정에서 보았던 용○이(불행하게도 여기서 다시 만났습니다). 특별히 잘해 준 것도 없는데 저를 무척이나 따랐던 라○○, 조○ 같은 외국인까지, 곁에서 도와주었던 분들을 모두 얘기하려면 밤이 모자랄 정도입니다. 그분들이 있었기에 위태했지만 여태껏 큰 탈 없이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있던 장애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고 암처럼 치료하기 힘든 병에 걸린 사람이 낫는 걸 우리는 기적이라 부릅니다. 저는 감히 지금까지의 제 수용생활을 기적이라 부르고 싶습니다. 절대로 혼자서는 무사히 올수 없었던 긴 시간들, 징역살이가 높고 험한 산을 넘는 것이라면 이제 막 산꼭대기에 오른 거라 말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게 올라왔으나 산 아래로 내려가는 것은 조금만 조심하면 어렵지 않게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르막을 오를 때 곁에서 지팡이가 되어주었던 많은 분들을 기억하며 이제는 제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에게 지팡이가 될까 합니다. 또 사회로 돌아갔을 때 구성원으로 잘 녹아들고 제 잘못을 속죄할 방법을 준비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서 본 기억에 남는 시가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서러운 길이라도/삶은 여전히 빛나고
아무리/글욕스러운 삶이라도/ 목숨은 여전히 귀하고
노숙의 밤/몸은 언 땅에 누일지라도/꿈은 여전히 뜨겁다



이 시처럼 목숨을 귀하게 여기고 비루한 삶이지만 제 마음 속에 있는 작은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앞으로 남은 수용생활 열심히 살겠습니다.

작품평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는 존재이기에 그 어떤 관용이나 용서로 자신의 죄를 삭감 받을 수 없고 씻어낼 수도 없으며, 오직 자기 자신의 죄를 인식하고 되풀이 하여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할 수 있는 존재일 뿐이라고 톨스토이가 말했듯이 작자의 변화된 진실한 사랑의 마음을 행동하고 표현하며 행복을 창조하는 모습에 응원을 보냅니다.



가족의 사랑



김종수

딸아이는 무사히 안전하게 오고 있을까? 늦는 것은 아닌지 가족만남의 날을 하는 날 나는 사랑하는 딸아이, 어린 딸아이가 잘 찾아올까 하는 걱정이 앞선다. 강당에 모여서 한 명 한 명 부르는데 나의 이름은 늦게까지 불리지 않는 것이다. 웬지 불안하고 초조해지는데 직원분의 말씀이 전화를 했는데 오고 있는 중이라 하여 안정을 되찾고 행사장소로 갔는데 다른 가족 속에 딸 아이 혼자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딸아이는 나를 보는 순간 눈가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아빠를 만나기도 전에 울고 있었을 딸아이는 저 멀리 인천에서 ○○까지 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얼마나 아빠를 보고 싶었으면 천리 먼 길을 아침 일찍 왔을까 하는 생각에 내 마음은 너무 쓰리고 아팠다.

마음을 가다듬고 딸아이가 가져온 음식이 세상에서 제일 값지고 맛있는 음식 보쌈 2만원짜리를 야식집에서 사가지고 식을까봐 곱게 싸서 아빠 돼지고기 한다면서 새벽에 야식집을 찾아 헤매고 다녔다는 아이, 가족만남의 날이 무엇인지 아무것도 모르는 딸아이가 마냥 대견하고 기특하기만 하였다. 아빠 만날 생각에 며칠 밤을 부풀어 있었다는 딸아이. 음식을 먹으면서 그 동안 지내왔던 이야기를 하느라 딸아이는 참새처럼 재잘거리며 즐거워하는 모습 그리고 못 본 사이 훌쩍 커버린

딸아이가 왠지 가엾게 보였고 내 마음은 너무 아팠다. 그런데 잠시 딸아이가 아빠하면서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대어 눈을 감고 있길래 먼 길을 새벽부터 와서 피곤해 그런가 했는데 어느새 딸아이 눈가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다. 아빠냄새가 너무 좋다 하면서 잠시만 있을게 하는 딸아이가 너무 안쓰러워 나는 딸아이의 눈물을 닦아주면서 아빠가 미안해, 미안해하면서 딸아이를 안아주었다.

눈앞이 깜깜했던 시절, 지난 그 시간을 멀리서나마 나에게 힘과 용기를 준 딸아이 덕분에 희망을 가질 수 있었다. 뿔뿔이 흩어졌던 지난 아픔을 극복하고 반듯하고 건강하게 잘 자라준 딸아이가 너무 고마울 뿐이다. 이 시간이 지나면 또 헤어져야 하는데 딸아이에게 감당하기도 힘든 이별 연습을 자주 시키고 그것을 받아주는 딸아이가 너무 가엾기까지 했다. 기다리고 기다려도 오지 않을 하늘에 있는 엄마와 이곳에 있는 아빠를 그리워하며 울고 있을 딸아이 사연도 많고 상처도 많은 딸아이에게 너무 많은 짐을 준 것 같아 내 마음이 너무나 쓰리고 아팠다. 엄마 아빠 없는 빈 자리 메워보려고 일찍 철이 들어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고생을 하는 딸아이를 생각하면은 나는 이곳에서도 헛된 시간을 보낼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딸아이를 위해서 아빠의 심정으로 가족의 행복을 찾아가는 여정이 무엇인지 찾으며 반성과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게끔 한다.

딸아이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것조차 미안한 못난 나는 굳게 다짐해본다. 불평할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에 미래에 대한 생각과 노력을 할 것이고 그만큼 더 성장할 것이며 내가 동료 수용자에게 조금만 양보하고 조금 낮추고 조금 덜 가지면 여유와 희망이 생길 것이다.

행복한 미래는 긍정적인 사람의 몫이다. 만약 수용생활 도중 기본을 어기는 일이 있으면 열린 제자리로 돌아오는 자세를 가질 것이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항상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될 것이다. 또 소장님의 순시때 하시는 말씀이 나에게 큰 귀감이 되기도 한다. 어떤 사연으로 이곳에 왔든 모두 건강하게 생활하다가 더 나은 세상으로 가서 사회에 꼭 필요한 인재가 되라고 하신 말씀이 너무나 나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그리고 직원들이 우리를 감시한다는 것이 아니고 보호하고 있는 것이기에 직원들하고 다정다감하면 교정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사명감 고취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곳에서 생활하면서 어려움도 많았지만 지금 내가 얻은 것은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값진 시간이 된 것 같다. 먼 훗날 나는 딸아리와 행복할 것을 다짐하면 딸아이 앞에 든든한 기둥이 되어 만날 것을 약속한다. 그러면 하늘에 있는 아이 엄마에게도 응원을 해주면서 흐뭇해 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아빠와 함께 지내고 싶다는 딸아이의 소망을 들어주기 위해 주어진 일상속에서

최선과 노력을 다 할 것이다.

가을이 겨울되는 것도 잊은채 고생만 하는 딸아이를 생각하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다. 희망은 우리가 삶에서 공짜로 누리는 제일 멋진 축복이다. 그리고 기회는 항상 노력하는 자에게 우연의 모습으로 찾아온다. 보석은 홀로 반짝이지만 사랑은 가족 모두를 밝게 비춰준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우리 딸 아빠가 미안하고 잘 자라 주어서 고맙고 너무 너무 사랑해!

끝으로 가족만남의 날 행사를 만들어주신 소장님 이하 직원들께 다시 한 번 고맙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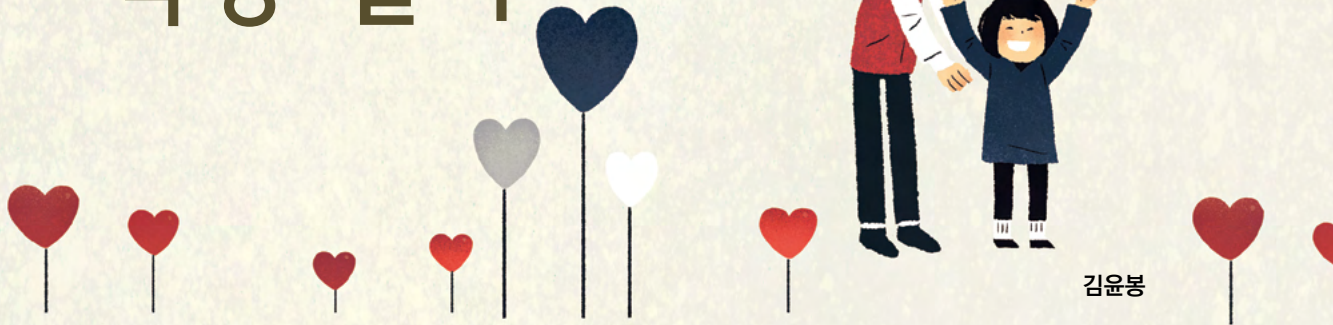


작품평

어려운 일에 처했을 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면 분명 주위에서 도와주는 이가 있을 겁니다. 딸아이는 고통 속에서도 아빠를 생각하며 열심히 살고 있으니 분명 좋은 일이 있을 것 입니다. 그 딸을 바라보는 아빠의 진실한 마음과 믿음,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다른 이름입니다.



옥중 일기



나는 1995년 12월 7일, 그 해 첫눈 온 날 신포안 고갯마루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다. 당시 익산에 살면서 주간에 직장생활을 하고 야간에는 그 곳 ○○대 교육대학원 다니고 있었다. 그 날은 3학기 마치고 대전지방 모가든에서 갖기로 한 종강파티 참석차 가던 길이었다.

그 해 첫눈에 빙판진 고갯길 내려가다 당한 교통사고, 대전 ○○병원에 후송되어 2달 정신나가 있었고 전주 ○○병원으로 이송했는데 보름 만에 정신 차리게 되어 병원치료 6개월 만에 퇴원, 그 후 1년 통원치료, ○○장애인복지관에서 1년 물리, 작업, 미술치료 받았다.

그 결과 1급 지체장애인이었으나 후에 바뀐 장애명에 따라 뇌병변장애 2급 판정을 받았다.

두뇌충격부상 자동차 사고로 뇌에 문제가 생겨

- ① 중추신경파괴로 무게중심 잡지 못해 보조기구 의지
- ② 언어신경파괴로 대화 힘들게 되었고
- ③ 오른쪽 팔뚝 골절로 글쓰기 힘들게 되었고
- ④ 시신경파괴로 한쪽 눈 실명하였으며
- ⑤ 기억신경 문제되어 안면인식장애를 입게 되었다.

이상과 같은 장애를 꽃다운 나이 38세 1995년부터 가지게 되었으니 그 후 삶은 어떠했겠는가. 익산에 있던 직장에서 퇴직 당하니 전주 ○○동에 있던 내 집에 칩거하게 되었다. 칩거하며 살아



남기 위해 사업 추진하니 우리 집 근처 ○○중 정문 앞 가게 얻어 '△△△△'이란 청소년 먹거리 체인점을 운영했다. 그러나 그 땐 1997년부터 시작된 IMF 초기여서 몇 달 만에 폐업하니 2,000만원 날렸다.

2. 나의변신

사고로 휴학했던 ○○대 대학원 1998년 졸업. 그 후 맨날 놀고먹기에 지친 나에게 아내가 권유했다. 허송세월 보내지 말고 공부나 해보라고... 그 권유에 □□대 □□대학원(2001년 입학, 2007년 졸업) 졸업했으며, 이 학창생활을 인연으로 △△대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사 양성 특별과정을 알게 되어 2004년 가을학기 수료하니 사회복지사가 된 것이다. 이때 딱 사회복지사 자격으로 1996년부터 2006년까지 10년 세월 실업자, 백수전달 생활을 면하고 정부로부터 다달이 월급 받는 직장인이 된 것이다.

2000년대 중반부터 불기 시작한 귀촌, 귀향, 귀농운동 등 이운동이 일어나기 전 2000년대 초에 구입한 완주고산 ○○로 ○○아랫동네 ○○분교 옆 부지 530평, 그 때 당시 황토집 바람 불기 전 2004년 가을 황토 기와집 건축. 그러므로 나는 시대적 선각자인 것이다. 그 황토 집에 2006년 복지시설 아동그룹 '○○○' 개설, 그 황토 기와집도 변신 거듭하여 주택 4각중 3각면 판넬 중축 하니 30평 황토집이 방 개, 화장실 3곳, 주방 2곳, 거실 2곳 합하여 총 62평 전원주택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3. 아내의 변신

32살 1988년 서울올림픽이 열리던 해 나에게 시집은 그녀. 평범했던 주부의 꿈은 갓 7년 뒤에 깨졌고 그 뒤 가장되어 집안 꾸리고 있는 그녀. 나의 사고 뒤 먹거리 사업에 뛰어들었다가 몇 개월 만에 두 손 들었던 그녀. 그 와중에 다시 학업 재개하여 사회사업 일선에서 수고하는 그녀. 한 집안 큰딸 아내인 그녀를 보고 나의 동생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하길 ‘천사’라고 했다.

○○대 출신으로 △△대 편입하여 사회복지사가 되었다. 완주 소양 ○○○, 고산 ○○재활원에 근무하면서 ○○대 대학원에서 사회사업을 전공했던 그녀이다. 우리 집에서 시설개설하게 되니 그때 2006년부터 우리시설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4. 나는 중증장애를 입었으나 1995년 38살에 당한 교통사고, 그 이듬해부터 10년 여간 최선을 다한 삶의 투쟁결과 49살 2006년부터 사회사업가가 되었다.

안정된 삶을 누리오던 중 회갑, 진갑을 지나 순간 저지른 죄로 인해 지금은 영어의 몸이 된 것이다. 이 죄의 사슬을 벗기 위해서는 까마득한 세월이 지나야한다. 66개월 형기 중 28개월 치 2020년 7월 14일 화요일 오늘.

말을 아둔하게 하는 언어장애를 입었으나 ‘나도 할 말하고 산다.’는 자격지심에 많은 글로 옥중 나의 행적을 남기고 있다.

이름하여 나의 옥중 일기.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다.

작품평

인생은 덧없이 짧은 한순간이라고 하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며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작자의 파란만장한 인생에 지난날의 과오는 자신을 시험하기위한 하나의 시련이었다고 생각하고 새롭게 출발하였으니 세상은 두 팔 벌려 또 다시 재기의 기회를 줄 것입니다. 옥중일기를 매일 쓰면서 나를 찾아 날마다 새롭게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수기” 부문은 새길 심사위원 수필가 원정미 선생님이
작품평을 해 주셨습니다.



가을에 수확(다짐)



고영철

55년의 반평생 넘게 이처럼 아쉽고, 희망도 꿈도 가져보지 못한 채 그저 사리 사욕, 물욕에 방황의 시간을 그 시간만을 즐기며 보냈던 것이 으뜸이라 생각하고 지냈으니, 이렇게 이 자리에 수용되어 있는 것이다. 그나마 이제야 알 것 같은, 이제야 느끼고 이제서나마 알고 지었던 죄, 모르고 지었던 죄에 뉘우치며 후회하고 생활해 가고 있다.

이 얼마나 다행인가 싶다. 지금에서라도 나의 허물을 알게 되었고 문제점에 반성하고 속죄함에 있어 도리어 감사함에 마음까지 생긴다. 진심 속에 우러나온 나의 재판사건과 상관없는 인연속에 살아오면서 사람들에게 피해도 주고 마음의 상처를 주었던 것들에 마음 안에서 진실로 용서를 바라며 눈물마저 절로 흘리고는 한다.

모든 인연속에 내가 지은 죄업에 의해서도 이곳에 수감되어 있다 생각한다. “선인선과, 악인악과”라 하듯이 과거에 잘못된 습성으로 이곳에 머무르는 것 또한 인연일 것이다. 차후 아니 지금에 시간부터는 선한 생각과 마음, 행동으로 미래의 나를 좀 더 나아지는 삶으로 살아가기 위함에 노력할 것이다. 수용생활의 많은 사람들, 이기적인 사람, 스스로 잘난 척 하는 사람, 남의 허물을 잘 들추는 사람, 남의 탓만 하는 사람, 부정적인 사고로 가득찬 사람 등…. 이렇듯 한데 내가 나 스스로가 책을 보면서 마음 공부, 마음 수행을 배워가면서 부끄러운 나의 존재를 발견하고 이 많은 사람들에게 혐오감과 화냄 보다는 그럴 수도 있겠다. 또는 안타까운 마음에 저러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기원을 속으로 빌어준다. 나에게 이런 것이

가능한가! 어떻게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되었을까! 라는 의구심과 편안한 마음이 생겼다.

하루하루 지내어 갈수록 마음공부를 하면서 나의 얼굴은 웃는 얼굴로 바뀌었고, 가식적이었겠지. 저러다 맞겠지……. 몸에 문신도 있고, 칼부림에 흉터도 많고 한 나를 부정적인 마음으로 겉으로는 아니지만 속으로는 비웃음이 많은 것을 안다.

바라지 않는 마음 누군가가 나를 알아봐주길 바라지 말라. 그러나 보면 교만해지고 성냄에 마음이 생기고 남의 허물을 찾다보면 내 스스로의 허물은 보지도 못하고 어리석음에 빠진다. 도리어 상대의 허물을 그 상대의 허물처럼 하지 말라는 가르침으로 받아들이고 배운다는 마음으로 지내본다. 물론 나 역시 성인이 아니기에 도리어 죄를 짓고 이렇게 시시분분로 수감되어 있는 이곳에서 잘한다하고 지내는 생활도 가식적인 생활이 아닐까? 라는 생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히 나는 방생활에 힘든 곤란함을 겪고 있는 장애인 친구에 수발을 들기로 간병을 자처하고 나서서 대, 소변을 닦아주고 세탁, 설거지, 잠자리에 함께 지내고 있다.

이렇듯 생활을 하면서 시선은 바뀌었고, 담당 계장님을 비롯하여 담당 주임님, 같은 사동 수용인들, 사동 사소님까지 나를 보며 대단하다 하시고 칭찬과, 응원, 종교의 힘인가! 부처의 믿음ियो, 부처라 한다. 칭찬은 겸연쩍다.

이러한 이야기가 내가 바라는 마음, 나를 알아봐주길 바라는 마음이 있어서 아니다. 참으로 단지, 내 스스로에 기쁨이 생기고, 꿈, 희망이라는 것이 생기고 잘 하고자 하는 의지와 다짐이 생겼기에 나처럼 하찮은 작은 사람이 변화해 가고 있다는 것에 이 또한 다른 사람도 변화를 가질 수 있다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두서없는 글로 표현해 본다.

어느 한 사람이라도 전해질 수 있을 거라 믿는다. 비록 많이 배우지 않았고 잘은 모르지만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데로 써간다. 하루에 생활을 시작하며 나의 하루장은 매번 같은 비슷한 내용에 다짐, 고운 미소, 고운 언어, 배려의 마음가짐을 새기며, 책 안에서 글귀를 메모하고 마음에서 생겨나는 시 아닌 시를 담아써가며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공부를 하고 지낸다. 이러한 시작에 내 몸과 가슴에 습관화가 되고 관습에 익숙해져 살아가야 함에 준비 중이다. 꿈, 희망이라는 것이 생겼다. 이곳 생활은 나의 출장소이며 배움의 연수생이란 생각으로 시간을 잘

활용하고 출소후에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기회가 와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무산됨을 배웠고 “준비되어 있는 자만이 잡을 수 있다”는 것에 공감한다.

행복은 물질 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체험한다. 누구에서 베푸다는 것도 가당치 않은 말이며 어리석음이다. 베푸다는 것이 아니고 나누는 것임을 알겠다.

우리가 지나고 있는 이 우주의 것들은 내 것이 아님이고 모든 사람들의 것이기에 자기가 한 만큼에 주어진 것을 그저 다시 나누는 것 그 뿐이다. “나눔”이란 참 좋은 단어이고 행복이다.

기쁨, 슬픔, 모든 마음을 나눌 수 있다. 물질도 나눌 수 있다. 있어서 베푸는 것이 아닌 나눔이라는 것을……. 그래서 나는 나누어 가는게 하나의 바람이고 희망도 되었다.

열심히 준비해서 내 가진 것에 꿈, 희망을 이루어서 나눌 것이다. 나 혼자가 아닌 함께 상생하는 마음에 행복을 찾아야 함을 이룰 것이다. 작은 미세함 속에서라도 행복을 느끼면 그것이 만족이다.

가을! 수확의 계절 문득 옛 기억 가을 수확을 두고 형제가 서로 쌀가마니를 몰래 형님은 동생에게 동생을 형님에게 서로 더 실어주려는, 행복을 나누는 형제의 우애, 이야기가 생각난다. 잠시 눈을 감고 상상해 보니 아름다움에 고운 마음에 색상이 변화에 조건은 내 마음 안에 변함이 없기를 단단히 각오하고 준비해야 함이다. 늘 하루하루 약속한다. 내 지금 변화해 가는 마음 수행에 끝내 변함이 없어야 함을 안다. 이제 다가오는 삶의 생활에는 사회의 중요한 사람 타인들에게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보다는 삶에 가치가 있는 것에 살 줄 아는 내가 될 것이다. 그 가치가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닌 함께 행복한 삶이 되는 생활을 하는 것뿐이다. 꼭 이루어 갈 것이다.

가을에 곡식들을 수확하듯이
나 또한 마음의 공부에 수확을
조심조심 하나하나 거두어 가며
내 지난 잘못들에 대한 삶에 반성
하며 좀 더 나아지는 사람으로



결실을 맺길 풍성한 마음에 내 얼굴이 맑은 미소가 가득하여 보는 이로 하여금도 함께 미소가 저절로 머금었으면 좋겠다. 타인의 아픔을 함께 할 줄 아는 마음이 나에게 생기면서 마음 안에 눈물샘이 가득하다. 부모님 돌아가심에서, 다른 아픔에도 굳건하고 냉정했던 나였는데……. 코로나19에 감염환자, 의사들, 힘 써주는 주민들 응원에도 감동하며 타국의 우환, 장마의 홍수 피해 입은 일본, 중국에도 가슴이 아프다. 어디서부터인가! 위 마음들이 찾아온 것은 보석의 마음이다. 모든 사람에게는 보석이 가득하다. 그 보석 같은 마음을 찾아 빛을 바래야 한다.

“이제는 돌아와죠” 기다림, 기다려 주는 이 누군가가? 나를! 반가이 기다려 주는 걸까. 절실하게 애뜻하게 기다려주네.

나는 알 것이라 하네. 나를 지금까지, 앞으로도 까지 언제나 기다려 주고 반겨주려 하는 나!

나는 내 마음을 기다려 본다. 아무 조건 없이 하고픈대로 하라 하면서. 마음은 이제는 본성의 마음 내 마음 돌아올 때가 되었노라 하네……. 2020년 04. 13에 나의 자작시 한편을 여기에 옮겨 적어 본다. 비록 글 아닌 글, 시 아닌 시, 아무것도 아닌 것을 혼자 스스로 유난 이라 생각도 있겠지만. 어느 어느 사람은 그러지 않을 수도 있을거예요. 사람 마음 한 없이 넓다가도 한번 틀어지고 성을 화냄을 내면 바늘 하나 꿸 곳 없다 하듯, 염두에 두어 가면서 내가 일으킨 잘못들을 누우치면서, 나의 마음 그릇 잘 닦아내면서 매음이 깨지지 않기를 노력 하고 정진하며 살 것이라 다짐에 다짐을 한다.

우리 모두 자연과 사람 더불어 살아가면서 미소 짓고 행복하게 살아가길 노력하고 기원 합니다. 오는 가을에 자연의 풍성함을 우리 한 몸으로 한 생각 좋은 마음가짐으로 행복하게 느껴 보자구요.



작품평 :자기의 마음을 극복해야 만이 남의 마음을 이길 수 있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구도의 길을 가고 있는 작자에게는 무엇을 구할들 얻지 못할게 없고 무슨 소원이든 이루지 못할게 없을 것 같네요. 마음의 동요를 안정시켜서 더욱 수행자의 덕목을 쌓게 되시기 바랍니다.




영천과 포항을 오가는 길목에 있는 나의 고향은 일제시대 농수확보를 위해 만든 저수지로 인해 산뫼를 잘라 만든 길로만 다닐 수가 있다.

19세기말, 선대할아버지께서 가난한 양반가의 체통을 버리시고, 집안을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야겠다는 일념으로 포항건어물을 가져다 영천장에 파는 보부상을 하시면서 꽤 많은 돈을 버셨다. 그 돈으로 후대의 번영을 위해 그 일대에 많은 농토를 구입하셨다. 그 당시, 이씨집안 땅을 밟지 않으면 영천과 포항을 오갈 수 없을 정도다라고 소문이 돌 정도로 땅이 넓었다고, 돌아가신 할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을 들었다. 그리고 손이 귀했던 집안이라 후손이 번성한다는 지관의 말을 듣고, 터를 잡으신 곳이 내가 태어난 집이다.

저수지로 수몰되기 전, 왕래가 용이했던 곳의 많은 땅이 저수지로 수몰되고, 덩달아 길이 막혀 사람 한명 겨우 다닐 수 있는 산길 하나로 외부와 소통하였다. 그 후 약 60여년간 산길에 의존하다 내가 태어난 이듬해인 1981년도에 당시 행정구역이던 ○○군 지원으로 차 한 대 다닐 수 있는 길로 확장되고, 내가 초등학교 다니던 1992년도에 포장공사가 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지관의 말이 사실이었던지 할아버지대, 아버지대에 많은 형제들이 태어나셨고, 나의 아버지는 장손인 할아버지의 넷째 아들로 태어나셨다. 당시 영아 사망률이 높아 몇분이 돌아가셨다고 하니 지관의 말이 사실은 사실이었다.



부자가 3대를 못간다고 했던가? 선대할아버지의 바람대로 자손들은 번성하였으나, 일제의 토지 수몰과 많은 자손들에게 살림집을 내어주며 가세는 줄어들었고, 나의 아버지께 돌아오는 몫은 거의 없었다.

기계화되지 않은 농촌은 고되다. 20대 후반, 엄마를 만나 자식 양육을 위해 큰집 앞으로 되어 있는 2천평의 산을 개간하여 과수원으로 만드셨다. 산비탈에 경운기 한 대 없는 시절, 삽과 곡괭이, 지게가 유일한 장비였다. 그 시절, 대한민국에 산골을 낀 농촌의 풍경은 다 그러했을 것이다.

20대 후반, 젊은 혈기의 아버지는 산비탈에서 온몸으로 흙을 받아내시며 쓸만한 과수원으로 개간 하셨다. 토질은 좋아 수확량은 꽤 많은 편이었다. 그러나 평지의 농사도 쉽지 않은데 산비탈의 농사는 평지의 2~3배의 노동력을 더 요구했다. 그렇게 과수원 과일은 생활비가 되고, 교육비가 되어 나를 살찌우고 커 나갔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배치고사라는 시험을 쳐 포항에 있는 고등학교로 진학하였다. 통학이 어려워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되었고, 본의 아니게 유학생생활이 시작되었다. 그렇게 시작된 고등학교 생활, 반에서 중상정도의 성적을 유지하며 그럭저럭 생활하였다. 고등학교 2학년 생활의 끝 무렵, 학생회장에 도전하고 싶은 욕심이 생겨 담임선생님과 상담을 하였다. 당시 내가 다닌 고등학교가 사립 고등학교여서 촌지가 인정되는 때였다. 담임의 첫마디가 가관이였다.

“니! 집에 돈 있나?”

“집에 농사 지어서 많이 없는데요.”

“학생회장하면 학교에 돈도 내야하고 해서 돈이 많이 들어간다. 잘생각하고 이야기해라.”

“네.”



오기가 생겼다.

과수원의 1년은 학년이 끝나가는 늦겨울에 시작된다. 한 겨울을 지난 나무가 봄을 맞기전, 지난해 옷자라난 가지를 이발하듯 쳐내는 가지치기 작업부터가 1년 농사의 시작이다. 귀가는 1, 2주에 한번씩 허용되어 그날도 기숙사를 떠나 집으로 갔다. 아버지 일도 도와드릴 겸 과수원으로 따라 나셨다. 1, 2주에 한번씩 집에 가다보니 그 동안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쉽없이 이야기로 풀어내곤 했었는데, 그날따라 쉽게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다. 머뭇머뭇하다 용기를 내어 말씀을 드렸다.

“아부지요?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뭘고?”





“제가 학생회장 선거에 한번 나가고 싶은데요, 담임이 학생회장하면 돈이 많이 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교?”

“그래? 니 하고 싶은데로 해라. 아버지가 뒷받침 할 수 있는건 다 해줄거니까 한번 나가봐라.”
“알았나도. 한번 해 볼게요.”

1초의 고민의 시간도 없이 바로 대답을 해주신 아버지께 감사했다. 그렇게 나는 학생회장 선거에 출마하기로 하고, 담임선생님과 결판을 짓기로 했다. 3일동안 담임은 나를 말렸고, 포기 의사가 없다는 것을 아셨는지 학생부장 선생님과 면담을 주선해 주셨다. 학생부장 선생님과 1주일간 면담이 이어졌고, 결국 나의 의사가 관철되었다.

기숙사방 친구들의 도움으로 선거유세 홍보판을 만들었고, 같은 반 친구들의 도움으로 유세 활동을 하였다. 이틀간의 교내 유세활동, 3일째 학교 방송반에서 TV유세를 끝으로 투표에 들어갔다. 결과는 천명의 유권자 중, 80표 차이로 떨어졌다. 후회는 없었다. 단, 아쉬운 부분은 나를 떨어뜨리기 위해 2파전 이었던 선거에 기숙사 같은 방에서 생활하던 기숙사장 친구를 학교측에서 강제 출마시켜 표를 분산시켰다는 것이다. 결국 돈 많은 집안의 학생부회장 출신 학생이 학생회장에 당선되었고, 이 부분에 대해 이의제기 하지 못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선거가 끝나고 아버지께서는 고생한 친구들에게 과자라도 사 주라고, 용돈 5만원을 주셨고 가장 고생이 많았던 기숙사 방 친구들과 과자, 치킨 파티를 끝으로 선거 캠프는 문을 닫았다.

20여년의 시간이 지났다. 그날의 기억들은 희미해지고, 사람도 늙고, 나무도 늙었다. 소일거리용 나무 몇 그루만 남겨졌고, 부모님의 젊음이 담긴 과수원 부지는 다른 문종의 선산으로 넘어갔다.

나도 이제 한 아이의 부모가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갖게 되었다. 내 아버지께서 하신 것처럼 나도 내 아들에게 그의 뜻대로 살 수 있게 최선을 다해 뒷받침이 되려고 한다. 20여년 전, 과수원 한 모퉁이에서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처럼 말이다.



작품평 : 아버지에 대한 단상이 영화처럼 펼쳐진 글입니다. 젊은 육체는 어느덧 늙어 아버지의 나이가 되어 달려온 인생을 뒤돌아보게 되었군요. 수백 칸의 대궐이라도 하룻밤을 자는 데는 한 칸 방이면 되고, 만석의 땅을 가졌어도 하루 세끼분임을 깨달았으니 욕망에 집착하지 않고 주어진 삶을 지혜롭게 설계하시리라 믿습니다,

가을 동화



김금숙

나는 이곳에서 새벽 2시쯤이면 자명종이 있는 것도 아닌데 어김없이 잠에서 깬다. 이곳이 내가 살던 집의 방이 아니고, 감옥이라는 사실에 정신이 번쩍 들면서 심장이 시리도록 아프다.

그러면 꿈에도 보고픈 내 동생들을 떠올려 본다. 독수리 5자매라고 했던 내 동생들과 뛰놀던 시골의 바다가 떠오르면서 내 마음은 어느새 고향 바다에 가 있는 것이다.

나는 어린 시절을 충남 당진의 어촌과 산촌을 두루 끼고 있는 곳에서 자랐다. 나의 아버지는 면 소재지에 있는 면사무소의 호병계장이란 직책의 면 직원이었다. 호병계라고 하면, 지금의 어린 사람들이 들으면 생소한 이름인데 그 당시 시골의 면사무소에는 방위들이 있었고, 방위는 현역군인을 대체한 공익이었다. 또 지금의 가족 사항을 그때는 ‘호적’이라고 하였는데 방위병과 호적을 다루는 부서가 호병계였다.

아버지의 직업 때문에 나는 시골에서 유지에 속하는 집안에서 살았다. 지금 생각해보면 유지라고 해봐야, 도긴개긴이지만, 그 당시에는 현금이 귀하던 시골에서 아버지는 한 달에 한 번씩 월급을 타 오셨다. 월급을 타오던 날, 아버지는 술이 얼큰하게 취한 모습으로 들어오셔서 양복의 가슴팍 속주머니에서 누렁고 큰 봉투를 꺼내셨다. 그 시간은 밤늦은 시간이기도 우리 집 다섯 자매는 한참 잠에 취해서 푹 떨어져 자고 있는 시간이었다. 술에 취한 아버지의 음성은 맑고 컸다.

“얘들아!! 다 일어나!! 아버지가 오셨단다!! 모두 일동 일어 낫!!!” 아버지의 큰 소리에 우리 다섯 딸은 모두 잠에서 깨어 이불 밖으로 나와 앉았다. 그 당시 나는 초등학교 6학년, 동생은 3학년,

1학년, 6살, 3살이었다.

아버지는 제일 먼저 큰딸인 나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말씀하셨다.

“너는 우리 집의 기둥이야!!”

“아버지는 아들 많은 집 하나도 부럽지 않으니깐 네가 모범이 되어 동생들을 잘 이끌어야 된다!! 알겠어!!” 하면서 큰 소리로 나에게 다짐의 대답을 요구하신다. 아버지는 나에게서는 아들이 부럽지 않다는 걸 강조하면서 나에게 은근히 세뇌를 시키는 것은 아들 많은 집이 부러웠기 때문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잠이 덜 깬 상태로 “예 !! 아버지 !! 알겠슈!!” 하고 얼른 대답하였다. 그러면 아버지의 연설은 빨리 끝이 나고, 월급봉투에서 어린 딸들에게 용돈을 쥐여 주셨다. 나에게서는 500원짜리 파란 지폐 한 장. 그리고 바로 아래 동생은 200원 100원, 50원 그리고 막내는 번쩍 안아서 까칠까칠한 수염으로 얼굴을 비벼주면 막내동생은 따갑다고 “으앙” 하고 울음을 터지는 것으로 용돈의 전달식은 끝이 났다.

엄마는 아버지가 어린 딸들을 데리고 연설하는 동안 그냥 아무 말씀 없이 묵묵히 앉아 계셨다.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하신 아버지가 한잔하신 후 얼큰히 취해서 어린 딸들에게 용돈을 주시면서 보람을 느끼는 하루가 월급날이라고 생각하셨던 모양이다. 아버지는 월급봉투에 남은 돈을 통째로 엄마에게 주셨다. 엄마는 아버지가 주시는 월급봉투를 받을 때 만큼은 항상 두 손으로 공손하게 받으셨다.

가장이 처자식을 위해 부양한 것에 대한 예우를 엄마는 그렇게라도 표시하는 거 같았고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자랐다. 그러면서 나는 동생들과 친구처럼 들로, 산으로, 바다로, 날다람쥐처럼 뛰면서 초등학교에 다녔고 우리는 그렇게 추억을 하나씩 쌓고 있었다.

다른 친구들은 사이 좋게 지내는 우리 다섯 자매의 별명을 독수리 오자매라고 불렀다. 우리는 그 별명이 마음에 들었고 독수리 오형제의 가사를 독수리 오 자매라고 개사하여 부르고 다녔다.

어느덧 나는 중학교에 가게 되었다. 아들이 없는 우리 집에서는 나는 부모님께 큰아들의 역할을 해야 하기에 먼 소재지에 있는 중학교를 보내지 않고 ‘군’ 시내에 있는 중학교로 유학을 보내기로 하였다. 아버지와 엄마는 내가 큰딸이기에, 많이 고민하다가 결정을 하였다. 그런 이유로 나는 당진군의 군청 옆에 있는 중학교에 입학하였다. 내가 살던 집과 학교는 거리가 너무 멀어서 차로 통학하기는 힘들었다. 아버지는 나에게 학교 근처에 있는 조그맣고 깔끔한 자취방을 하나 얻어

주셨다. 동생들이 너무 많아서, 하숙을 시키기에는 벅차다고 하면서 자취방을 얻어 주셨다.

나는 나이 14살에 처음으로 부모와 동생들과 떨어져서 살아야 했다. 첫날밤은 엄마가 나와 하룻밤을 같이 주무시고 가시면서 밥하는 방법, 연탄가는 방법, 곤로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다. 다음날부터는 나 혼자 자야 한다고 하시면서 내가 보지 않을 때 눈물을 닦으셨다.

나는 너무 어린 나이였기에 무섭기도 하고 기가 막히기도 하였다. 밥해서 먹는 것이 제일 걱정이었다. 나는 엄마에게 학교를 잘 다닐 테니 차라리 하숙을 시켜달라고 졸랐다. 엄마는... 아버지의 월급과 농사짓는 것으로 5명의 자식을 먹이고 가르치기는 벅차고 빠듯하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엄마는 나를 다독다독 달래어 잠을 재웠고 돌아누운 엄마는 혼자 떼어놓을 어린 딸 걱정에 제대로 잠을 못 주무시는 듯 흘쩍거렸다. 처음으로 동생들에게 뺏겼던 엄마의 품에서, 따뜻하게 잠을 잔듯하였다. 그 이후 나는 단 한 번도 엄마와 자본 적이 없는 거 같다.

그렇게 나는 얼떨결에... 중학교 1학년, 그 어린 14살에 홀로서기를 하였다. 엄마는 아침밥을 해주고 밑반찬을 챙겨준 후 동생들 때문에 집으로 가셨고 나는 학교로 갔다.

등교 첫날 오전 수업을 마치고 나는 집이 아닌 자취방으로 터덜터덜 걸어갔다. 갑자기 외롭고 쓸쓸하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배는 고파왔다. 저녁밥을 해 먹으려고 엄마가 알려준 대로 곤로위에 쌀을 씻어 넣은 냄비를 올려놓고 성냥을 그어서 곤로의 심지에 불을 붙였다. 석유 냄새가 확 퍼지면서 심지에 불이 붙었다. 불이 너무 약해서 심지를 올리는 둥그런 손잡이를 살살 돌려 보았다. 심지가 올라가면서 불꽃이 점점 커졌다. 나는 빨리 밥을 해서 먹고 싶은 생각에 심지를 최대한 높이 올려 보았다. 심지가 쭈~욱하고 길게 나오면서 불꽃이 너무 세게 올라왔다. 그러자 얼굴을 곤로에 들이대고 들여다보던 나의 눈썹을 순식간에 태워버리고 앞머리도 반쯤 그슬러 버렸다. 깜짝 놀라서 곤로에서 얼른 얼굴을 돌렸다. 그 와중에도 “불이 나면 안 되지!” 하는 생각이 불현듯 뇌리를 스쳐와 곤로불을 재빠르게 꺼버렸다.

나는 밥이고 뭐고 포기하고 거울을 들여다보았다. 눈썹은 거의 타버렸고, 애교로 내린 앞머리는 반쯤 그슬려 있었다. 멧을 부리기 시작한 사춘기였기에 눈썹이 탄 상태로는 창피하여 학교에 갈 수가 없었다. 서럽고 무서운 밤을 한숨도 자지 못하고 꼴딱 새었다. 그래서 다음날 학교에 가지 않고 가방을 들고 버스터미널로 향하였다. 집으로 가는 버스를 탔다. 집안에 들어서자... 나는 복받치는 눈물에 “엄마”하고 불렀다. 부엌에서 설거지하던 엄마는 손에 묻은 물을 닦을 새도 없이 달려 나왔다. 엄마는 나의 얼굴을 보자마자, 상황을 짐작한 듯이 나를 와락 껴안아 주었다. 엄마는 엄마의 품에서 나를 떼어놓더니 반쯤 타버린 눈썹과 머리를 보더니 “어휴 저 어린 것을 혼자 밥해

먹고 살으라고 한 이 어미가 잘못이지!!” 하면서 엄마의 가슴을 손으로 치고 있었다. 그리고는 방에 들어가서 한숨 자라고 하면서 눈썹이 없는 모나리자를 닮은 나의 얼굴을 쓰다듬었다. 자취방에서 홀로 밤을 새워버린 나는 긴장이 풀렸는지 금방 잠이 들었다. 얼마나 지쳐 떨어져 잠을 잤던지 눈을 떠보니 아버지가 면사무소에서 퇴근해오실 시간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아버지는 거의 정확한 시간에 집에 오셨고 누워 있던 나는 아버지가 야단치실까 봐 벌떡 일어나 앉았다.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서 그냥 앉아서 “아버지! 저 왔슈!”하고 울먹이는 소리로 인사를 하였다. 아버지는 성큼성큼 방안으로 들어오셨고, 나의 물골을 보시더니 나의 타버린 머리를 쓰다듬으셨다. 두려움에... 나는 눈을 꼭 감았다. 아버지가 학교에 가지 않았다고 후려치는 건 아닌가, 하고 눈을 힘껏 감았다 떴다. 눈을 뜬 나는 아버지의 눈이 충혈된 것을 처음 보았다. 그렇게 나는 집에서 동생들과 같이 또 불안한 하룻밤을 보냈다. 아무것도 모르는 동생들은 서로가 내 옆에서 자겠다고 싸움을 하였다.

다음날 아버지는 나의 심정을 알았는지, 떠밀어서 학교에 가라고 하지는 않았다. 나는 아침 밥상 머리에서, 아버지한테 자취하면서는 학교에 다니지 못하겠다고 딱 부러지게 말을 하면서 하숙방을 얻어 달라고 하였다. 아버지는 아무 말씀 없이 애매한 국만 계속 드셨다. 나는 더욱 용기를 내어, 곤로에 밥은 못 하겠다고 울고불고 난리를 쳤다. 나의 갑작스러운 울음소리에 옆의 상에서 둥그러니 앉아서 밥을 먹던 내 동생들은 깜짝 놀란 눈으로 더 이상 밥을 먹으면 안 되겠다고 판단하였는지 모두 밥숟가락을 상위에 놓았다. 모두 나를 따라서 울 기세였다. 그리고 다섯 자매는 합창하듯 영영 울었다. 갑작스러운 울음바다에 놀란 아버지는 잠시 후 하숙을 허락하셨다. 그리고 나는 다시 하숙집에서 학교에 다녔다.

그 이후...

동생들과 한집에서 한 번도 살지 못하고 어른이 되었다. 그러면서 각자 결혼하여 독립하였고, 지금껏 동생들과 친구처럼 지내면서 희로애락을 같이 하였다. 갑작스러운 나의 구속으로 동생들은 어릴 적 ‘곤로사건’ 때처럼 놀랐겠지만 모두 십시일반으로 최선을 다해 고소인들의 피해 변제를 위해 희생해 준 것이 눈물겹도록 미안하고 고맙기만 하다.

그리고..... 부끄럽다.



작품평 : 숯불은 하나만 있을 때는 쉽게 꺼집니다. 많은 숯이 함께 어우러져야만 빛과 열이 오래 간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여러 형제가 함께 힘을 모으며 살아온 인생은 축복받은 인생이지요. 이제는 혼자만의 불로도 꺼지지 않을 수 있도록 부지런히 자신을 태우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속죄의 열매 새 날의 꿈



김용갑

정부 투자기관에서 퇴직한 나는 12년간 우울증을 앓고 있는 아내 때문에 고통스런 삶을 살아왔다. 긴 세월만큼이나 아내의 우울증은 저장 강박증과 편집성 인격장애로 발전하여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

아내는 병이 깊어 지면서 지나칠 정도로 자기 중심적이었다. 철따라 불필요한 의류와 주방 기구들을 바꾸고 사들이는 쇼핑 중독에 빠져들어 갔다. 그런데다 시도 때도 없이 지인들과 여행하기를 좋아 하다보니 그에 따른 지출은 늘어만 갔다.

이러한 아내는 급기야 졸혼하자며 가까운 곳으로 별거에 들어갔고, 따라서 월 지급되는 연금도 아내가 독차지하게 되었다. 홀로남은 나의 생활은 궁핍하기 이룰데 없었다. 급급한 대출금과 생활비가 부족해, 지니고 있던 반지와 자동차까지 팔아 보았으나 한계가 있었다.

지난 3월이었다. 부족한 생활비를 벌기 위해 강사직 일자리를 찾아보았으나, 코로나19 사태로 각급학교 학사일정까지 마비되는 바람에 꿈을 이룰수가 없었다. 절박한 심정에 아르바이트라도 해야겠다고 뛰어 들었던 것이 그만 사기죄에 걸려들어 구속되었다.

하루 아침에 범죄자가 되어 수형생활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아내에 대한 분노와 증오심이 솟아 올랐다. 내 인생이 황혼에 접어들면서 뜻하지 않게 만신창이가 된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었다. 그렇다고 형제들에게 도움을 청할 수도 없었다. 나를 도와 줄만한 형편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내가 가담하여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미안해서 견딜수가 없었다. 비록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일지라도 미안함을 버릴 수가 없었다. 좌절의 늪에서 뉘우치는 속죄가 커갈수록 60중반을 살아온 인생의 실패감에 대한 자괴감에 괴로워했다. 그 자괴감에 새날의 희망도 점점 사라져 가는 느낌이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삶의 돌파구를 찾지 못해 자해를 하게 된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낄 수 없었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지금까지 존엄한 나의 인생을 살아왔기에 비난하며 학대할 수가 없었다. 이대로 무너질 수 없다는 생각에 나를 지배하고 있었다. 그것은 나의 잘못된 행위에 대한 속죄를 통해 깨달은 새날의 꿈 때문이었다.

그 열매를 따내리기 위한 염원이 나를 지탱해주고 있었다. 이러한 각오 끝에 아내에 대한 분노와 증오심도 거두어 낼 수 있었다. 속죄의 열매가 새날의 꿈을 꾸기까지는 나에 대한 원망과 학대의 채찍을 꺾어버리면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그 열매가 알차게 영글어 가고 있었으니 그것은 아내 인격에 대한 존엄의 사랑이었다.

나의 절박한 현실을 타개하려했던 급급한 사정의 변명은 여지 없이 존엄의 사랑앞에 무너져 내렸다. 지금까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아내를 끝까지 지켜온 그 존엄이 속죄를 풀어주는 새날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었다. 언젠가 출소하면 그 꿈이 새날을 알리는 여명의 빛으로 나를 응원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의 여율이 내 가슴을 다독여 주고 있었다.

내가 위로 받기보다 아내의 존엄한 사랑으로 승화시킨 나의 속죄가 이토록 새날을 맞이 할 수 있는 미래의 열매로 맺혀질 수 없었다는 오늘에 나를 응원했다.

속죄의 열매가 '전화위복'의 꿈으로 변하면서 새하늘 새땅을 내디딜 그날이 저만치에서 걸오고 있는 듯하다.



작품평 :인생은 누구나 남녀 간의 이성이나 재물에 초연하기 어렵지요. 마치 어린아이가 칼날에 묻은 꿀을 핥다가 혀를 베는 것과 같이 자명한 일입니다. 이제 자기의 마음을 극복하여 안정을 얻었으니 그 마음을 간직하여 타인의 마음에 기쁨을 주는 참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발길

김승훈

“혹시 김승훈(가명)씨가 누구십니까?”

거실 창살 밖에서 날 찾는 소리에 바둑을 두다말고 깜짝 놀라 일어섰다.

남자답게 잘생긴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건장하고 몸이 좋은 교도관이 서 있었다.

“예, 접니다.”라고 의아해하면서 대답을 하자, “김영철씨(가명)하고는 어떻게 되는 사이입니까? 제가 어릴 때 김관장님 밑에서 운동하였습니다.”라고 말을 하였고, 그제서야 나는 이해되었다.

친구 체육관으로 보낸 편지를 확인했으리라. 죄수를 부르는 목소리가 아닌 다소 친근하기까지 한 검정색 마스크를 착용한 그 교도관에게 나는 친구사이라는 사실을 밝히자마자 후회를 하였다. 아차, 하였다. 난 어릴 때부터 여러 운동을 하였지만 합기도를 가장 오랫동안 하였고, 한국정통 합기도 협회의 ○○직에 있으며 수많은 대회에 심판으로, 임원으로써 참가하였다. 그러다보니 무도인들의 세계나 각종 협회에 많은 사람을 알고 있으며, 그들에게는 내가 이곳에 온 사실을 숨겨야 하는데, 난 이미 처음 보는 교도관에게(친구제자였지만) 발설을 해버려 앞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될지 의문스럽기 만하다. 부끄럽다! 소문이 날까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진정 죄를 지었다는 사실이 너무 부끄러웠다.

“알선·수재” 물론 아직 형이 확정되지도, 죄명이 확정되지도 않았지만 여기 있다는 사실 하나로만 충분히 부끄럽다.

문득 옛날 생각을 해본다. 약 20여 년 전 난 이곳 교도소에 무수히 왔었다. 재소자가 아닌 재소자를 조사하는 경찰관으로서 자주 온 것이다. ○○교도소 관할 경찰서에 조사업무담당 형사로 근무하다보니 전국에서 사건이 이첩되어오면 수사접견 후 사진을 다시 보내 주어야하기에 많이

왔을 뿐이다. 그러나 난 지금 재소자로 이곳에 있다. 정말 부끄럽다 못해 인생의 기구함까지 느낀다.

추억을 더 거슬러 남들이 3년 있는 군대를 난 7년간이나 복무했다.

미사일부대와 유도탄 부대를 관장하는 본부에서 교육과 작전선임하사로서 누구보다 열심히 군 생활을 하였다. 6개월간의 훈련을 받고 졸업할 땐 그 많은 교육생 중 당당히 1등으로 졸업했으니 거의 군 체질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었다. 수많은 표창과 감사장들! 정말 열심히 살지 않았는가. 무도인으로 직업군인으로 또 형사로서. 그런데 50대 중반인 난 지금 어떠한 모습인가. 흰머리가 희끗희끗한 멋있는 중년신사가 아닌 볼품없는 죄수복에 다듬지 못한 흰 머리 투성이의 나.

범죄의 대가는 쓰다. 나의 경우는 너무 처참하다. 그래서 나의 얘기를 해보려한다.

내겐 두 딸이 있다. 좋은 대학을 다니며 얼굴도 무지 예쁘다. 예술(미술)대학이다 보니 올해 유학을 보내주었어야 하는데 비싼 유학비를 지원해주지 못해 현재 국내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대라는 타이틀 때문인지 고액 과외로 열심히 돈을 모으고 있다한다. 요즘 두 딸 얼굴본지가 꽤 오래되었다. 왜냐하면 약 15년 전 이혼하면서 전처가 두 딸을 키우니 가끔 얼굴을 보았는데, 유학비 문제로 내게 상당히 불만이 많았다. 더군다나 두 달 전 부터 이곳에 있다는 사실을 말할 수 없어 외국에서 코로나 때문에 귀국하지 못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는데 이제 전화마저 안 되니 어떤 상상을 할지 모르겠다. 보고 싶어도, 서신을 주고받고 싶어도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여기에 숨어살고 있다. 매일 그리움으로 대신하고 있다.

이혼 후 찾아온 아버지의 죽음. 경주 ○○대 병원에서 심장이식 수술을 받았지만 수술 후 의식 한번 회복하지 못한 채 하늘나라로 가셨다. 그로부터 10년 후 난 어머님도 보내드려야 했다. 어머니는 심장판막 등 수술을 하였지만 역시 일어나지 못하셨다. 이번에는 ○○대학병원이었고, 무려 한 달 넘게 중환자실에 계셨다. 그렇게 많은 기계들을 사람 몸에 부착할 수 있다는 게 신기 하였지만, 그 기계들은 도움이 되지 못했다. 두 분을 그렇게 보내드렸고 난 유전적 영향으로 늘 조심하였다. 몇 년 전 동네병원에서 심장검사를 받아보라는 권유에도 평생 약 복용이 두 분을 지켜온 터라 진료조차 하지 않았던 것이다. 나는 가벼운 운동과 등산, 골프로 몸을 잘 간수하였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2020년 5월 7일 내가 법정구속 된 날 그날은 목요일이었다. 구속된다는 생각을 전혀하지않은채 급작스럽게 이곳으로 온 다음날 금요일 오후부터 일요일까지 3일간 난 시체나 다름없었다. 코로나 영향으로 독방에 갇히면서 식사도 잠도 잘 수 없었고, 호흡곤란과 폐쇄공포증이 찾아오면서 완전히 뻘었지만, 휴일 탓에 진료를 받을 수 없었다. 나만의 호흡법,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상식을 동원해서 호흡곤란을 진정시키며 극복하고자 노력하였다. 그 힘든 시기를 넘긴 후 본방으로 이송 왔지만, 어느 날 아침 점검이 끝난 후 난 쓰러졌고, 들것에

실려 의료과로 옮기는 등 교도소를 비상상황으로 만들기도 했다. 결국 외래진료를 가게 되었고, ○○병원에서의 검사결과는 매우 심각했다. 심부전증 외 5가지 정도의 진단이 나왔고, 약 처방을 받았지만 이제 내 심장은 때때로 찾아오는 호흡곤란과 두근거림으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으로 변해버렸다. 난 건강에게도 지고 말았다.

내겐 부인 같은 애인이 있다. 아니 있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하다. 동거한지 몇 년 되었지만 그녀와의 관계가 서먹서먹할 때 서로에 대해서 믿음이 깨질 때 쯤 난 구속되었다. 구속되지 않았으면 헤어질 수도 관계가 회복될지도 모르는 일이지만, 며칠 전 접견하면서 난 일방적인 이별 통보를 받았다. “이 상황에 이런 말해서 미안한데 앞으로 면회 못 올 거 같애. 아파트 정리 되는대로 서울 갈 거야, 휴대폰 번호도 바뀔 거고, 합의금이나 변호사 비용조로 ○○(여동생)에게 맡겨 놓을게, 미안해.”

눈물을 흘리는 그녀와의 접견은 10분을 채울 수가 없었다. 다른 일행에게 보이기 싫어 속으로 울었다. 난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찾지도 연락하지도 않을 거라고 맹세만 하면서 접견자가 여동생으로 바뀌었을 뿐 현재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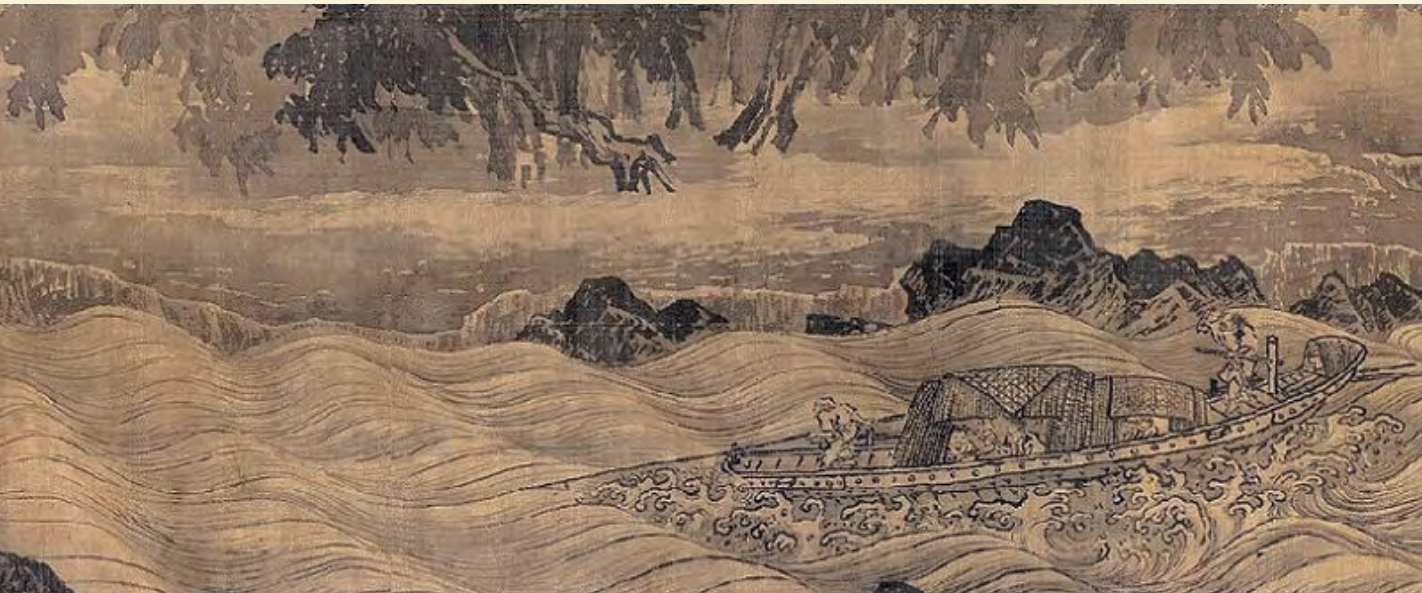
난 또 혼자자 되었다. 내겐 가족도 없다. 두 딸은 날 찾지 않으며 나 역시 연락할 수도 없다. 이젠 꿈도 사라져 버리는 것 같다. 초라한 노인으로 되어가는 내 그림자만 있을 뿐이다. 남은 건 병마와 싸워야 하는 나 자신뿐. 암살환자가 많은지 난 의료사동으로도 갈 수 없다. 그렇다고 거실 내 다른 사람에게 불편함을 주긴 더욱 싫다. 감옥보다 더 갑갑한 내 인생의 마지막 여정은 어디로 가야하나요?

죄 값을 치르고 때로는 새 출발로 터닝포인트를 찾은 많은 사람들이 수기를 읽어보지만, 내가 지은 죄는 내 모든 것을 송두리째 앗아 가버린 것 같다. 혼자서 해결할 수가 없어 여러 번에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나 어떻게 살아갈까요?



작품평 : 온갖 번뇌는 욕심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등불 없는 무서운 밤길을 지나왔고 명예와 속박에서도 해방이 되었으니 욕망의 씨앗도 뿌리 채 뽑아낸다면 괴로움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깨닫는 것이 진정한 깨달음입니다. 마음의 번뇌는 단명할 행동이요, 자신을 안정시키고 침착하게 행동하면 장수할 행동이니 괴로움에서 벗어나 피안에 이르시길 바랍니다.

“수필” 부문은 새길 심사위원 수필가 원정미 선생님이 작품평을 해주셨습니다.



장강만리도(長江萬里圖) | 양자강이라고도 부르는 장강은 중국의 젓줄이다. 장강의 뱃길을 이용한 물자의 운송과 문화의 교류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남송시대의 화가 하규(夏圭)의 <장강만리도>(長江萬里圖) 중 일부이다.

중국의 홍수로 본 자연의 경고 곤의 교훈과 우의 지혜

김상철 | 동덕여대 교수

코로나 19로 세상이 참 어지럽습니다. 평범했던 일상은 사라진 지 오래이며, 앞으로 또 어떤 일들이 발생할지 전전긍긍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번 사태는 우리나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재앙이 되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이지요. 온 세상이 모두 멈춰서 버린 것 같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는 그간 인류가 겪어왔던 여러

가지 재앙들 가운데서도 기억할만한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될 것 같습니다. 그간 인류는 과학발전에 힘입어 전에 없는 물질적 풍요와 쾌적한 삶을 누리 왔습니다. 급기야는 과학이 종교마저 대체하는 지경에 이르렀지요. 이미 달나라는 갔다 왔을 뿐 아니라 화성을 탐사하면서 이주계획까지 논의되고 있으며, 인간의 염색체를 해석하여 신의 영역이라 불리던 생명체의 탄생까지 인간이 관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넘쳐났지요. 인공지능이라 부르는 로봇이

인간의 역할을 대체할 것이라는 예언은 이미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눈부신 과학의 발전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가 확인한 사실은 인간들은 여전히 매우 취약한 존재이며, 모든 것이 우리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대한 문명의 탑을 쌓아 올렸지만, 인류는 눈으로도 보이지 않는, 또 생명체도 아닌 바이러스라는 존재에 한없이 무기력해지고 만 것이지요. 문제는 앞으로도 이러한 재앙이 어떤 방식으로, 언제 어떻게 발생하여 인류의 생존을 위협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그간 우리가 겪어왔던 수많은 재앙과 재난들은 큰 시련이었지만, 역설적으로 이의 극복과 타개의 노력은 문명발전의 동력으로 작용하기도 하였습니다. 병이 창궐하면 약을 만들고, 홍수가 범람하면 댐을 만들고 했던 것들이 바로 그것이지요.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도 백신과 치료제의 개발을 기대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러한 노력으로 이번 사태는 언젠가는 종식이 되겠지요. 그러나 장차 이와 유사하거나, 혹은 전혀 다른 형태의 재난이나 재앙이 오지 않을 것이라 장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간의 경험으로 볼 때 누구나 상상하다시피 앞으로 정말 상상하지 못했던 여러 재앙이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리라 생각됩니다.

누구나 어느 정도 느끼셨겠지만 최근 날씨가 상당히 사나워졌습니다. 유례없이 오랜 장마도 그렇지만 예년보다 숨 막히게 높은 기온도 마찬가지입니다. 겨울이면 삼한사온이라는 전통적인 날씨의 패턴도 사라진 지 오래지요. 때아닌 폭설이 내리다가 겨울 장마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비가 오기도 합니다.



튀튀허(沱沱河) | 황허는 중국 내륙 칭하이성(青海省) 쿤룬산맥에서 발원하여 5,464 km를 흘러 서해 발해만으로 흘러드는 중국에서 두 번째로 긴 강이다. 사진은 황허의 발원지로 알려진 튀튀허(沱沱河)이다.

이런 일기 불순함이 꼭 겨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봄, 여름 가릴 것 없이 시도 때도 없이 발생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떤 자연재해가 닥칠 때마다 사람들은 ‘평생 처음 겪는다.’라는 말로 상황을 설명하곤 하지요.

사실 기상이변, 혹은 환경변화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간 꾸준히 진행되며 오늘에 이르렀지만, 요즘에 들어서야 비로소 실감하고 그 위력에 공포를 느끼게 된 것이지요. 그중 자연재해로 불리는 것들을 나열해 보면 홍수와 가뭄, 화산폭발과 지진, 그리고 산불과 쓰나미 등 땅과 바다, 하늘을 가리지 않는 다양한 내용이 떠오릅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은 전에도 있었지만, 최근 들어 더욱 사나워져 엄청난 피해를 가져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올해 우리나라가 겪은 유례없는 장마와 홍수 역시 마찬가지인 경우가 할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중국에서 들려오는 홍수 소식은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지요. 이미 우리나라 국토의 절반이나 되는 농경지가 물에 잠겼다느니, 세계 제일을 자랑하는 쓰촨(三峽)댐이 붕괴할 조짐을 보인다는니 하는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모두를 긴장시켰지요.

이번에는 바로 중국에서의 홍수와 환경변화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중국은 커다란 두 개의 강을 지니고 있습니다. 북쪽의 황허(黃河)와 남쪽의 창장(長江)입니다. 황허는 중국 문명의 발생지로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긴 강이며, 중국 자체를 상징하는 강입니다. 강을 의미하는 한자 하(河)는 본래 황허를 부르는 말이었으나 점차 모든 강을 대변하는 의미를 갖게 되었지요. 그만큼 중국과 동북아시아 문명에서 황허의 위상은 대단한 것입니다. 서양에서 강을 River라고 표기합니다. 이는 이집트의 나일강(Nile)에서 비롯된 것으로 황허의 경우와 유사합니다. 또 다스릴 치(治)자에는 물을 상징하는 삼수변(氵)이 들어 있습니다. 이는 정치 등 무엇을 다스린다는 것은 바로 물을 다스리는 것과 같다는 의미입니다. 물 흐르듯이 막힘없음 이 바로 다스림의 최고 경지이지요. 중국에 “물을 다스리는 자가 천하를 다스린다.”라는 말은 바로 이

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한자의 다스림에 물의 의미가 들어 있는 것은 바로 황허가 그만큼 많은 문제를 일으켰었기 때문이지요. 해마다 반복되는 홍수에 막대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니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중국의 역사는 바로 황허에 대한 치수로부터 비롯된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중국의 역사는 전설적인 하(夏)나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왕조의 시조인 우(禹)는 황허의 홍수를 다스리는데 헌신적인 노력을 한 공으로 제후들의 추대를 받아 천자(天子)가 되었습니다. 우의 집안은 관리 집안으로 그의 아버지인 곤(鯀)은 황허를 관리하는 책임자로 있었습니다. 그는 7년 동안 가뭄과 홍수를 막는 치수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는 해마다 반복되는 황허의 범람을 막기 위해 뚝을 쌓는 데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자연의 힘 앞에서 그의 정책은 실패하게 되고



호구폭포(壺口瀑布) | 황허의 진면목을 잘 보여주는 호구폭포(壺口瀑布). 호구폭포는 황허에서 가장 큰 폭포로 흔히 황허가 중국의 땃줄이라면 호구폭포는 그 소리가 우렁차 대륙의 심장이 부른다. 폭이 300여미터로 흐르는 황허는 호구폭포에서 30여미터로 좁아져 50여미터 아래로 떨어진다.

결국 처형당하게 됩니다. 이어 그의 아들인 우(禹)가 치수 사업을 맡았습니다. 그는 자기 아버지와 달리 물길을 막는 제방을 쌓지 않고 오히려 물길을 열어 물의 순환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방법으로 황허의 물길을 다스려 천자의 지위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역사에서는 곤의 치수 방법을 '역행치수(逆行治水)', 우의 방법을 '순행치수(順行治水)'라고 말합니다.

물길을 막고, 물길을 트는 것은 서로 상대적이지요. 하나는 자연에 맞서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연의 이치에 순응하는 것입니다. 곤과 우의 황허 치수 이야기에서 문득 우리나라 4대강 사업이 떠오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사업이 공교롭게도 물에 관한 것이어서 일 뿐 아니라, 물을 가두는 보를 만들어 물을 다스리고자 함이 과연 옳은 것인가 하는 생각에서입니다. 뒤에서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곤의 '역행치수'와 같은 일들은 과학 문명이 발달한 현대에는 수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이나 싸샤댐이 바로 그런 경우일 것입니다. 그간 인간은 자연을 경영하며 오늘의 문명을 일궈 내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한 것이 바로 과학이었지요. 과학기술을 통해 자연을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믿음이 과연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일련의 사태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냐는 심각한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황허는 발원지가 황토 고원지대여서 "물 한 말에 진흙 6되"라고 할 정도로 흘러내린 물 가운데는 진흙의 양이 많아 황허라 부르는 것입니다. 매년 13억 8천만 톤의 진흙이 하류로 운반되고 있어서, 이는 토사 함유량으로 볼 때, 세계 제1이며 진흙이 많아 해안선이 3년 동안 수 km나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백년하청(百年河清), 즉



천이페이, 황허송(黄河颂) | 천이페이라는 현대 중국화가 그린 <황허송>(黄河颂)이란 작품이다. 황량한 황토고원을 흐르는 황허는 중국의 상징이다. 이곳을 지키는 병사의 표정에서도 자부심이 묻어 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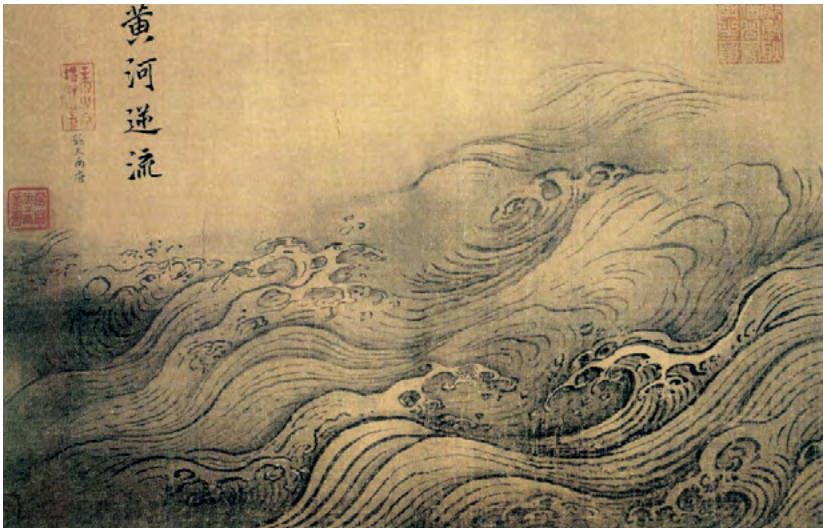
“황허가 맑아지길 기다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사자성어가 만들어졌겠습니까. 본래 황허 유역은 코끼리와 코뿔소가 뛰놀던 온대 밀림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구가 늘고 문명이 발달함에 따라 밀림을 베어내는 토목 공사와 농경지 개척이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황허 문제는 급속히 악화하였습니다. 이미 이때부터 환경파괴가 시작되었던 것이지요. 그 결과 황허는 심각한 천정천(天井川), 즉 강에 토사가 쌓여 강물이 농경지보다 높은 상황이 되어 버린 것이지요. 그래서 홍수라도 나서 독이 무너지기라도 하면 온 세상에 물난리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특성을 이용해서 중일전쟁 때 일본군의 추격을 저지하기 위해 국민당을 이끌던 장개석은 하남성(河南省)의 제방을 파괴하여 추격하던 일본군이 사단 단위로 물에 갇히게 되어 일본군의 진격을 막아 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 이재민 1,250만 명, 사망자 최소 10만 명에서 최대 100만에 달하는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황허는 중국 황허 문명의 젖줄이었고 중국의 상징이기 때문에 중국의 공영방송인 CCTV에서 국가를 방영할 때마다 우리나라에서 동해의 일출이 등장하는 것과 같이 첫

머리에는 황허가 힘차게 흐르는 장면이 거의 반드시 들어갑니다. 국가와 민족의 상징이지만 그 폐해가 상당했기에 황허를 다스리는 일은 역대 왕조마다 최대의 숙원사업이었지요. 만약 치수에 실패하면 중국 전체 식량 생산의 약 40%를 담당하는 황허 유역의 농사를 망치게 되어 결국 민란이 발생하여 결국 황제가 바뀌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해마다 중국 정부는 겨울철에 황허의 상류에 두껍게 얼은 얼음을 공군을 동원하여 폭격한다고 합니다. 이는 봄이 되면 황하 상류에서 얼음이 녹아내리며 홍수로 변하는 일을 미리 막기 위해서이지요. 우임금의 고사를 들지 않더라도 중국 정부 역시 오래전부터 황허 치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입니다.

중국을 형성하고 있는 또 다른 한 축은 바로 창장(長江)이라 부르는 양자강(揚子江)입니다. 창장은 황허와 달리 강폭이 좁고 협곡 사이를 흐르다가 완만한 평야 지대에 이르기엔 범람이 잦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략 200년에서 250년 주기로 큰 범람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이는 중국의 왕조가 망하고 새로운 왕조가 흥하는 주기와 대체로 일치한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중국 전체 식량 생산의 60%를 넘게 차지하는 장강 유역의 농사가 망하면 세상에 먹을 것이 없어서 당연히 혼란스러워지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한번 홍수가 나면 이에 대한 준비가 없으므로 큰 피해가 막심하다는 것입니다. 식량이 떨어져 배가 고픈 정도가 아니라 천하에 먹을 것이 없어 생존 그 자체가 문제 되는 것이지요. 아끼던 가축을 잡아먹고 다음 농사를 위한 곡식들



황허재포효(黄河再咆哮) | 어머니 강 황허는 종종 범람하여 재난을 일으킨다. 중국인들은 황허와 더불어 재난을 맞이하고 또 극복하며 문명을 일궈내었다.



황허역류(黄河逆流) | 남송 때 유명한 화가 마윈(馬遠)이 그린 그림으로, 역류하는 황허의 물길을 섬세하고 역동적인 필선으로 표현하였다.

마저 먹어야 하니 당연히 도적이 들끓게 되고 심지어 서로 아이를 교환하여 잡아먹는 비참한 상황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는 창장의 치수를 위하여 대대적인 토목 공사를 벌이기로 합니다. 그것이 바로 댐입니다. 본래 창장 치수를 위한 댐 건설은 중국의 국부(國父)로 숭상받고 있는 쑨원(孫文) 선생이 1919년에 처음 언급하였다고 합니다. 이어 국민당을 이끌던 장제스(蔣介石) 역시 댐 건설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가 있으며, 미국의 기술자들이 댐 건설 계획안을 중국 국민정부에 제의하여 미국의 지원 아래 추진되었으나 국민당과 공산당 간의 내전으로 인하여 중단되었다고 합니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후에도 이 댐 건설 계획은 살아 있었지만 재원과 기술력 문제로 지연되다가 1992년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당시 총리 이던 리펑(李鵬)이 제안하여 논란 끝에 1994년 12월 14일 착공하였습니다. 이후 2009년에 완공된

싼샤댐은 1820만 kw의 발전량은 전 세계 수력 발전소 중 발전량 제1위의 댐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싼샤댐의 건설로 창장의 치수 걱정이 없어졌다고 자부하였지만, 올해 중국은 그야말로 사상 최악의 물난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곡창지대인 중부지역이 대부분 물에 잠겼을 뿐 아니라 수천만 명에 달하는 이재민이 발생하였습니다. 북부 황허 유역에서도 연이어 홍수가 발생하여 그야말로 중국 전체가 물난리를 맞았습니다. 야심 차게 창장치수를 위해 건설해 중국 사람들의 자부심으로 자리 잡았던 댐이 위력을 발휘해야 할 시점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마어마한 홍수에 댐마저 한계 수위의 위험에 내몰려 물을 방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댐 하류에 엄청난 수해 피해가 발생하였지요. 이때 등장한 것이 바로 댐의 붕괴위험설입니다. 구글 지도에 댐이 이미 휘어진 모양으로 찍혔다느니, 본래 부실 공사여서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하고 있다느니 하는 등의 유언비어가 난무했습니다.

문제는 비록 댐이 완공되었으나 여전히 홍수 등 수해는 계속되고 있고, 일기는 더욱 사나워져 혹독한 시련으로 사람들을 내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국의 홍수 피해는 현재도 진행 중이어서 그 규모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피해를 유발한 것은 분명합니다. 이는 향후 중국은 물론 세계 질서, 즉 식량 등에 문제에 심각한 영향을 유발하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와 곤의 치수 방식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황허를 여하히 다스릴 것인가 하는 국지적인 문제가 아니라 인간과 자연 간의 관계에 대해 더욱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모두 아시아다시피 따지고 보면 오늘날 인류의 생존마저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환경파괴의 주범은 바로 인간이지요. 이제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는 지금 지구 전체가 안고 있는 온난화 문제, 자원고갈, 생태계 파괴로 인한 종의 다양성 감소 등으로 인한 성장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인류가 지녀야 할 지속가능한 가치를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실제적 접근이 필요한 때입니다.

학자들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앞으로 환경문제에 어찌 대처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다음가 같이 조언



장강삼협 | 세 물줄기가 모이는 곳으로 아름다운 풍경으로 유명한 곳이다. 지금은 댐(三峽)댐이 건설되어 많은 곳이 수몰되었다. 올해 홍수 때 댐의 붕괴설과 효용에 관한 논쟁이 끊이지 않았다.

하고 있습니다. 먼저 각종 물질의 생산을 위해 자연을 이용할 때에는 자연에 대한 높은 가치와 생태적 합리성을 고려하고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생각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인간을 위해 무차별적이고 무분별하게 자연을 일방적으로 이용,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둘째는 오늘을 사는 우리만을 중심으로 한 이기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다음 세대에 대하여 더 많은 관심을 배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흔히 자연은 우리에게 독점된 것이 아니라 후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자산이라는 뜻이지요. 셋째 물질적 풍요를 극대화하기 위한 과학기술, 핵기술 같은 기술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과학기술은 인류발전을 위하여 위험을 배제하기 위한 행동을 필요로 하는



송수남, 장강 | 수목화가로 유명한 남천 송수남 화백의 <장강>. 짙은 수묵으로 웅장한 굽이치며 유유히 흐르는 장강의 자태를 표현해 내었다.

보다 소프트 한 기술을 중요시하는 사회책임과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여야 할 것이라 말합니다. 이런 말들은 모두 그간 우리가 행해왔던 것들에 대해 전면적인 방향 수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자연은 인간들에 의해 다치고 망가짐으로써 더 이상 스스로 정화하고 치유할 수 없는 임계점에 다다른 것인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새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전적으로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잠시 빌려 쓰는 것이며, 이는 고스란히 후손

들에게 잘 물려 주어야 할 유산이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과학과 기술의 발달에 대한 맹신은 우리에게 더욱 혹독한 시련을 가져올 뿐입니다. 바이러스라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극히 미미한 존재에 의해 현대문명이 쌓아 올린 오만한 성취와 업적이 꿈쩍 못 하고 당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해 성찰해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오관중 | 장강이 바다와 만나는 곳에는 유럽의 베니스를 연상시키는 운하와 수변 가옥들이 즐비하다. 현대 중국화가 오관중의 작품이다.

아버지 용서 하소서



안혜옥

아버지 저 둘째입니다. 기억 나세요, 제가 청춘이었을 때 어느 가을 추석날 차례를 지내시고 고향을 그리시며 가고파를 부르셨던 그날, 아버지를 어려워만 하던 저희 삼남매의 가슴을 울리고 이층집을 뚫고 명절날 웅장하게 울려퍼지던 아버지의 가고파는 어느 성악가보다 울림 있게 잘 부르셨습니다. 세월은 유수 같이 흘렀고 12년전 쓰러지셔 정신을 잃으신 아버지, 깨어 나셨지만 작은 뇌가 덜 회복되어 그날로 아버지의 목소리도 잃고 목을 뚫어 가래를 빼고 링겔맛듯 식사를 하시며 오늘까지 그렇게 그리시는 집으로 돌아오시지 못하시고 병상에 누워서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제 청춘의 그날 아버지의 목청껏 그 뒤에도 소나무 등 몇 곡을 더 부르셨듯, 청춘 글귀에서 늘 인용하여 말씀 하셨죠. “이성은 투명하되 얼음과 같으며, 지혜는 날카로우나 갑속에 든 칼이다.” 또 “사람은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한다.”고 한잔 술에 섞어 늘 말씀하시며 사업으로 바쁘다, 자식을 맡겨 놓고 소홀함도 꾸짖으셨죠. 아버지 죄송합니다. 그렇게 안주 삼아 늘 말씀 하셨는데 성공을 쫓아 쓰아올린 공 더 높이 더 높이 과녁을 벗어나고 자신하나 관리하지 못하고 책임지지 못한 죄 커 62세란 나이테를 두르고 옥중 형벌의 시간에 있어 아버지 찾아뵙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2019년 2월에 구속되어 수용생활을 하면서 부대끼는 수많은 제 속의 저와 갈등하면서 매순간 자유를 갈망하며 주어지는 형벌의 시간을 고통으로 안고 힘겨워 합니다. 사업을 한다고 자식까지 맡겨놓고 외국으로 나다니고, 아버지 쓰러져 누워 계실 때도, 바쁨으로 따뜻하게 손잡아 드리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와 마음 편안하게 오랜 이야기 한번 들려 드리지 못하고 이 나이테를 두르고 찾아든 곳이 이곳입니다. 수용생활을 하면서야 아버지의 긴긴 세월 물 한 모금 마시지도 못하시고, 청춘처럼 늘 찌렁찌렁 힘 있게 울려 말씀 하시던 모든 것도 멈추시고 깔끔하신 성품에 그 몸을 간병인에게 맡기시고 얼마나 힘드시까, 부자유의 시간에서야 아버지의 고초를 느껴 안고 눈물집니다. 정신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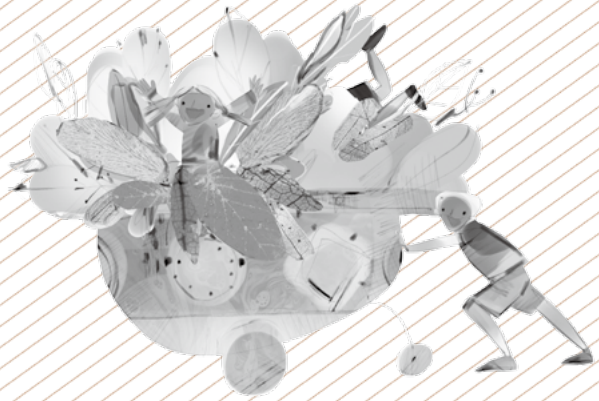
아버지 용서 하소서

그대로 잡고 온전하신데 까막까막 이 자식들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 말씀도 못하시고 얼마나 염려의 시간으로 저희를 안고 기다리실까. 거기에 생각이 미치면 소리 내 울 수도 없고, 이곳에서 가슴으로 눈물 골을 채웁니다. 부모님께서 낳고 기르시고 농부가 씨앗을 뿌리고 새싹이 나오고 자라면 넘어 지지 않게 지지대를 해주듯 평생 이 못난 자식들을 위하여 받침대가 되어 주시고 지지대가 되어 모든 것을 내어 주셨던 두 분 부모님께 이제는 저희가 울타리가 되고 지지대가 되어 부모님을 돌보드리고 자식을 살피야 됴에도 지혜를 잘 사용하여 갑속에 든 칼처럼 무용지물을 만들이 말라는 아버지 말씀을 소홀시 하고 사업도 인생도 달려만 가면 되는 줄 자신의 두뇌만 믿고 지구가 자신이 중심점이 되어 원을 그리는 양 완벽하지 못함을 인정하지 못했던 저의 무지, 그 무지로 인한 무책임 했던 죄, 또 아버지께서 유종의 미를 거두라고 하루에도 수도 없이 들려 주셨던 그 소리.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하고 둘째가 오늘 구속 수용자가 되어 수번으로 불려지는 이 자리에 서 있는 현실이 제 위치 지점이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하세요.

아버지 손주 푹푹이 보고 아들, 할아버지는 얼마나 힘드실까. 그랬더니 “수치상으로 말할 수가 없겠지만 얼마가 지금 느끼고 있는 맘에 100배쯤” 오늘 그 녀석의 서신이 들어 왔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사진 뒤편에 쓰신 글을 오랜만에 읽었다고 “푹푹아 고맙다. 앞으로 더 아끼지 말고 선도에 의지를 지니고 주먹을 쥐고 앞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할아버지의 마음을 접하면서 나도 생각이 깊어진다”면서 “엄마 너무 할아버지, 할머니 걱정 때문에 죄책감 갖지 말고 새로 태어나야지”라고요. 손주 녀석 잘 키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선, 악이 오게 살라고 하셨죠. 선도 악도 스승이 될 수 있다고 이 형벌의 시간을 통하여 아버지와의 시간이 귀함을 배웁니다. 제가 원점이고 지구는 저를 중심으로 돌지 않는다는 걸, 인생의 과녁이 물질적 성공만이 아니라는 것, 이제 지금 이 시간들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아들 녀석 말처럼 새로 태어나 남은 수용생활도 잘 지내고 형기를 마치고 아버지께 돌아가 용서를 빌고, 두 손 꼭 잡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인생 시간, 그 귀한 시간에 부자유의 몸이 되어 손잡아 드리지 못하고 근심만 안겨드린 둘째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합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이제 자유의 시간을 찾으면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청춘의 글귀처럼, 그리고 시작이 있으면 끝을 마치는 책임 있는 인생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는 새로운 과녁을 인생의 시간에 녹여 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조금만 더 힘내 주시고 찾아가 뵈을 그날까지, 용서를 구할 기회를 주시고 염려 마시고 더 건강 악화되지 않게 아버지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힘내 주세요. 아버지.

작품평 : 둘째딸이 곁에 있으면 아버지는 얼마나 행복해 하십니까요? 가곡 〈가고파〉를 목청껏 불러주신 아버지가 지금은 몸이 많이 편찮나 봅니다. 그래도 짓값을 치려야 마음이 편해질 겁니다. 식구들이 한 식탁에서 밥 한 끼 같이 먹는 것이 크나큰 행복임을 이제야 알게 되셨지요? 아버지는 둘째딸이 옥에서 나와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하면 다 용서해주실 것입니다.

아내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고○○

23년 동안 저의 후원자이자 버팀목 역할을 해준 부족한 남편인 저를 믿고 함께 해준 아내에게 고맙고 미안한 마음을 전하고 용서를 빌고자 이 글을 씁니다.

저는 한순간의 화를 참지 못해 “살인미수”라는 죄명으로 1심에서 구형 10년에 8년 형을 2심에서 4년 징역형을 확정받은 고○○이라고 합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만11개월이 되어서야 모든 재판이 끝나고 지금 이곳 ○○구치소에서 얼마 전 기결 복을 입고 분류심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나쁜 생각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 힘을 낼 수 있었던 건 아내와 아들이 있었기에 견뎌내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사회초년생이었던 23년 전 당시 사내 커플이었던 저와 아내는 2년에 연애 기간을 거쳐 양가의 축복 속에 부부가 되었습니다. 당시 아내는 한 팀에 반장을 맡고 있었고 저는 신입사원이었지만 열심히 생활하여 전세에서 작지만 내 집 마련까지 했습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3년쯤 했을 무렵 나라에 국가 금융위기가 찾아와 사회적으로 불안한 시기였습니다. 기업들은 문을 닫는 곳이 늘어났고 우리 회사도 “빅딜”한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 마음속에 있던 애사심은 사라지고 불안함만 남아 있었고 저에겐 큰 목표가 있었기에 5년이라는 직장 생활을 뒤로하고 부모님이 사시는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인들은 저의 퇴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권유와 걱정을 해주었습니다.

이런 걱정도 잠시 운이 따라준 건지 시대와 환경이 맞았던 건지 하는 사업마다 잘되어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생겼습니다.

아내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던 중 다단계에 빠져 그동안 벌어들였던 재산을 모두 잃고 자책하며 괴로워하고 있을 때 옆에서 괜찮다며 “다시 시작하면 돼”라고 용기를 준 아내의 말 덕분에 다시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아내에게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 감당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 사회가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교훈을 얻고 지인의 소개로 돈벌이가 좋다는 기술을 배우기 위해 집을 떠나 천안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무지함에 가장이 된 아내는 아들의 학비와 생활비를 책임지기 위해 아픈 몸에도 직장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음은 아프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몇 년 전 아내는 가슴에 용종이 있다는 진단을 받고 지역 대학병원에서 가슴 용종제거 수술을 받고 급격하게 체력이 저하되고 무엇보다도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그 후유증으로 우울증에 시달렸고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처남이 접견 왔을 때 아내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내가 집안일을 하다가 베란다에서 넘어져 얼굴과 눈을 다쳐 병원에 입원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눈에 시신경을 다쳐서 한쪽 눈을 실명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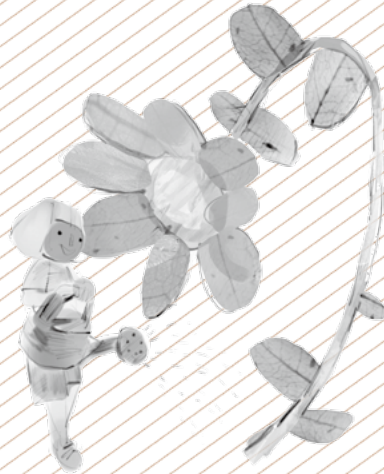
제가 이곳 구치소가 아닌 집에 있었다면 아내가 다치는 일은 없었을 텐데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집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저의 탓으로 벌어진 일들이라 생각하니 아내와 아들에게 미안함과 저의 잘못된 행동이 후회됩니다.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딱 여기 까지가 저의 인생에 절반인데 1막은 실패한 “삶”이었다면 그동안의 경험과 노력으로 아내와 아들을 위한 행복한 2막을 살 것입니다. 하늘이 무너진다고 해도 꼭 그렇게 할 것입니다.

아내의 눈이 치료가 잘되어 실명하지 않기를 소망하며…….

- 사랑하는 남편이 -

작품명 : 불행은 차례차례 오지 않고 한꺼번에 닥치기도 합니다. 가장 큰 불행은 남편의 투옥과 아내의 부상이로군요. 마지막 문장, “아내의 눈이 치료가 잘 되어 실명하지 않기를 소망하며……”가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식구가 함께 있는 것임을, 안 아픈 것임을 우리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아내와 아들을 위해 행복한 2막을 살 거라고 다짐했으니 그 소망 꼭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김영규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4년4월의 실형을 받고 ○○교도소에 수용중인 김영규라고 합니다. 지금 나이 31세 지금까지의 제 인생 계획중 힘들고 너무나 어두운 이곳에 오는 계획은 없었습니다. 저의 순간의 잘못된 판단과 선택으로 인해 저보다 더 마음의 고통과 힘들어 하고 있는 하나뿐인 가족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어 글을 적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유도라는 운동을 하면서 한때 꿈인 국가대표를 향해 씩씩이 달려왔습니다. 약 10년이라는 시간동안 유도선수로서 최선을 다하고 전국대회에서 메달을 따고 항상 저로 인해 가족들은 조금 더 뭉칠수 있었고 조금 더 화목한 가족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학창시절 저는 그저 학교에서는 감독님과 코치님의 말씀을, 집에서는 부모님의 말씀에 항상 존중하고 말 잘 듣고 착한 장남이었습니다.

저는 대학교에 입학 후 성적부진과 잦은 부상으로 운동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이제 와서 돌이켜 생각해보니 막무가내로 운동을 그만둔 것이 어머니, 아버지께 처음으로 실망시켰던 일인 것 같습니다. 운동을 그만두고 1년이라는 시간을 방황하며 군대를 갔다 왔습니다. 전역 후 처음으로 생활전선에 뛰어들어야 된다는 부담감과 두려움으로 처음 알게 된 아르바이트 등을 하며 사회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떳떳하고 남부끄럽지 않은 직장에 다니면서 부모님과 가족들에게 그동안 잃었던 제 신뢰들과 운동을 그만두면서 저로 인해 상처받은 어머니, 아버지께 이번 기회를 통해 다시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겠노라 다짐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중 제 욕심이 너무 과하여 큰 화를 불러오게 되었습니다. 처음하고 막상 보험금을 받고

용서를 구합니다.

나니 이것이 죄라는 생각을 아예 잊어버리고 달콤한 악마의 유혹에 빠져버려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처음 한 번하고 한 달 지나고 다시 했던 일을 나중에는 하루가 멀다하게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직업으로 보험사기를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점점 제 욕심은 끝도 없이 커져 저의 막내동생, 사랑하는 여자 친구까지 반강제로 데리고 와 보험 사기에 합류 시키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부모님께서서는 제가 자취를 하면서 번듯한 직장에 다니고 있는 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던 2018년 7월 2일 아침에 집 앞에서 구속을 당해 버렸습니다. 여자 친구와 같이 체포를 당하고 경찰서로 여자 친구 아버지와 저의 어머니께서 오셨습니다. 저는 집에서 부모님 앞에서의 모습과 밖에서의 제 모습은 180도 달랐습니다. 그러기에 부모님께서서는 뭔가 잘못된 일인 것 같다. 우리 아들은 이런 짓을 절대할 사람이 아니라며 울부짖는 모습을 보고 유치장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로 인해 막내동생과 사랑하는 여자 친구 그리고 밖에서 열심히 지내고 일만하는 가족을 잘못된 판단과 선택 한 번으로 아주 축대밭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저로 인해 두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고 저는 가족들에게 '가족'이라는 명분 안에서 씻을 수 없는 마음에 상처를 주고 힘이 들게 하였습니다.

그 후 저는 구속이 되어 여러 교도소 및 구치소를 이감 다니면서 재판을 받고 이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부분에 최선을 다해 반성과 후회도 하고 반성문도 쓰고 했습니다. 구속이 되고 나서야 아버지께서 밤낮으로 일을 하시면서 생활을 하시고 낮에는 마트에서 식자재 배달하시고 퇴근하시면 대리운전을 하시며 집을 이끄시고 가족들을 위해 살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못난 장남으로 인해 몸도 안 좋으신데 밤낮으로 일하시면서 가족들 먹여 살리시고, 저 때문에 몸에도 병이 마음에도 병이 생겨 지금은 많이 편찮으신 상태입니다. 당뇨라는 병으로 평생을 고생하셨는데 제가 아버지의 병을 더 크게 만들고 결국 합병증이 너무 심하셔서 지금은 많이 편찮으신 상태입니다.

재판을 받으면서 수도 없이 아버지께 사죄의 글을 제 마음을 다해서 편지를 써 보내려고만 하고 끝내 보내지는 못 하였습니다. 아버지께 너무 면목도 없고 아버지를 이제는 뵈 자신도 없고 제 자신이 너무 수치스럽고 죄송하다는 변명 아닌 변명으로 아직 한 번도 아버지께 편지를 써보지

못하였습니다.

이 글을 쓰기 며칠 전 어머니 편지로 아버지께서 건강이 많이 안 좋아 지셨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 새길에도 쓰면서 아버지께 처음으로 편지를 보낼 계획입니다. 더는 죄송하고 제가 뵈기 힘들다는 핑계가 아닌 진심으로 지금까지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모두 떨쳐내고 다시 태어난 아들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 드리고 싶습니다.

그 동안 항상 떳떳하지 못한 모습으로 실망만 시켜 너무 죄송하고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아직 2년이라는 시간이 남았지만 남은 기간 동안 많은 피해자들과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속죄하고 두 번 다시는 이런 행동, 잘못된 판단과 선택을 하지 않도록 매사에 신중하게 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하고 더 이상 실망시켜드리지 않을게요.

정말 죄송하고 많이 사랑합니다.

작품평 : 유도선수의 꿈을 접은 뒤에 보험사기꾼으로 전락한 인생유전이 안타깝습니다. 남에게 고통을 주고 내가 취한 이득이 행복을 가져다줄 리 없습니다. 연로한 아버지가 낮에는 식자재 배달에 밤에는 대리운전을 하게 되었다고요. 이런 무리가 당뇨병을 더 악화시켰으니……. 2년 뒤에 출소하면 아버지를 잘 돌봐드려야겠습니다. 간혹 아버지한테 편지라도 쓰시기를.

아이들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강성준

요즘 뉴스를 보면 부모가 무엇도 모르는 어린아이들을 학대와 방치로 종종 구속되는 기사를 보곤 합니다. 보이지 않는 어디에선가 또 다른 아이들이 상처를 입고 살 거란 생각과 두 아들을 키우는 나 자신은 과연 부모로서 부끄럼 없이 부족함은 없는 것인지 순간 미안한 마음과 죄책감에 눈물을 흘려봅니다.

저는 마흔한 살로 중2 15살과 3살의 두 아들을 키우고 있는 한가정의 가장이자 아빠 강성준입니다. 부족한 아버지기에 함께 하지 못하는 미안함을 남기고자 두 아들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26살의 나이 저는 혼전 임신으로 결혼을 하면서 제 인생도 당연히 행복해 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면서 처음이 신중하고 결정하는 데 있어 내 삶을 송두리째 버려야 한다는 걸 26살 나이 철부지 초보 아빠는 몰랐나 봅니다. 처음이란 단어가 어찌면 조심해야 하는 경고성 단어임에도 젊은 패기와 의욕이 너무 충만한 나머지 젊은 나이 큰돈을 손에 쥐게 되며 가족을 뒤로한 채 변창하는 사업이 전부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갓 입학한 초년생 사업가에게 교훈을 주고 욕심과 이기적이었던 저 자신을 혼내듯 사업실패와 더불어 가족을 지키지 못하고 5년의 결혼 생활은 아내와 이혼이란 종지부를 찍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앞만 보고 살아온 저 자신을 정신 차리고 주위를 둘러보니 결국 남은 것은 부족한 아버지임에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6살 아들이 전부였습니다. 혼자서 키우는 것보다도 아들이 엄마의 그리움을 남겨 미안해 너무 힘든 나머지 술로 지새우는 날이 많았고 저는 부끄럽지만 삶을 포기 하려고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 마음을 6살 아들도 알았는지 옆에서 잘 때조차 어디 못 가게 그 작은 손으로 잡고 있는 모습 속에 아들을 안 곤 올렸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하게 남습니다.

어릴 적 저는 할아버지 손에 자라 부모의 사랑을 못 받고 늘 정에 굶주린 상태로 지금도 제 아들을 사랑하면서도 표현하는 방법을 잘 모릅니다. 마음과 행동하는 표현이 다를 듯 분명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 축복 속에 낳고 태어났지만 내가 모르는 사이 상처를 주었고 아들한테는 제가 할 수 없는 엄마의 자리가 있어야 한다는 걸 또 한 번 깨닫고 나서야 지금의 아내를 만나 재혼을 하였습니다.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 주위도 둘러보고 아들이 상처를 받을까? 조금씩 대화의 문턱을 넘어 안정을 찾을 때쯤 아내는 임신하였고 이제는 꼭 지켜나가야 하는 목표의 무게를 짊어지고 가야 한다는 마음 아래 최선을 다해 보고자 다짐하였지만 저는 임신한 아내와 아들을 두고 또 이곳에 오고 말았습니다.

제가 1년 2개월 간혀 있는 동안 아내는 혼자 아기를 출산하면서 저는 아내와 아기에게 마저 죄인으로 남겨졌습니다. 그렇게 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행복하게 해주어야 하는 아빠인데 ‘난 무엇을 하고 있는 건가?, 지금 내가 없는 아이들은 행복할까? 혹 나를 원망하지는 않을까?’ 많은 고민과 생각을 하며 비록 여느 뉴스처럼 확대는 아니지만, 그보다도 못한 상처를 남긴 부족한 아빠이기에 고개만 숙여집니다. 몇 번을 누군가에게 용서의 글을 적고 고치고 죄송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처음에는 새길 응모에 당선되어 실렸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지만 내가 반성하고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더 중요시하면서 지금이란 시간을 가슴에 담고 한 자 한 자 새기는데 더 깊은 의미를 가져 봅니다.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듯 그저 보이는 무관심이 전부는 아닌 것을 아직도 표현과 소통은 왜 이리도 어려운지 이곳에 오니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소중함을 또다시 느껴 배우는 시간을 자신에게 남깁니다.

이곳에 있을 때 태어난 아기지만 너무도 미안합니다. 따뜻한 손길로 안아주지도 못하고 지금 느끼고 있는 죄책감이 아이들에게 못한 아빠라 할지라도 앞으로의 삶을 지켜가며 의무를 다하려 합니다.

아이들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사람은 마음이 바뀌지 않고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환경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스스로 고칠 것입니다. 부끄러운 아빠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사랑을 못 받으려고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노래 제목도 있듯 너희들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고 전체 아이들을 사랑합니다. 비록 저는 부모 사랑을 못 받았지만 두 아들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아빠의 자리에서 꼭 지킨다는 약속을 담아 봅니다.

○○아! ○○아! 너희들은 아빠의 전부이고 소중한 가족이야. 정말 많이 사랑하고 너희들의 미래를 꼭 지켜줄 게 조금만 기다려 곧 갈게…….

작품평 : 중2 아들과 재혼해서 얻은 늦둥이 세 살짜리를 두고 그곳에 계시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게다가 작은애는 아빠가 옥에 있을 때 태어났으니 얼마나 딱한 노릇인지요. 두 아이 다 아빠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곳에서 나오면 두 아이에게 최고의 아빠가 되기를 바랍니다. 잠깐 실수를 했지만 자식을 위해 헌신하는 아빠를 두 아이는 존경할 겁니다.



아내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김태진

사랑하는 아내 홍○이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저는 지금껏 42년이라는 시간을 살아오면서 징역이라는 울타리 밖에서 살아온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게 되더라도 깊은 정을 주지 않으려는 습관들이 몸에 배 있었죠. 상처를 받기도 싫지만 반대로 상처를 주기도 싫었거든요.

아버지를 갑자기 허무하게 떠나보내야 했던 아픈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 아픔은 저에게 슬픔으로 찾아왔고 그 슬픔은 방향으로 이어져 저 자신을 한없이 부숴버리고 흠집을 내어 가면서 살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만난 홍○이는 암울하던 제 삶에 한 줄기 빛이었고 희망이었습니다. 처음에 홍○이와 사랑을 하려 할 때 주변에 시선은 결코 곱지가 않았습니다. 홍○이나 저의 나이 차이는 18살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저 또한 많은 나이 차이 때문에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서 잠시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겠거니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홍○이는 저의 눈높이에 맞추려 노력을 하기 시작을 했고 어린 꼬마아가씨였지만 중년의 저에게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많이 고마웠고 부끄러웠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용기를 심어준 홍○이를 저는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홍○이와의 사랑은 너무나 달콤했고 황홀했으며 지금껏 단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는 행복이라는 것을 느끼고 어느샌가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방황했던 지난 시간들의 대가를 치러야 할 시간은 저를 찾아왔고 이렇게

아내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저는 사랑하는 홍○이를 홀로 남겨둔 채 영어의 몸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체념했고 범죄자의 삶에 사랑은 사치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음에도 없는 말로 접견장에 앉아 마주하며 이별을 하려 했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한없이 눈물을 흘리며 후회를 하고 가슴앓이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던 며칠 후 한 통의 편지가 왔습니다. 홍○이의 편지였던 거죠. 봉투를 열어 안을 들여다본 저는 그만 아무런 반응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놀라고 또 놀랐습니다.

“혼인신고 접수통지서”라는 서류를 받아들이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단 한 줄의 손글씨... “오빠 내가 지금부터 오빠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 줄게요.”

그다음 날 또 한 통의 편지가 왔습니다. 역시 홍○이었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그리고 홀로 남아 집에 외롭게 계시는 저의 어머님과 같이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찍은 사진들이 들어 있는 편지였습니다. 가슴속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눈물은 주체할 수 없는 묘한 감정이었습니다. 그다음 날에 찾아온 홍○이는 저를 해맑은 표정으로 반기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무런 말도 할 수 없던 제게...

“홍○아... 오빠가 말이야...”

“오빠, 잠시만요... 저 사랑하지 않나요?”

“어...?”

“절 사랑하지 않으시냐고요...?”

“사랑~~해...”

“그럼 됐어요, 오빠 젖값 다 치르고 나오실 때까지 홍○이는 씩씩하게 기다릴 테니까 힘내세요. 알겠죠? 대신에 이번 징역이 마지막이어야 해요. 약속할 수 있죠?”

“.....”

“왜요? 자신 없어요?”

“아니 ... 자신 있어, 너무 고맙다. 미안하고.....”

“에이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그런 말 하는 거 아니래요, 약한 모습 보여 주지 말고 빨리 사랑한다 말해주세요”

“아니... 그게 말이야...” <머뭇거리야 했었습니다.>

“오빠! 우리 지금 연인 사이가 아니라 부부 사이인 건 아니죠?”

“응?... 알지... 헌데... 믿겨지지 않아서...”

“나 행복하게 해줄 자신 있죠?”

“행복?”

순간, 그 짧은 순간에 떠오른 말이 있었습니다. ‘두려움은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의 시간이고 집착은 지나가 버려 잡을 수가 없는 과거의 시간이다. 행복은 지금, 오늘의 시간이고 지금의 시간이다.’ 저는 순간 다짐을 했고 자신감에 가득 차서 사랑을 외쳤습니다. 사랑하는 홍○이, 아니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남은 삶을 살고 싶었고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것을 쏟아붓듯이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저는 지금의 아내 홍○이에게 차마 하지 못한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저의 건강 문제입니다. 구속되기 얼마 전 간 기능이 원활하지 않아 ‘간암’ 의심 판정을 받고 조직검사를 위해 정밀 감정을 의뢰하고서 결과 확인을 못 하고 들어와 현재로서는 아무것도 알지를 못하는데 이 사실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이 세상이 제게 허락한 시간이 얼마만큼인지는 모릅니다. 사랑을 위해 남은 삶을 살고 싶은 저는 하루에도 수십 번 용기를 내어 펜을 들어보지만 3개월이 지나도록 이 사실을 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 미안하고 가슴이 아픕니다. 만약 이글이 당선된다면 그것을 용기 삼아 고백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껏 숨겨온 저의 잘못을 용서받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홍○이만 저의 곁을 지켜준다면 건강을 되찾기 위해 무엇이든 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사랑을 지키려면 건강을 지켜야 하는 것이고 숨긴다고 해결된 문제가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나의 아내 ○홍○...

너무 미안해 ... 오빠가 널 너무 사랑 하는게 변명이 될 수는 없겠지만 그 핑계로 지금껏 말을 하지 못했어! 이런 나를 ... 사랑해 줄 수 있겠니?

작품평 : 짧은 소설 한 편을 읽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랑은 남을 배려하는 것이고 남을 아끼는 것인데 벽이 가로막고 있네요. 이 글 속에 담긴 아내 ○홍○ 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충분히 감지합니다. 이번에 나가면 생의 끝까지 해로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이 아내인 것은 태진 님의 복입니다.

용서



박경민

안녕하세요! 저는 사기죄로 구속되어 재판을 앞두고 있는 올해 24세 청년입니다. 이전에도 저는 사기죄로 구속이 되어 2번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한번은 집행유예 또 한번은 실형... 무거운 처벌을 받고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게 된 저의 문제는 바로 “도박 중독”입니다.

중학생 때 처음 호기심에 도박을 접한 뒤 저는 24살인 지금까지 9년 넘게 도박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 따라 오천원, 만원 용돈 받은 돈으로 게임을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십만원, 백만원 저의 도박금은 커져만 갔습니다. 친구들에게 돈을 빌리기 시작했고 돈을 더 빌리지 못하자 남을 속여 가면서까지 도박자금을 마련해 도박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박을 하는 것만으로도 중한 죄인데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 도박을 했으니 저의 행동은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저의 이기적인 행동으로 피해를 입은 무고한 피해자 분들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용서를 구하고 싶습니다. 도박을 끊기 위해 도박치료센터와 정신과 상담을 받기도 했는데 끊고자 하는 제 의지가 약한 탓에 효과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아마 이 글을 보시는 수용자분들 중에서는 저처럼 도박에 빠져 가정을 잃고, 직장을 잃고, 소중한 것들을 잃으신 분들이 적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도박은 정말 무섭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은 물론이고 가족, 지인들에게도 고통을 주고 힘들게 합니다.

제가 이 글을 쓰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이번이 정말 마지막 구속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출소 후에 성실하게 살며 어느 누가 보더라도 “아! 저 아이가 정말 정신을 차리고 똑바로 살려 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하고 싶어서입니다. 그리고 아직 제가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한 피해자 분들께 직접 피땀흘려 돈을 모아 꼭 피해회복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피해자 분들은 저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금전적인 피해는 물론 정신적 피해까지 입으셨기 때문에 이제와서 돈을 변제하고 사죄를 드리는 것이 염치없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루하루 반성하고 참회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저의 진심을 조금이나마 알아주셔서 화가 풀리셨으면 하는 마음에 다시한번 사죄를 드리고 용서를 구합니다.

제가 이렇게 끊임없이 사고를 치고 있음에도 언제나 곁에서 묵묵히 지켜봐주시고 바뀔 것이라 믿고 기다려주시는 부모님께 정말 감사하고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없는 살림에서도 그저 자식이기 때문에 남들이 하는 것은 꼭 경험하게 해주고 모자람없이 저를 키워주셨는데 이렇게 엇나가 버린 저를 보며 실망을 하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이미 었질러진 물이기에 지금 수용되어 보내는 시간을 헛되이 보내기 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천천히 그리고 꼼꼼히 계획을 세워가며 출소 후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의 사소한 행동이 남에게 피해와 고통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며 매사 조심하며 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쉬운 일은 없고 쉽게 번돈은 쉽게 나간다는 것을 깨달았기에 남은 삶 열심히 노력하며 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에게 피해를 주면 언젠가 배가 되어 되돌아온다’ 이 문장을 평생 머릿속에 새겨놓고 살아가겠습니다.

이 글을 빌려 상처받은 마음 조금이나마 회복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작품평 : 중학생 때 도박에 빠져 스물네 살이 된 지금, 전과가 늘고 있으니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네요. 마약도 도박도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위험한 것입니다. 형을 사는 동안에는 다 맹세한다고 해요. 내 나가서는 다시 하지 않으리라. 그런데 나가서 얼마 안 되어 그 세계에 또다시 빠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박경민 씨는 절대로 그런 사람들의 전철을 밟지 마십시오. 자기 인생을 누가 책임집니까? 자신과의 싸움에서 꼭 승리하기 바랍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박철수

용서를 구하면서 '만남, 아름다운 인연의 꽃과 씨앗'이란 구절이 저절로 제 마음에 쓰여 집니다. 33년의 인생을 살면서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길을 열어 준 저희 가족, 누나들과 여동생에게 용서를 구하며, 삶에대한 애착을 갖고 살게끔 해준 큰누이에게 이기적으로 살아온 제가 다시금 용서를 구해 봅니다.

어릴적 6학년때 아버지께서 간경화로, 18살 때 어머니의 자살로 인해 저는 삶을 포기하면서 저 또한 자살기도를 몇 차례 하였습니다. 그때부터 누이들과 연락조차 하지 않고 술로써 모든 것을 잊으려 하였고, 술기운으로 하루하루를 버티면서 살았습니다. 하루살이처럼 살다가 친구들을 사귀게 되었고 버림받은 아이처럼 외로움에 목이말라 친구들의 '정', '의리'가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어머니의 죽음이 저로 인해 이루어진 것이란 생각이 들어 매일 술을 마시며 잊으려 했고 회피를 했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려 하는 것이란 술먹고 싸우고 놀고 그러다 사고치고 이런 것이 '의리'라 믿었고 외로움을 채워주는 것이라 생각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소년원부터 시작하여 수감, 출소를 반복하며 9년을 '징역'이란 곳에서 보내왔습니다. 징역에서의 외로움을 멍청하게 의리라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 저의 친구들이 저의 옆에 있어줄 거라 생각했습니다.

징역을 살면서 하나, 둘 모두 떠나 버리고 저 혼자 9년째 징역 생활에 익숙해 졌고 이제는 무섭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20대 중반쯤 누나들과 연락이 되었고, 이후로 누나는 제게 "미안하다. 미안하다. 누나로서 챙기지 못해 그 외로움을 달래주지 못해"라며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누나들도 먹고살기 바빠서 신경쓰지 못했다며 연신 저에게 미안하다며 챙기지 못해 동생이 징역을 살고 있다는 죄책감으로 제게 용서해 달라며 바닥이 눈물에 젖도록 울고 통곡을 하였습니다. 면회실에서 그 모습을 보면서 33년의 절망감속에서 살아온 저는 ‘해방’ 되었고, 저도 함께 눈물을 흘리며 이기적으로 혼자만 생각해 왔던 인생의 필름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며 “가족이 있기에 나도 살아갈 용기와 행복을 찾았구나”하는 깨달음을 얻고 제 삶의 방식과 생각을 다시 ‘리셋’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가족은 제게 항상 힘이 되어 주고 응원해 주며, 잘못된 인생을 바로잡아 주고 ‘돈’이 행복이 아니라 가족이란 울타리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임을 깨우쳐 줍니다.

“나의 가족이 없었고 누나의 헌신적인 관심이 없었더라면 나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구나...” 평생 징역에서 외톨이처럼 우물안 개구리처럼 살았을 것이란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새로운 인생을 찾고자 책을 읽고 꿈을 생각하고 행복하게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생각하며 작은 행복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계기로 이기적으로 살아온 저에게 헌신적인 관심을 보내준, 가족들에게 다시금 용서를 구해 봅니다. 태양이 어둠을 뚫고 빛날 때 더욱 더 환하게 빛나듯 그 어떤 걸림돌도 뛰어넘을 수 있는 자신감을 갖게 해준 가족의 사랑과 관심이 저를 360도 돌려놓았고 이제는 앞으로 사회에 나가 그 사랑에 보답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주위를 둘러보시고 가족의 사랑, 관심을 찾고 슬로써 외로움과 싸우지 마시고 가족들과 함께 대화해 보시길 권해 봅니다.

작품명 : 태생이 무척 불행했습니다. 6학년 때 아버지가 간경화로 돌아가셨고 열여덟 살 때 어머니가 자살로 생을 마감했으니깐요. 소년원을 시작으로 음주와 범죄의 나날을 살았으니 자포자기의 삶이었다고 봐집니다. 하지만 누나들과 연락이 되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누나들과 여동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못난 동생, 못난 오빠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출소 이후 형제간의 우애를 듬뿍 나누기 바랍니다.

저로 인해 상처받은 모든 분들께 용서를 구합니다.



김 슨

저는 사기(보이스피싱)혐의로 1년 10월의 형을 받고 이 곳 OO교도소에서 반성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날 저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어쩌면 전 재산일지도 모르는 돈을 잃어 버리신 피해자 분들과 제가 구속되기 한달 전 2018년 10월 백혈병으로 하늘나라에 가신 어머니께 용서를 구하고자 펜을 듭니다.

제가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했던 4,600만원은 피해자분들께는 몇 년동안 힘들게 모은 적금을 갠 돈일 수도 있고 대학등록금이었거나 가족 중 누군가의 병원비였을 수도 있었다는 생각에 지금도 너무나 죄송하고 또 죄송한 마음 뿐입니다.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제 걱정만 하시다 가셨다는 어머니께도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하고 또 다시 죄를 지어 이곳에 들어와 못한 딸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린 시절 부족한 것 없는 가정에서 부모님의 관심과 사랑을 받으며 자랐지만 초등학교 2학년 때 전학 간 학교에서 시작된 이유 없는 집단 따돌림은 중학교 1학년까지 계속되었고 그로 인해 수차례의 정신과 진료를 받아야 될 만큼 지옥 같은 시간들 보냈습니다. 그 무렵 아버지께서 해외 발령을 받으셨고 태어난 지 5개월도 채 안된 어린 남동생까지 가족 모두가 헝가리로 떠나게 되어 저는 국제학교에 다녔고 그 곳에서 학교를 졸업한 뒤 대학 진로 관련 문제로 어머니와 갈등이 심해져 열아홉에 혼자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무작정 한국에 돌아오니 제가 머물 곳은 없었고 쓸데없는 자존심에 부모님의 도움을 뿌리치고

이곳저곳 떠돌며 지내다가 스무살이 되던 해에 한 남자와의 잘못된 인연으로 인해 범죄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고 그 사람과 헤어지고 나서도 그 길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늘 제가 저지른 일의 뒷수습은 어머니의 몫이었고 그 당시엔 구속이 되었을 때 실형선고를 받아본 적 없었기에 철없던 그 시절의 저는 법의 무서움도 몰랐나봅니다. 처음 어머니께서 문자 메시지로 진단서 사진을 보여주며 투병사실을 알리셨을 때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벌금미납으로 수배가 된 저는 김문에 걸려 파출소에 가야했고 한국에 오셔서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시던 어머니께 전화를 걸어 벌금을 내달라며 울어댔고 결국 어머니께서 내주셔서 풀려났지만 그것이 마지막 통화가 되어 이렇게 피눈물 흘리며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어머니의 소식을 제게 알려주시지 않았고 저는 어머니의 장례식도 마지막 모습도 뵈지 못한 채 돌아가신지 2주 후에야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날 저는 구속되었고 작년에 이어 올해도 어머니의 납골당에 찾아 뵈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얼마후면 사회로 돌아가게 됩니다. 나가면 가장 먼저 어머니 계신 납골당에 찾아가려고 합니다. 이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불법적인 것에 손대지 않고 하늘나라에서 보고 계실 어머니와 외국에 계신 아버지께 뒤늦게라도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의 이 다짐 잊지 않고 정말 두 번 다시는 이곳 교도소에 발걸음 하지 않겠습니다.

작품평 : 보이스피싱 죄를 지어 형을 살게 되었으니 피해자들은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을까요. 초등학교 시절의 집단 따돌림, 가족의 헝가리 이주, 혼자 돌아온 이후의 외로움, 어머니의 백혈병 사망 등 감당하기 어려웠을 고난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노동을 해서라도 내 손으로 벌어야지 몇몇한 돈이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인생을 어떻게 꾸려갈지 잘 준비해 나오길 바랍니다.

엄마의 모습



김진희

1969년 어느 3월의 오후 강원도 ○○군 ○○ 작은 어촌마을에 울음소리가 우렁찬 여자아이가 탄생하였습니다. 그 갓 난 여자아이는 한 집안의 장녀로 태어났습니다. 뱃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어느 부부의 장녀로 태어나 사랑을 독차지하며 바람불면 날아갈세라 비가 오면 비 맞을 세라 누구에게라도 혼이 나면 나에겐 꼭 방패막이가 되어주시던 분이셨습니다. 부모님 슬하에서 사랑을 독차지하며 자란 아이는 한 살, 두 살, 세 살 나이를 먹어가면서 어느새 초등학교 1학년이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어린아이의 눈에 비친 엄마는 키도 크고 얼굴도 가름하고 이쁜 엄마였습니다. 엄마~ 엄마 하며 부르며 자란 아이는 어느새 불혹의 나이가 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불혹의 나이를 먹은 아이가 지금의 나입니다. 불혹의 나이가 되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쁘게 귀하게 낳아주신 부모님께 말할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이쁘게 불리라고 지어주신 이름이 이곳에선 수인번호로 불리고 있습니다. 너무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물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날 낳아주신 부모님에 대한 원망과 자식을 버리고 세상을 등지신 엄마를 원망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제가 수감 중에 엄마의 마지막 모습을 생각하며 지금은 저 푸르고 넓은 동해바다에 계신 그분 엄마에게 용서를 구해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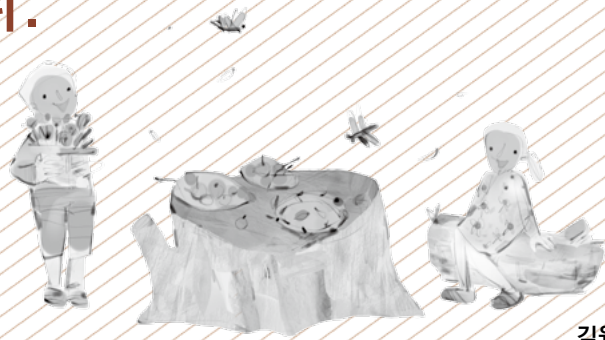
내 나이 반평생을 이제 막 넘겨 생각해보니 엄마의 살아생전 모습은 늘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항상 같은 스타일의 머리, 늘 같은 자켓을 입고 다니시던 모습, 새벽같이 일어나 앉아 명태잡이를 하시는 아빠를 위해 미끼를 끼워 낚시함에 차곡차곡 챙기던 모습, 아빠에게 온갖 횡포를 당하 시면서도 묵묵히 받아드리던 모습, 이런 모습 외엔 엄마께서 행복해하며 웃으시던 모습은 지금도 내 기억 속에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고단하게 자식을 위해 참고 견디며 살아 가시다 엄마의 나이 33세에 세상을 버리셨습니다. 그때 저의 나이 13세였습니다. 큰 키에 얼굴이

가름한 엄마의 마지막 모습은 마치 힘든 삶을 이젠 살지 않아도 될 듯하다는 평온한 모습이었습니다. 자식을 두고 깨어나지 못한 길로 가시는데 저렇게 평온한 모습을 하고 계실까?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어린 나이에 지켜본 엄마의 마지막 모습은 잔잔한 호수처럼 평온했습니다. 엄마의 작은 나무집은 아주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그렇게 마지막으로 엄마의 모습을 보고 지낸 지 36년 만의 일입니다. 36년 만에 엄마의 집을 찾아가 열어보았습니다. 순간 엄마의 모습을 찾을 수도 없고 엄마를 지탱하여준 앙상한 흔적뿐, 엄마를 감싸고 있던 삶은 그 시간 동안 조금씩 흩어 되어 사라지고 앙상한 흔적뿐이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있었던 흔적을 모아보니 그때야 엄마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불쌍한 우리 엄마, 가엾은 우리 엄마, 이제야 못한 딸이 엄마를 찾아왔습니다. 살아생전 엄마의 모습은 간데없고 이 좁은 곳에서 살이 흩어 될 때까지 이 못한 딸은 이 어리석은 딸은 엄마를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그리움보다 간절함보다 자식을 버리고 다른 세상을 택하신 엄마를 늘 원망하며 살아온 시간이 더 많습니다. 이제야 원망하며 살아온 시간을 후회 하며 외로이 지냈을 엄마를 아빠의 곁으로 보내드리러 왔습니다. 아빠가 계신 저 푸른 바다에서 갈매기로 환생하여 훨훨 날아 마음껏 소리도 지르시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며, 전 엄마의 흔적을 한 줌의 재로 만들어 흰 종이에 고이고이 싸서 뜨거운 기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가슴에 안고 저 푸른 바다 갈매기가 있는 곳에 훨훨 날려 보내드렸습니다. 답답하고 무서운 공간에서 얼마나 힘이 들고 마음이 아팠을까요? 죄송합니다. 엄마. 엄마, 이 못한 딸은 힘든 인생 살이를 살아가면서 엄마의 그리움보다는 엄마를 원망하며 살아왔기에 저의 52년의 삶이 순탄하지 않았나 봅니다. 반평생을 살면서 우여곡절의 삶도 무수히 많이 겪어냈고 저는 이제야 부모란 자식에게 어떤 존재이신지 깊게 알게 되었습니다. 엄마의 그리움이 몸속 깊이 사무치게 그리워지고 있습니다. 그때 그 시절 엄마께서 왜 그런 선택을 하셨어야 했는지 이제야 이 못한 딸은 알게 되었습니다. 엄마 이제는 이 못한 딸 부끄럽지 않은 엄마의 딸로서 다시 한번 마지막 삶을 살아보려 합니다. 엄마를 원망했던 시간과 삶을 용서해주세요. 단 한 번도 지금껏 해보지 못했던 딸, 이제야 용기 내어 봅니다. 엄마 사랑합니다.

작품평 : 열세 살 때 돌아가신 어머니, 그때 어머니 서른세 살이었다니 너무나 일찍 가셨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흘러 36년 뒤에 다시 화장을 했나 봅니다. 이 과정을 마치 소설 쓰듯이 쓰셨네요. 문학적인 자질이 있으니 글을 계속해서 써볼 것을 권유합니다. 그곳에서 틈날 때마다 책을 읽고 문장력을 키우면 작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김원정

모든 마약의 제일 큰 피해자는 자기 자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자기 자신을 해치는 마약. 그 마약은 결국 2차 피해를 주게 되는데 그 피해자는 다른 누구도 아닌 피해자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2차 피해자로 시작해서 제일 큰 피해자가 되어 현재 마약 밀수 방조죄로 실형 5년을 받고 수감중인 20대 후반 한 여성입니다. 제가 마약에 2차 피해자인 이유는 마약과 관련된 첫 번째 가해자를 사랑한 이유였고, 그런 이유로 저는 마약으로 인한 피해자, 2차 가해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이 많아진 이유는 이번년도부터 실행하게 된 비투약자 NA, 즉 마약중독 프로그램을 수감하게 된 계기였고 그 수업을 들으면서 깨달음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비록 비투약자이지만 밀수과정 투약자들에게 끼치는 해에 대하여 배움이 컸고 저에게 변화를 주게 되는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수업을 듣기 전에는 NA 과정을 듣는다는 것이 심적으로 다소 불편했지만 배우는 걸 좋아하는 저는 금새 저의 비루한 생각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마약 중독만 중독이 아닙니다! 알코올 중독, 니코틴, 도박 등등... 모든 중독은 무서운 것이고 뇌에서 솟구치는 도파민이 분비될 때 인간이란 존재는 희열과 쾌락을 느끼며 열광합니다. 그 중에 가장 큰 희열을 느낄 수 있는 것은 뇌로 직접적으로 전달되는 도파민을 가장 많이 분비시키는 마약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양의 도파민을 분비시킨 후에 뇌는 더 우울해 하고 다시 희열과 성취감을 더 원하게 됩니다. 그 당시 느꼈던 뇌에서 솟구치는 그 기분을 뇌는 다시 느끼고 싶어 하는 것이겠죠? 마약을 투약 하지 않아도 스틸을 즐기면서 쉽게 돈을 벌었던 당신도 마약의 피해자입니다. 또는 마약 관련된 사람과 인연이 된 것도 당신은 2차 피해자이자 자신을 다치게 한 가해자입니다. 저는 수감 중 많은 재범들을 보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듣게 되었고 많은 교훈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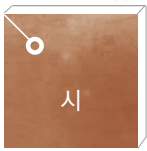
그 후 마약이란 것이 더 무섭게 느껴졌고 이 글을 보는 모든 피해자이자 가해자 분들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이 글을 마음에 새겨주시겠어요?

미안해, 널 고생시켜서, 다 괜찮아. 이제부터 잘 하자. 두 번 다시 실수 안하면 돼. 이제까지 수고했어. 이제는 그 둘레 속에서 벗어나면 돼. 한걸음 한걸음씩 다시 돌아가자. 이제는 그래야해. 당연히 시간은 걸릴거야. 하지만 할 수 있어. 자신을 위로하면서 자신을 아껴주세요. 타인에게 사랑받기 전에 자신 스스로를 먼저 사랑해주세요. 내 자신을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타인에게 너무 쉽게 이용당할 수도 있으니까요. 나를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하여 힘내세요. 가족들이 지금 당장 나를 이해 못해도 바뀔모습을 본다면 다시 당신은 그들의 BEST가 될 것입니다. 다시 가족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게 저와 노력해봐요! 우리는 할 수 있어요. 꼭 가능할 거예요. 파이팅. 사실 이 글은 제 자신을 위로하는 글입니다. 저란 아이는 화려해보이는 저의 라이프 스타일, 수려한 외모에 비해 제 자신에게 너무 매몰했고 나이가 어린 저를 사람들이 낮추어 볼까봐, 만만하게 볼까봐 제 자신을 채찍질하였습니다. 조금 더 나를 아꼈다면, 나에게 조금 더 관대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제는 다 내려놓고 모든 걸 다 잃어보니 사실 저는 프랑스 디저트인 수플레이 같은 존재였습니다. 속은 부드럽고 겉은 딱딱한 그런 디저트. 너무 연약한 제 자신이었습니다. 그런 디저트같은 아이는 이 곳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 곳은 저에게는 지옥 같았지만 이 곳에서 얻는 것 또한 많았습니다. 이제는 수플레이가 아닌 더 단단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중이고 저는 꼭 변할겁니다. 저랑 함께 동행 하실래요? 새로운 인생 새로운 변화를 위하여 Shall we?

이제 우리는 이곳이 얼마나 힘들고 외로운 곳인지 잘아니까 더 잘 할 수 있을 거예요. YOLO가 한번 살기에 막사는 인생이 아닌, You Only Live Once 이기에 더 이상 허비하지 않고 허비한 시간만큼이나 더 잘 살아가는 Yolo가 되보는 건 어떨까요? 이 시간이 허비가 아닌 공부이길 함께 실천해 볼까요?

작품평 : 마약 중독의 피해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약 밀수 방조죄라는 죄명이 있군요. 비투약자 일지라도 얼마든지 마약사범이 될 수 있네요. 마약은 게다가 운반만 해도 큰 범죄지요. 이 글은 자신을 위로하는 특이한 형태의 글입니다. “타인에게 사랑받기 전에 자신 스스로를 먼저 사랑해주세요.”라는 말이 의미심장합니다. 자신을 사랑하면 남에게 피해를 안 준다는 역설이 이 글을 보니 성립합니다. 그래서 옛날사람들은 자중자애(自重自愛)라는 말을 만들어냈나 봅니다.

“용서의 글” 부문은 새길 심사위원 시인 이승하 선생님이 작품평을 해주셨습니다.



감

박혜진

가을에 오는 사랑이라
단감

양 볼에 흥시 연시
붙이고 설레는
감

너무 빨리 따먹어서
뺏은 감

너무 좋은 가을인데
서둘러 빨리 가려니까
싫은 감

근데
가을도 겨울 싫어서
절대 안 감

그래도 내 얼굴
주름은 빨리 감

그거 보고 웃는
니 얼굴도
곶감

또 이렇게
하루가
감

작품명 : 시도 재미가 있음 좋지요. 가을이면 지천을 물들이는 감을 볼 때마다 이 시를 떠올리며 미소를 지을 것 같습니다. 목걸이 만들던 감꽃이 지면 뺏은 감이 맷히고 한여름 벌에 익어 단감이 되고 나눠 먹고도 남은 감은 곶감이 되듯 사람도 자연의 이치처럼 가을이 있어 익어가는 것들이 있었음 좋겠습니다.





구 카

김민란

어린 봄에는 썩이라 했지요
어머니 보셔요 국화에요
썩이 아녀요

예구 내가 눈이 갔다
구카도 구별 못하고

아니예요 두 놈은 사촌간이에요
젓빛 솜털을 보셔요
꽃피기 전 풋내 땀 비슷하죠
하얀 범벅이 똑같아요

구월 구카, 화투쪽에 나온다
오늘은 술마시는 점괘다
저권을 건너와 한창을 견뎌주니
구카란다

예까지 국화내가 나요
엄마내가 나요

그러나
내가 타고 갈 꽃마차 만들어야지
함께 하늘 가는 꽃이란다

작품명 : 국화를 구카, 라 부르는 어머니. 그릇을 그릇, 이라고 부르는 어느 시인의 어머니. 상가집을 환히 밝혀주던 흰 국화들이 망자의 길을 밝혀주는 꽃이었네요. 우리 엄마에게선 어떤 꽃향기가 나는지... 썩 더러 국화라 해도 국화를 썩이라 해도 그런 어머니가 계신 것만으로 우린 이미 세상을 다 가진 사람이겠지요.



뇌우

고영수

우르르 쿵광 쿠르르.....
우르르 쿵광 쿠르르.....

하늘을 찢어버릴 듯한 울음소리
번뜩이는 이빨을 들어내어 울부짖는다

검붉은 구름 사이로 뇌우가 내리친다.
세찬 비는 휘청거리며 매몰차게 몰아친다.

무엇이 저리도 화나게 했을까?
무엇이 이리도 아프게 했을까?

저렇게라도 화내면 후련해질까나!
이렇게라도 아파하면 용서가 될까나!

와르르 쿵광쿵광 와르르.....
와르르 쿵광쿵광 와르르.....

요란한 소리에도 작은 꽃은 흔들리지도 않고
내리치는 빗물을 오히려 반기듯 하네

얼마나 참아냈기에 꽃으로 피었을까?
얼마나 꺾어 봤기에 반기는 걸까?

세찬 비도 한때는 고요한 강물이었을 거다
고요한 강물도 한때는 보슬비이었을 거다
보슬비도 한때는 영롱한 이슬이었을 거다

이슬을 머금고 견디어낸 작은 씨앗은
제 계절을 만나서 꽃으로 피어났다

그 계절이 오늘이었구나
오늘이 올 때까지 버티며 살아났구나

어제의 내일인 오늘
내가 가진 것 중에 유일하게 확실한 오늘

어제는 누군가에겐 간절한 오늘을 가졌구나
어제까지는 남의 꿈을 위해 살아왔구나

오늘부터는 나의 꿈을 위해 살아 갈 꺼다
지나간 시절의 아픔은 눈물로 용서하고
오늘에 있음에 감사하며 충실히 살아가련다

작품평 : 자연의 힘은 인간을 겸손하게 합니다. 천둥번개에도 굴하지 않고 피는 꽃과 한때는 고요한 강물이었다가 영롱한 이슬이었던 빗방울. 오늘을 살아야 하는 우리에게 커다란 뇌우 소리는 무언가 깨달이라는 일침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참회와 화해의 비를 흠뻑 맞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밤
의
강
물
과
갈
대

권남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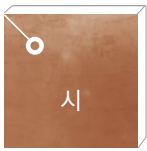
깨어 있거라.
깨어 있거라.
이 어둠을 지켜보아라.

갈대가 줄까 봐
또랑또랑 목소리로
강물이 일깨우고

멈추지 말아라.
멈추지 말아라.
이 어둠을 씻어 내어라.

강물이 설까 봐
저들끼리 몸 비벼
갈대가 서걱서걱

작품평 : 깊은 밤 강물과 갈대가 서로 깨어있자고, 쉬지 말고 흐르고 흔들리자고 서로를 응원하는 모습에 마음이 몽클해집니다. 우리의 모습이었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도 덜도 없이 아무런 기교도 없는 이 시편에서 상생의 힘을 느낍니다. 멈추지 않고 흐르는 강물처럼 흔들려도 깨어있는 갈대처럼...



1
홍
시

구
애
희

양상한 가지 위에 남겨 놓은 까치밥
태중에 손주 먹이시려 홍시 두알 따오셨네.

홍시 두 알을 바닥에 놓고 한참을 생각에 잠긴다.
회초리 같은 나뭇가지에 감을 어떻게 따셨을까

어떠한 마음으로 가깝지도 않은 거리를 가셨을까
떨어뜨리시지 않고 무사히 손안에 들어 왔을 때는 어떤 마음이셨을까

거친 두 손안에 빨간 홍시 두 알이 살포시 앉아 있는
상상에 자상하신 아버님의 사랑이 샘솟듯 올라온다.

아버님의 속마음을 헤아리며 감히 혼자 먹지
못해 텃밭에 일하시는 아버님 어머님께 나누어 드렸네.

아버님 그때 그 홍시는 세상의 그 어느 홍시보다
달콤했고 깊은 맛이었습니다. 그 사랑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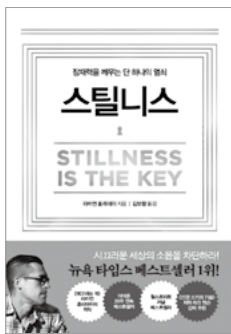
-아버님을 그리며-

작품평 : 내리사랑과 치사랑. 어느 쪽이 더 애뜻할까요. 자식 입으로 맛있는 거 들어가는 것만 보아도 배가 부르다는 부모님. 그 귀한 사랑을 부모님께 돌려드리는 마음이 읽혀서 마음이 따듯해집니다.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줄줄 안다고 합니다.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란 말도 새삼 다가옵니다.

“시” 부문은 새길 심사위원 시인 신정민 선생님이 작품평을 해 주셨습니다.

「스틸니스」를 읽고

박성훈



내 나이 40세를 넘긴 지가 벌써 3년째이다. 40세를 “불혹”이라 한다.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의미이다. 3년 전 40세가 되었을 때 “불혹”이란 의미를 생각해 본 적이 있었다. 과연 나이만 차면 저절로 이러한 능력? 이 생기는 것인가? 나에게 그런 정신력이 준비되어 있는 것인가? 나 자신에게 되물었고 대답은 NO였다.

그때부터 인터넷 서점에서 부지런히 “불혹”의 정신을 갖도록 도움이 될만한 책들을 찾아오나, 어떠한 책을 읽어야 할지 몰라, 관련 국내·외 베스트 셀러 책들을 읽기 시작했다. 대부분 심리학자 교수 등이 쓴 책들이 많고[심리학·

철학·심리연구·치료실험 결과들] 다소 생소하고 어려운 분야 단어들이 많아 공감대가 좀 떨어지는 반면 그 외에는 [생각 버리기·잡념 없애기·둔감하기·명상] 등 마음잡기에 달렸다는 방향 등 광범위하게 읽게 되었다. 일부는 이미 알고 있지만 실천하지 못한 방법들, 또는 너무 심도 있는 심리학·철학으로 안내해서 내겐 난해하고 힘들었던 책들을 지난 2년여간 20여 권을 읽었지만, 현재까지도 “불혹”의 정신을 갖진 못했으나, 삶에 필요한 마음의 위안, 정신력 등 많은 도움이 되었고, 의지할 만큼 내게 확 와닿는 책을 찾지 못한 채 올해 1월 과거 사업하며 생긴 분쟁으로 1심 무죄 받은 것이, 뒤집혀 2심에 법정구속 3년을 선고받았다. “불혹”의 마음을 가지려 많은 책을 읽었지만, 나의 멘탈은 세찬 바람 속 갈대처럼 흔들리기만 했다. 결국, 과도한 스트레스와 분노로 정신과 약에 의존하며, 시간이 지나서야 조금 진정되어 원래 책 읽기를

좋아했던 나는 힘든 마음을 추스르고 강한 정신력을 갖기 위해 다시 멘탈 관련 책들을 읽으며, 조금씩 평온을 찾아가고 있었다. 집사람에게 구입한 책을 다 읽었다고 하니 이번엔 아마존(미국 인터넷 서점)에서 베스트 셀러인 「스틸니스」라는 책을 추천해 주었다. 저자 “라이언 홀리데이” 그는 미국과 전세계에 여러 권의 베스트 셀러를 쓴 작가이다.

난 과거에 본 저자의 다른 책을 공감하며 읽었던 기억에 책 구매를 신청하고 오기 전 생소한 제목인 「스틸니스」라는 단어를 찾아보았다. 「스틸니스」는 「고요~하다」였다. 뜻을 알고 나니 더욱 궁금해졌다. 드디어 도착한 「스틸니스」 첫 장을 넘기며 눈에 띈 서문, 세상의 모든 위대한 지도자·사상가·예술가·사업가·운동선수 등 성공한 사람들은 「스틸니스(고요)」를 통해 분노를 제압했다! 그 어느 때 보다 혼란하고 시끄러운 현대에 이 책을 읽으면 당신의 인생에서 “고요”를 얻을 것이었다. 지금의 내 마음 역시 밖의 세상처럼 매우 혼란하고·분노하고 있었기에 첫 문구가 가슴에 와 닿아 천천히 신중히 읽기 시작했다.

「고요」. 이미 전 세계 종교계와 철학·심리학에서도 “고요”를 찾으라 중요히 가르치고 있었다. 기독교에서는 “아이과니 미타스” 불교에서는 “우베카”, 이슬람교에서는 “아슬라마” 힌두교에서는 “사마트 밤” 동양에서는 “도(道)” 미국에서 “스틸니스” 고대 그리스 철학·신학에서는 “로고스” 이렇듯 모든 종교 외에도 스토아·

이페쿠로 철학·심리학에서도 행복한 삶의 비결로써 내면의 “고요”함을 찾으란 의미이지만 현대사회는 갈수록 “고요”와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 주변은 온갖 소음으로 가득하다. 밖은 자동차 소리, 씹 없이 움직이는 사람들, 잠시 눈만 돌려도 온통 현란한 광고판들. 주변 공사장 소리, 호객, 집회, 어딘가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소리, 휴대전화 벨 소리, 각종 SNS 알람 소리, 저 높은 하늘마저도 비행기 소리에 수많은 소음을 들으며 살고 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인지도 모른 채 귀와 눈을 열고 온갖 정보·소리에서 벗어날 새가 없다. 휴식처인 집에서 쉬는 시간마저 TV 속 뉴스매체는 “분노공장”으로 변해 없던 분노를 일으킨다. 이러한 삶 속에 익숙해질수록 내 삶은 피폐해 지고 있는 것이다. “정보의 풍요로움이 집중력의 빈곤을 만든다.” 허버트 사이먼(미국사회과학자)

이 책에선 이러한 불필요한 요인들을 줄이는 방법과 여러 현인들의 생활 습관 방식 등을 통해 쉽고 빠른 이해와 공감으로 자신의 내면에 있는 “고요”를 찾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의 극히 일부이지만 본인에게 공감을 준 명언들도 많다. 1654년 프랑스 철학자 “파스칼”은 “인류의 모든 문제는 홀로 방 안에서 조용히 앉아 있지 못한 무능함에서 시작된다.” 의미는 자기 삶에 주인이 되려거든 우리가 알 수 있는 수많은 위대한 사람들이 “고요”를 통해 어려움을 이겨낸 실화들을 이해하기 쉽게 여러 단락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들 중 나에게 와 닿는 두 위인이 내면의 “고요”를 통해 변한

삶의 방식으로 난국을 이겨내는 일부 내용을 옮겨 보았다.

나폴레옹은 전시 상황에서도 비서에게 어떤 우편물이 오든 읽어보고 자신에게 3주 뒤에 전할 것을 습관화시켰다. 3주 뒤 편지 내용을 읽었을 때는, 보낸 당사자는 “중요한 문제”라던 사안들이 읽어보았을 땐 중요하지 않아 답장할 필요가 없는 편지가 대부분이었다. 또한, 아무리 좋은 소식이라도 취침 시엔 절대 깨우지 말고, 만약 편지 내용이 “군사 작전에 위기·위급 상황” 시에는 나를 즉시 깨워라. 그런 상황엔 단 1초도 낭비할 수 없다. 이것이 나폴레옹만의 “고요”를 유지하는 습관이였다.

위처럼 바쁜 현대인들이 현실에 적용해볼 만한 방법일 것이다. 우리에게겐 너무 많은 불필요한 정보가 쏟아져 온다. 급하지 않은 것들을 분리해 점점 멀리하고 사소한 문제들은 굳이 자신이 나서지 않아도 알아서 해결될 것이고, 실시간 쏟아지는 정보의 늪에서 벗어나 나폴레옹처럼 여유를 갖는 태도, 내 삶에 꼭 필요한 사항만을 받아들이고 나 자신을 정보의 노예로 만들지 않는 태도를 길러야 한다.

1942년 “도로시(수녀이자 사회활동가)”가 어느 날 자신의 일기를 쓰며, 자신을 꾸짖었다. 그리고 새 계획을 세웠다. 라디오를 꺼라! 신문은 내게 필요한 헤드라인 큰 글씨만 읽고 치워라! 이로써 남는 시간에 “고요”를 찾아 명상하자! 정보의 호수에 빠져 있으면, 행복도 없고, 명료한 사고도 행동도 없다. 유능한 변호사들

이 자주 하는 전략 중 하나가 상대방에게 서류를 산더미 같이 제출하는 방법이다. 이로써 상대방의 “정보 과다로 인한 분석 마비”를 통해 승률을 높인다. 그런데 우리는 현재 나 자신도 모르게 이러한 “삶의 마비”를 주입하고 있다. 불필요한 소리·언쟁·정보·잡생각·TV·타인의 일·걱정 등부터 줄여 보자.

또 다른 위인은 히틀러의 폭주를 막은 영웅 윈스터 처칠이다. 그 역시 세계사에서 빠질 수 없는 영국의 신화적 인물이다. 21세기 전쟁에 참여, 26세에 공직에 선출 전쟁 중 40여 권의 베스트셀러 등 집필, 500여 점의 그림, 2,300번의 연설, 재임 기간 65년간 국방부 장관, 해군장관, 재무장관, 영국 총리까지 맡아 히틀러와 맞서 승리하고, 황혼기마저 공산주의 철책을 위해 싸우며 생을 마감했다. 그의 생전 한 기자가 물었다. 총리님 지치지 않는 에너지로 성공하는 비법이 무엇입니까? 처칠은 망설임 없이 답했다.

“정신과 육체의 힘을 보존하는 것! 앉아 있을 때는 일어서지 말고, 누워있을 때는 앉지 말 것. 정신과 육체를 쉴 수 있을 때 꼭 쉬게 해야 한다. 그래야 언제 닥칠지 모를 위기를 헤쳐나갈 기력을 항상 충분히 대비한다.”였다. 그리고 젊은이들에게 조언하길

- 첫째, 목표를 높이 세울 것!
- 둘째, 자신을 우울하게 만들지 말 것!
- 셋째, 타인과 불필요한 사소한 일 따위로 기

력을 낭비하지 말 것!

넷째, 즐거움을 누릴 취미와 여유를 가질 것!

처칠은 전쟁 중에도 유머스러웠으며, 세상의 아름다운 경치를 바라보는 눈을 잃지 않았고, 지친 기색을 보인 적이 없다고 한다. 또한 처칠은 전쟁 중에도, 국가 위기 때도, 생각을 비우기 위해 본인만의 취미를 항상 즐겼다. 전쟁 전에는 벽돌공들에게 기술을 배워 시간 날 때마다 매일 벽돌을 쌓아 오두막을 지으며, 육체를 이용해 마음과 정신의 잡념을 버리고 “고요”를 채우기 시작했고, “고요”가 익숙해질 때부터는 벽돌을 쌓으며, 머릿속의 정보를 버리기 위해 집필을 병행했다. 그렇게 수 십 권의 명작이 나왔으며, 히틀러와 크게 전쟁을 치르며 이제는 밖에서 벽돌을 쌓는 취미를 할 수 없게 되자, 전쟁 중 이동하며 할 수 있는 취미를 찾아 지하 병커에서 처음 그림을 배우고, 첫 작품을 당시 유명한 화가에게 보여주고 조언을 구하자, 화가는 그림을 그릴 때 “너무 많은 생각을 하지 말라”란 조언을 듣고, 마음의 “고요”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고 한다. 이후 전쟁 중 틈틈이 그린 그림이 무려 500여 점이나 되어 지금 후대에 명작들을 많이 남겼다. 처칠은 당시 어떠한 장소, 상황, 위기, 관계없이 불필요한 생각을 비우고 오직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그림을 그렸다고 한다.

그런 처칠에게도 정치적 음모로 잠시 잠시 정계를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떠나야 했던 시절이 있었다. 그 충격과 스트레스, 갑자기 남

아도는 시간, 처칠은 후에 당시를 회상하며 정계에서 쫓겨났을 때 오히려 감사한 마음을 갖고, 많은 시간으로 스스로의 삶을 뒤돌아보고, 고독·궁핍·성찰·명상으로 “고요”를 더욱 수양했고, 이러한 정신과 육체적 단련을 통해 더욱 강인한 정신이 만들어졌다고 한다. 이후 히틀러의 계속된 승전보도 위기에 빠진 영국은 비로소 다시 처칠에 도움을 손을 내밀었다. “고요”함으로 강인해진 처칠과 달리 대부분 관료는 히틀러의 기세에 놀려 두려워하며 위축되어 있었다. 이때 처칠은 두려워하는 관료와 군인들에게 이런 명언을 남겼다. “위기라는 좋은 기회를 낭비하지 말라!” 이런 처칠이 이끄는 군에게 결국 히틀러는 백기를 들고 말았다. 이렇게 살아온 처칠의 삶이 후대에 큰 위인으로 남은 것을 보면, 아주 어렵지 않은 이러한 습관의 중요성을 깨닫게 한다.

난 이 책을 읽고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고요”에 접근하는 것을 실천하기로 했다.

첫째, 가장 쉽고 단순한 방법인 감사이다. 살아있다는 그것에 대한 감사. 내가 사랑하는, 나를 사랑해 주는, 모든 이에게 대한 감사. 내 현 상황에서 긍정적으로 생활하는 나에 대한 감사. 이렇듯 나는 아침마다 감사할 것을 찾아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려 노력한다. 오늘도 하나를 찾아 내었다. 나를 위해 마음 쓰고 고생하는 방 식구들·직원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추가했다.

둘째, 처칠처럼 내 성격에 맞는 그림을 그리

며 나 자신에게 행복을 가득 주기로 했다. 해서 드로잉(펜 그림) 기초 책을 3권 구입했다. 첫 장을 따라 그렸을 뿐인데 벌써 운동장 밖의 예쁜 가을 산을 그리고 싶어 마음이 설레기 시작했다.

셋째, 나에게 필요하지 않거나 중요하지 않은 TV가 나올 때면 귀마개를 한다. 그리고 지혜가 담긴 책을 읽기 시작했다.

우선 내게 허락된 이 공간에서 바로 할 수 있는, 쉬운 것부터 실천하고 있다. 언젠가 내게도 나보다 큰 거대한 “고요”가 몸과 마음에 자리를 잡을 것이고 난 도약하게 될 것이다. 이미 불필요한 정신과 약을 줄여나가고 있다. 벌써 “고요”가 쫓아내고 있는 것을 느낀다. 이곳이 아마도 처음 “고요”를 접하긴 오히려 가장 좋은 환경이 아닌가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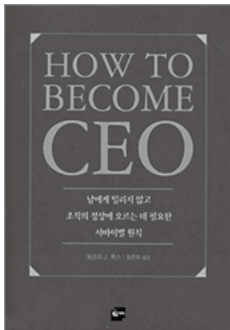
지금의 환경·상황에 감사함을 느끼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충분한 인생의 휴식을 취하며, 새 삶의 터닝 포인트(전환점)가 주어진 것으로, 이러한 기회가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처칠의 명언처럼(위기라는 좋은 기회를 낭비하지 말라) 여러분들께도 어렵지 않고 마음을 다스리는 여러 방법과 사례들이 실려 있는 「스틸니스」를 추천합니다. 하지만 앞서 두 위인의 사례처럼 지금 할 수 있는 긍정적 습관을 만드는 것만으로도 시작은 충분한 듯합니다. 「스틸니스」에 등장하는 위인들이 명언 몇 자 적으며 인사드립니다. 행복하세요 ^ ^

- 매 순간 자신에게 물어라. 이일이 정말로 필요하냐? (마르쿠스)
- 비운다는 것은 신과 함께 한다는 것 즉 “도(道)”이다.(아와겐조)
- 마음을 훈련 할 수 있다면 두려움을 사랑으로 바꿀 수 있다.(존케이저)
- 우리의 정신은 “고요”를 향하고 있으나 욕망이 가로막는다.(노자)
- 우리는 육체가 마비된다고 하면 무슨 일이라도 할 테지만 우리의 영혼이 마비되고 있는 것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다.(에픽테토스)
- 분노보다 사람을 명칭하게 만드는 것은 없다.(잠언 16장 32절)
- 가치 있는 아이디어는 오로지 걷는 중에만 떠오른다.(니체)
- 말해야 할 때가 있고 자야 할 때가 있다.(호메로스)
- 하루를 잘 보내면 그날 잠이 달고 인생을 잘 보내면 죽음이 달다.
- 남이 쓴 책을 많이 읽어라. 남이 고생하며, 얻은 지식을 아주 쉽게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소크라테스)
- 이 또한 지나가리라.(솔로몬 왕)

작품평 : 세상일에 정신을 빼앗겨 판단을 흐리는 일이 없는 나이 불혹이 스틸니스네요. 나폴레옹과 도로서, 처칠의 고요를 엿봅니다. ‘고요’에 접근하는 자신만의 세 가지 방법을 실천 하고 계시다니 불혹을 잘 보내고 계시네요.

「How to become CEO」를 읽고

최태수



I. 들어가는 말

‘How to become CEO’라는 책의 제목을 보자 관심이 갔다. 제목에서 말하고 있듯이 CEO에 맞춰져 있지 않고 CEO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한 준비서이다. 즉 일반 직장인에게 초점이 맞춰짐으로써 사람과의 관계는 물론 자기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잘 가르쳐 주고 있다. 또한 이 책을 통해서 CEO의 범주가 회사의 경영자라고만 생각했던 고정된 관념이 깨지고 학교의 교장도 될 수 있고 교도소장으로도, 국가의 대통령으로도 불릴 수 있는 대상임을 깨닫게 되었다. CEO로서 가는 길은 근무 습관, 타이밍, 경쟁자, 성격, 후원자, 재능, 환경 등의 영향을 받게 된다.

저자 ‘제프리 J폭스’는 MBA과정에서 배울 수 없는 현실적인 것들을 제시해 주고 있다. 근무 습관을 바로잡고 타이밍을 포착하여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지혜, 자신의 능력을 찾아내고 잠재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요령이 가득찬 책이다. CEO를 꿈꾸는 사람, 품위 있는 직장인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 자영업을 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사람, 그리고 조직의 정상에 서고 선의 경쟁을 통한 경쟁을 이기고 소외되지 않는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II. 본문 요약

1. 목표가 없으면 영광도 없다.

목표 설정이 시간 관리를 위한 첫 걸음이다. 목표는 계획을 구체화하고 에너지를 조절하며 모든 자원을 집중시킨다. 반드시 아이디어 노트에 2개의 목표를 기록하는데 직업 업무상의

목표와 인생의 목표를 세분화 하여야 한다.

2. 인재에 과감하게 투자하라.

「할 수 있다」는 정도가 아닌 최고의 인재를 고용하라. 훌륭한 성과를 거둔 인재들에게 신뢰와 권한과 칭찬, 격려로 충분히 보상하라.

3. 실책을 숨기지 마라.

실책은 항상 공개되어야 한다. 은폐될 경우 고의가 아니라도 파장은 심각하다. 실책을 먼저 고백하는 자는 공모여부와 상관없이 안전을 보장 받는다. 문제의 심각성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시행착오를 거듭하라. 처음부터 완벽한 것은 없다. 자신의 실수를 자신 있게 말하라. 그리고 주의 깊게 기록하고 수집하라. 실수를 인정하는 것은 안도와 자신감의 표시이다.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불확실한 모험에 도전하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다.

4. 신체의 건강을 유지하고 고생을 거부하지 마라.

두뇌가 돈을 벌게 해주지만 두뇌도 신체의 일부이다. 고독하고 힘든 일도 규칙적으로 실행하고 다른 사람이 꺼리는 일을 하라. 고생을 거부하면 영광을 맛보지 못한다. 45분 일찍 출근하여 심리적 우위를 차지할 수 있으며, 15분 늦게 퇴근하여 책상정리와 다음날 계획만 세워라. 밤 10시를 넘기며 일하는 것은 스스로 사생활이 엉망임을 알리는 것이다.

5. 인사 파일을 만들어라.

인사를 나누는 사람,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파일을 만들고, 자주 만나지 못하는 동기나 전 동료는 6개월마다 간단히 안부쪽지를 보내고 자필 편지를 보내라.

6. 명료하게 쓰는 법과 명확하게 말하는 법을 배워라.

커뮤니케이션의 방법을 배워야하고 조리 있게 전달하는 방법을 훈련해야 한다.

7. 멈춰라. 주시하라. 그리고 경청하라.

관리자는 숙고할 줄 알아야 한다. 생각하고, 검토하고, 관찰하고, 조사한다. 그리고 경청한다. 누군가 말할 때 하던 것을 멈추고 그를 주시하라. 그의 말에 귀를 기울려라. 훌륭한 경청자는 존경받는 위대한 화술가이다.

8. 당황하거나 화내지 말라.

짜증, 비난, 속단, 겁먹은 행동은 '당황'의 표현이다. 훌륭한 CEO는 당황하거나 흥분하지 않고 자신에 대한 통제로 주변상황을 제어한다. 어떤 일이 있어도 화내지 말라.

9. 예의 범절은 수지 맞는 비즈니스다.

모든 이에게 예의 바르게 행동하라. 품위를 잃지 마라. 욕설, 거친 말을 삼가라. 항상 약속을 잘 지켜 타인의 시간도 소중히 생각한다.

10. 일거리는 집으로 가져가지 말고 휴가는 취소하지 마라.

가족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필요한 공부를 하

고 내일을 계획하고 관심거리를 확대하고 자녀들과 야구 연습하는 시간을 할애하라. 일거리를 집으로 가져가는 것은 시간 관리를 못하는 사람, 귀중한 여가시간을 낭비하는 시간으로 인식된다. 특히 휴가를 가지 않은 것은 무능력의 표시이다.

11. 구상은 완벽할 필요가 없지만 실행은 완벽하게 해야 한다.

완벽한 시기, 완벽한 상황을 기다린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구상을 개발하고 소개할 때는 세부적인 사항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미완성 상태로 방치하지 마라. 일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은 바로 실행의 탁월성이다.

12. <아이디어 킬러> 때문에 낙담하지 말고 샤프한 사람이 되라.

아이디어 킬러는 '전에도 그렇게 시도한 적이 있어', '책임자가 반대할거야', '그럴 재정이 없어', '별 효과 없을 걸...' 등에 굴복하거나 포기하지 마라. 아이디어맨이 비즈니스를 구축한다. 아이디어 킬러들의 부정적인 시선들을 발전시키도록 더 많은 사전 준비의 사유로 이용하라.

III. 나가는 말

직장생활을 하면서 수년간에 걸쳐 사업을 준비하여 왔다.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만족한 결과를 얻은 후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CEO로써 첫걸음을 떼자마자 단 한 번의 실수가 돌

이킬 수 없는 소용돌이 속에 빠지고 말았다. 아무런 검증없이 믿고 심부름을 시켰던 것이 문제가 된 것이다. 일찍이 이 책을 읽을 수 있는 계기가 있었더라면 CEO로써 아이템과 자본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을 것이다. 또한 미연에 실패요소를 점검할 수 있는 체크 포인트가 되었을 것이다. 아쉬움이 크다. 많은 사람이 'How to become CEO'를 읽고 CEO로써 충분한 역량을 키우고 CEO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CEO의 자세로 살아간다면 삶의 질이 달라질 것이다.

삶의 근원이 마음에 있고 마음은 생각으로부터 시작된다. 우리가 어떤 꿈을 꾸는가에 따라 인생의 방향이 설정되고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일의 승패가 결정된다. 우리의 삶이 건전한 사고와 판단, 소통되는 언어, 행위들을 절제하며 다듬어 가는 훈련이 된다면 밝고 명랑한 살기 좋은 세상이 되리라 확신한다.

작품평 : 모든 끝은 소용돌이였다는 말이 있지요. 한 번 빠져 보았으니 MBA과정에서도 배울 수 없는 큰 배움이었을 거예요. CEO가 되려면 평소 어떻게 행동하고 준비해야 하는지 12가지로 요약해 주어서 한 권의 책을 독후감만으로도 다 읽은 기분입니다.

「리진」을 읽고

박종만



신경숙 제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찬사를 아낌없이 바치고 싶은 작가입니다. 몇 달 전 그의 소설 <엄마를 부탁해>를 읽고 그만 그렇게 됐습니다. 이 소설 하나로 전 그의 골수팬이 됐습니다. 그 때 받은 감동이 아직도 생생하니까요. “최고의 스타 작가 신경숙 이번에는 엄마 신드롬을 일으키다”가 있는 걸 보면 제가 이리 된 것도 그다지 생똥맞은 것은 아닌가 봅니다.

지난주에 전 또 한 번의 감동이 찾아들기를 기대하면서 그의 다른 작품 하나를 손에 들었습니다. 제목은 ‘리진’. 두 권짜리 장편소설이었는데 ‘시간도 좀 걸리겠고 읽기에도 좀 버겁겠군!’ 하고 생각하며 책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채 몇 장도 넘기지 않아 제 입에서 튀어나온 말은 “역시!”라는 감탄사였습니다. 또 한 번의 감동을 만난 것이었지요. 단숨에 책을 다 읽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을 정도로 재미있었지만 가만히 음미하고 깊이 새기고 하여야 할 내용 또한 많았습니다. 이 책과 함께 한 며칠간을 정말 ‘환상의 여행’이라 부르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 중 한 이틀은 아주 밤늦은 여행이 되기도 했었고 두 권째 마지막 페이지를 탁 덮고 낮을 땀 세찬 감동의 물결이 일어 전 잠시 멍해 있기도 했었습니다.

<리진>은 역사와 소설의 상상력을 맞붙여놓은 픽션과 논픽션이 멋들어지게 어울린 장편역사 소설입니다.

조선 말 고종의 시대 망국의 비애가 아로새겨져 있는 그 시기에 짧은 생애를 살다 간 한 궁려의

이야긴데요. 어릴 적 천애고아가 되어 어린 나이에 궁에 들어가 왕비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아름답고 총명한 궁려로 자라나 왕으로부터 ‘리진’이라는 이름을 하사받았던 인물입니다. 특히 왕비의 특별한 총애를 입어 프랑스 외교관의 아내가 되어 남편을 따라 그와 함께 파리 생활을 하기도 한 리진의 이야기입니다. 또한 그녀를 중심으로 다양한 역사적 인물들과 가공의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저런 사연 속에서 펼쳐지는 리진의 삶과 운명이 마치 흐르는 강물처럼 이 소설의 본류를 이루고 있는 그 뒤로는 사위어가고 있는 조선왕조의 운명과 그 시대의 파란만장했던 역사의 한 단면이 전개되면서 저의 마음을 아프게도 했습니다.

이 소설의 클라이맥스인 명성황후의 비극적인 사건은 가히 압도적입니다. 왕비의 죽음을 재현해 낸 왕비가 시해 당하는 그 장면에서는 전 저도 모르게 흘린 눈물을 훔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아니 그 이상의 존재 가치를 지니고 있던 왕비의 죽음을 목도한 그녀 우리 모두의 역사적 아픔이 되어 있는 이 비극과 함께 더 이상은 이 세상에서 살 의미를 상실해버려 왕비를 따라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그녀. 언제나 어디서나 그녀의 마음은 오로지 왕비가 있는 궁궐을 향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 자신이 왕비의 젊은 분신으로서 궁중을 떠날 수 없었던 왕비의 눈이며 입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가슴 저린 사연으로 이 소설은 막을 내립니다.

리진….

참으로 인상적이고 감동적인 소설이었습니다. 지식적인 면에서도 그리고 감정적인 면에서도 그랬습니다. 아울러 작가가 책 곳곳에 그려 놓은 온갖 표현들은 어쩔 그렇게 다 하나같이 주옥 같은지! 우선 리진이라는 인물을 매개로 하여 생생하게 재현되는 역사 자체의 흥미로움이 가장 먼저 눈에 띄었습니다. 백여 년 전의 우리나라의 실상을 생생히 눈에 보는 듯했습니다. 한편 리진의 프랑스 생활 등 역사와 허구가 뒤섞이며 만들어내는 서사는 그 자체로도 또한 흥미로웠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못내 궁금해 하고 있었던 유약했던 고종과 비운의 왕비 명성황후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서 특히나 저로서는 만족이었습니다.

빛나는 조연들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조선의 초대 프랑스 공사 콜랭. 김옥균의 암살범이자 한말의 정객으로 프랑스 유학생생활을 하고 또 <춘향전>과 <심청전>을 프랑스어로 번역했던 그리고 리진에 대해서는 애증을 함께 느끼고 있는 홍종우, 리진처럼 고아 출신으로 그와 남매처럼 성장하여 끝까지 리진 곁을 지켰던 병어리 악사 강연. 무엇보다도 리진을 친딸처럼 아꼈던 명성황후 등….

조선에 처음으로 파견된 불란서 외교관이 조선의 궁중 무희에게 첫눈에 반해 그녀와 함께 파리로 건너갔다는 사료. 즉 백 년 전에 프랑스에서 출간된 조선에 관한 책 중에서 A4용지 한 장반 정도 밖에 안 되는 분량의 역사 문헌을 우연히 보게 된 것이 신경숙 작가가 이 소설을 쓰게 된 계기라는 것이었습니다. 단지 A4용지 한 장반에서... 그 창조력 앞엔 절로 탄성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몇 번이나 프랑스로 가서 그녀의 행적을 찾아다녔던 일,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던 일, 여러 관계 기관들을 방문했던 일, 여기저기 문의했던 일, 방대한 관련 자료들을 열람하고 조사했던 일 등 인물 탐구 및 창조 작업을 위한 작가의 열정을 다 바친 이 모든 노력 앞엔 절로 숙연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단하다, 위대하다’라는 말은 이런 것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깊이들뿐이었습니다.

그 밖에 또 한 가지. 이 소설은 박해시대 선교사들의 활동이라든지 숨어 드러나지 않고 있는 신자들에 대한 이야기 등 천주교와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천주교 신자인 제게는 더욱 의미있는 면도 있었습니다. 죽음을 담보한 그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선교하고 숨어서라도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들에서 저는 신자로서의 그윽한 자긍심마저 느꼈으며 이 또한 이소설이 제게 준 유익의 하나였습니다. ‘유익’이란 말을 하지니 지금 막 제 안에 한 가지 감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건 책읽기가 제게 가져다주는 이로움이 얼마나 많고 큰지 하는 것입니다. 이즈음의 제가 새삼 느끼고 깨닫고 있는 것이기도 하구요. 독서를 통해서 제가 얻고 누리고 있는 기쁨의 항목들을 셀 수도 없을 정도입니다.

나날이 늘어가는 지식, 폭넓어지는 관점, 풍부해지는 정서, 건전해지는 정신, 윤택해지는 영혼... 리진을 다 읽고 난 뒤 가졌던 저의 첫 번째 느낌은 성취감이었습니다. 또한 만족감과 함께 말입니다. 바로 위에 말한 것과 같은 기쁨의 항목들이 차곡차곡 채워지는 기분이었다고나 할까요?

이제 이 소설에 담겨져 있는 너무나도 인상적이고 너무나도 멋진 표현들을 몇 가지 소개하면서 이 감상문을 맺고자 합니다.

‘신경숙의 세상과 사람과 인생 보기’라고 부르며 저의 개인 노트에 가지런히 써 놓기도 한 이

표현들은 사실 수 십 개에 이르지만 그 중 몇 개만 여기에 적어봅니다. 특히나 지금의 이러한 상황에 있는 저의 이 제 가슴에 깊이 와 닿은 그런 구절들이었기에... 꼭 새겨두고픈 그런 말들이기에...

‘이름을 통해야 우리는 비로소 그 존재를 들여다볼 수 있다. 이름의 주인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그 이름의 느낌이 생기는 게다. 사람들이 네 이름을 부를 때면 은혜의 마음이 일어나도록 아름답게 살라.’

‘마음에 빛이 없으면 환한 방 안도 어둡기 마련이다.’

‘한발 늦은 깨달음은 제 가슴을 치게 한다.’

‘풍랑을 견딘 배만이 항구에 닿는다.’

‘땅에 넘어진 자는 땅을 짚고 일어설 수밖에 없다.’

작품평 : 살면서 성취감과 만족감을 다 가질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될까요? 지식, 관점, 정서, 정신, 영혼까지 기쁨을 주는 일이 독서지요. 개인 노트에 적어 놓은 구절만 보아도 알 수 있어요. 최고의 찬사를 아낌없이 바치고 싶다는 마음이 잘 전달이 됩니다.



「부활」을 읽고

정광부



톨스토이의 부활은 1899년에 발표된 장편소설로서 19세기 예술의 결산이며 20세기 예술의 시발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부활은 19세기 낡은 혼란의 시대상을 잘 표현하고 있는 동시에 그 시대에 펼쳐있는 사물과 사실에 대한 새로운 사고로서 20세기의 새 시대를 열고 있다. 그리고 20세기 러시아 혁명의 사상적 근원이 되었다.

부활의 스토리 전개는 상류층의 공작 네홀드로프가 비윤리적이고 무의한 상류생활을 타성에 젖어 하고 있던 중에 배심원으로 선정이 되어 재판에 참여하면서 시작된다. 그는 재판장에서 살인혐의로 기소되어 있는 젊은 시절의 연인 마슬로바(카튜사)를 우연히 마주치고 충격을 받게 된다. 그는 철없던 시절에 자신의 욕정을 채우기 위해 마슬로바에게 큰 잘못을 저질렀고 육체적 욕망이 충족되자 그녀를 버리게 되었다. 한순간의 쾌락의 도구가 된 후 버림을 받은 마슬로바는 점점 타락의 길을 걷게 되었고 결국에는 몸을 파는 여자가 되어 살인 누명까지 덮어 쓰고 재판장에 끌려 나와 있었다.

마슬로바의 타락과 불행이 자신으로 인한 것이라고 생각한 네홀드로프는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 깊은 참회를 하게 된다. 그는 마슬로바에게 죄의 보상을 위해 청혼을 하고 그녀를 감옥에서 구해 내려고 동분서주하게 된다. 옛일을 까맣게 잊고 있었던 마슬로바는 네홀드로프의 진심어린 행동에 크게 당황하고 청혼은 당치도 않은 것이라며 거절하였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네홀도르프의 진심은 마슬로바에게 전해지게 되었고 마슬로바도 네홀도르프를 사랑하게 된다. 하지만 자신의 존재가 연인의 앞날에 장애가 될 것임을 우려한 마슬로바는 결국 네홀도르프의 청혼을 받아들이지 않고 감방 동료인 시온스라는 사람을 선택하고 만다. 두 사람 모두 자신보다 상대방의 행복을 위한 선택을 하고 있다.

네홀도르프는 속물로서 악습에 젖어 상류생활을 하고 있던 중에 마슬로바를 다시 만나 그녀를 구해주는 노력을 시작하면서 자신의 자아가 크게 변하고 있음을 느끼게 된다. 그는 도덕적 기준의 설정과 실천이 인간과 동물을 나누는 기준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 즉, 도덕적 기준을 잘 지키면 인간으로서 모범이 되는 훌륭한 존재가 되고 도덕적 기준을 어기게 되면 동물적 자아가 자신을 지배하게 되어 끝없는 타락의 늪에 빠지게 된다.

네홀도르프는 한순간에 도덕적 기준을 무너뜨림으로써 자신을 나약하고 불행속으로 몰아 넣었지만 마슬로바를 구해주는 진심어린 노력을 통해서 자신의 도덕적 삶이 부활하고 있다. 타락의 타성에서 허우적거리던 마슬로바도 그의 헌신적인 행동을 보고 감명을 받아 도덕적 삶이 부활하게 되었다.

작가는 한 사람의 도덕적, 정신적 부활이 주변 사람들과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 요즘 사회에서 강조하는 선한 영향력이 주변에 영향을 준다는 것과 같은 맥락일 것이다. 사회 행동 심리학에서는 비만과 음주습관, 운동습관 등도 주변 사람들에게 전염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우리의 행동은 주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부활을 읽으면서 나의 지난 시절을 회상해 보았다. 처음 사업을 시작 했을 때 정직과 신용을 나의 도덕적 기준으로 삼아 열정적으로 일을 하였다. 27년간 회사를 운영해 오면서 초심은 흐려지고 도덕적 기준이 흔들리면서 스스로 허물어지고 있었다. 회사의 이익과 성장이 도덕적 기준보다 우선시 되었고 회사를 위한 것이라면 도덕적 기준은 차선이라는 어리석음에 빠지고 있었다. 한 두 번의 일탈은 타성이 되어 나 자신을 더 깊은 낭떠러지로 밀어 넣었고 그것들은 나를 짓누르면서 더 어려운 상황으로 끌고 나갔다. 그때 이후 나는 머리카락 한 가닥이 바퀴살에 끼게 되면 나중에는 머리카락 전체가 바퀴살에 끼게 되고 결국에는 머리마저 바퀴 속으로 들어가면서 자신을 파멸시키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처음 여기 왔을 때 무척 어려움을 겪었지만 나는 지금 여기에서의 삶을 인생의 여정에서 재

충전을 하며 자신을 바로 세우는 전환의 시기라 생각하고 있다. 늘 타인을 배려하고 자신에게는 엄격해지기로 노력하면서 나의 도덕적 재탄생과 정신적 부활을 위해 정진하고 있다.

작가 톨스토이는 우리에게 묻고 있다.

‘우리는 어떠한 목적으로 여기에 와 있는가?’

그리고 스스로 답하고 있다.

‘인자는 잃은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다’

그는 우리의 삶의 의미에 대한 근원적 해답을 도덕적 부활과 인류애라는 새로운 시각으로 제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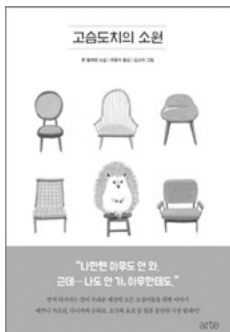
우리의 사람의 의미를 찾고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도덕적 기준의 설정과 실천이 우선 되어야 한다. 네홀도르프의 도덕적 기준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단순한 단계에서 시작하여 마슬로바를 자신보다 더 아끼는 높은 단계로 발전하고 나중에는 민중의 고통을 함께 나누게 되는 인류애의 수준으로까지 승화하게 된다.

우리가 타인에게 관대하고 배려하고 자신에게는 정직하고 엄격하게 도덕적 기준을 적용해 나가면 자신의 행복실현과 더불어 우리의 이웃과 사회가 더 따뜻하고 밝아지게 될 것임을 확신한다.

작품평 : 과거의 문제에 도전하고 도전의 결과를 미래에 남기는 사람이 이름은 남긴다지요. 톨스토이는 그런 인물이죠. 러시아 혁명의 사상적 근원이 되었으니까요. 삶의 의미에 대한 근원적 해답을 소설에서 엿보았다면 그의 『참회록』도 읽어보기를 권해 봅니다.

「고슴도치의 소원」을 읽고

안동인



사람을 만난다는 것이 어느 순간부터 일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누군가를 만나 이야기를 들을 때 그리 공감가지 않음에도 고개를 끄덕이고 어색한 침묵이 싫어 이야기를 끄집어내다 집에 돌아와, 너무 많은 말을 하지는 않았는지 고민하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내게 있어 휴식이란 온전히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일이 아닐까 싶었다. 그 후로는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졌다. 가끔 외롭다는 생각이 들다가도 좀 더 익숙해지지 않는 사람들 속에선 오히려 더 외로운 기분이 들기도 했었다.

‘고슴도치의 소원’의 작가 톤 헬레헨은 이런 인간의 복잡하고 종잡을 수 없는 인간의 내면에 집중했다. 이 책의 주인공 역시 혼자 있는 것에 익숙한 그러나 즐기지 못하는 고슴도치다. 고슴도치에게 아무도 찾아오지 않지만 그 역시 아무에게도 찾아가지 않는다. 고슴도치는 외로움에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하고 싶어 하다가도 이내 그만 두기를 반복한다.

고슴도치는 자신의 가시를 걱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동물친구들에게 상처를 줄까봐 그 가시가 두려움이 될까봐 다가가고 싶음에도 그러하지 않는다. 고슴도치는 동물들을 집으로 초대하는 편지를 쓰다가 상상 속에서 다른 동물들을 만나며 모든 최악의 결말을 떠올려본다. 그러나 결국엔 편지들을 서랍장 속에 봉인해 버린다. 기대하지 않는 편이 더 나을지도 모른다는 최면을 걸면서 그런데 고슴도치는 그 가시가 있기 때문에 고슴도치다.

다른 동물들에게도 고슴도치에겐 없는 특징들이 있었다. 기린의 진면목이라던가, 달팽이의 껍데기, 거북이의 느린 걸음. 그런 것은 누구에게도 없는 특별함이었다. 그럼에도 우리는 고슴도치처럼 망설인다. 나와 같지 않기에 나를 이해해주지 못할 거라는 이유로 상처를 주고 받을 것일 지레 짐작해버린다. 어쩌면 그 생각을 반복하여 상처를 받는 것이 내 자신뿐이었는지 모르는 일이었음에도 말이다.

책은 이런 고슴도치의 내면 말고도 우리가 살아가며 맺는 수많은 관계를 세밀하게 그려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한차례 폭풍우가 지나가는 듯 소란한 마음을 안고 지내던 고슴도치에게도 결국 선물 같은 인연이 찾아오는 것처럼 누구보다 조용하지만 고요하지 않았던 시간을 보내고 나면 내가 나로서 온전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준비가 되었을 것이다.

다른 사람도 있는 그대로 바라봐줄 수 있는 힘도 함께….

우린 가끔 너무 많이 머뭇거리거나 너무 많이 생각한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엔 건너지 못할 것을 사이에 두고 소리치는 기분이 들 때도 있고, 전혀 가까워지지 못할 것만 같았던 사람과 같은 고민을 나누게 될 때도 있고 전혀 가까워지지 못할 것만 같았던 사람과 짙은 고민을 나누게 될 때도 있다. 이렇게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더 혼란스럽거나 외롭지 않기 위해서 혹은 외로워도 괜찮기 위해서는 가시 돋친 작은 내 마음을 잘 돌보는 일이 먼저 되어야 한다. 이 세상 단 하나뿐인 '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면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은 너무나도 달라져 있을 것이다. 이 책을 읽는 동료들도 이 책과 같은 동화 같은 서술의 문장들을 편안하게 읽어 내려가시면 일기장을 펼쳐놓은 듯 우리들 마음 깊은 곳까지 담장 안 소외된 곳에서 오는 외로움과 두려움을 치료하는 위로가 전해지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고슴도치의 소원'을 같이하고자 한다.

작품평 : 나와 같지 않다면 나를 이해해주지 못할 거라는 편견. 선지불한 감정이 상처를 주기도 남기기도 하지요. 기린의 긴 목처럼, 달팽이의 껍데기처럼, 거북이의 느린 걸음처럼 너만의 특별함인데 그것을 알기까지는 고슴도치처럼 망설임과 시간이 필요할지 몰라요.

“독후감” 부문은 새길 심사위원 시인 이지호 선생님이 작품평을 해 주셨습니다.

직업훈련 교육을 마치며



김효성

전국 5만여 동료 수용자 여러분께 제 2년여 수용생활에 걸쳐 가장 잘했다고 생각되는 경험을 소개합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곳에 수용되어 있지만 생각하는 고민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판이 끝난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마음을 다잡지 못하는 사람 혹은 앞으로 수용 생활을 어떻게 꾸려나갈지 고민하는 사람 등등~ 아직도 수많은 카더라 통신에 혼란스러워 하고 있나요? 그렇다면 과감히 도전해 보세요~ 수용시설 내 자격증 획득 투어를~go

저는 1년간 OO직훈 이용과정을 선택했습니다. 이유는...? 호기심 반 의심 반이었습니다. 과연 수용기관에서 배운 걸 써먹을 수 있나? 제대로 가르쳐주기는 할까? 공과가 시작되고 동기생들을 봐도 딱히 필요에 의해서 신청한 사람은 드물었고, 다른 곳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살면서 전문적인 자기분야를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문득 “한 가지만 잘해도 밥은 안 굶는다.”는 어른들 얘기가 피부에 와닿을 때쯤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박스를 줍고 다니는 분들이 생각나네요. 저는 우리나라 최대 기업인 S전자에 다닌 경험도 있고, 육군장교로 근무한 경험도 있었지만, 막상 그 배경이 없어지고 나니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걸 깨닫고 두려움도 느꼈었습니다. 그래서 하게 되는 건 자영업이죠. 보기 좋게 말아먹었지만요~ㅎ 지금 이렇게 잠시 멈춰진 시간이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것 같습니다. 어디 가서 이런 좋은 여건에서 재료비 한 푼 없이 자격증을 획득할 수 있을까요? 출소하면서 자격증 서너개 있으면 사회의 첫걸음도 두렵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시작된 이용 자격증을 따기 위한 조건! 낫선 도구와 서툰 손동작 등 난생 처음 접해보는 일을 익히기란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손가락에 가위 하나 잡았을 뿐인데 온몸이 아픈 느낌이었

으니까요. 이미 경험 있던 동료들의 현란한 손동작이 그저 부러울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1개월간 신문지 자르기와 씨름 끝에 받아든 마네킹 머리. 어떻게 손을 대야 할지 몰라서 참 막막하더군요. 아마 선생님 입장에서든 많이 난감하셨을 것 같습니다. 마네킹과의 사투도 1개월~

드디어 실전에 돌입! 진짜 사람 머리카락을 커트하던 날 애써 침착해 하지만 동료들의 얼굴에선 긴장한 빛이 역력했습니다. 아직도 그 모습들이 선하네요~ 첫 손님을 앞에둔 제 양손은 구경한 번 해본 적 없는 오케스트라 지휘자처럼 떨고 있었습니다. 손님한테 들길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이미 눈치챈 손님이 “처음인 거 아니까 신경쓰지 말고 막 잘라 보이소~”라고 안심시켜 주더군요. 그 말이 어찌나 위안이 되던지 그 뒤론 큰 부상자(?) 없이 무사히 실습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별관심없어 보이던 동료들도 저마다 무용담을 늘어놓는 거 보니 나름 보람있었나 봅니다. 그렇게 한 고비를 넘기나 싶었는데 이어지는 면도, 염색, 탈색, 드라이, 아이롱 펌 등 본격적인 이용인으로 거듭나기 위한 과목들이 줄지어있어 남은 기간 동안 다 배울 수 있을까 걱정이 되기도 했지만, 열정적인 선생님 덕분에 그 걱정은 기우가 됐죠~ 그런 선생님한테도 독자적인 자신만의 스타일을 고집하는 한 제자는 항상 아픈 손가락이었죠! 아직까지 그 제자의 자격증 획득 여부는 장담하지 못하지만 선생님은 마지막 한 사람까지 끝까지 수료시켜 주셨습니다.

그렇게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보니 직업훈련을 선택한 건 정말 잘한 것이구나 라고 느낍니다. 아직 남은 징역을 어떻게 살아갈지 혹은 출소해서 어떤 삶을 살지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과감히 선택해 보세요. 직업훈련! 자격증! 제가 첫 직장이었던 S전자에서 현재에 안주하고 돈이나 벌며 꿈을 접었다면 야간대학도 다니지 않았을 것이고 그로 인해 장교의 꿈도 이룰 수 없었겠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지금 시간이 멈춰있다고 허투루 시간을 보낸다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거나 혹은 또다른 실수로 이어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자격증! 내 삶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 라고 의심이 든다면 일단 한 번 도전해봐요. 그리고 그 과정을 겪어보고 내 손에 직접 자격증을 쥐어보세요. 남다른 뿌듯함이 느껴질 겁니다. 지금은 모르지만 언젠간 분명히 내 땀의 결실이 빛을 발할 겁니다.

작품평: 몸으로 익힌 것은 잊어버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격증만 있으면 전문인력으로서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근무처에 당당히 지원할 수 있으니까요. 사회에 복귀하는데 자격증만한 든든한 백도 없을 것입니다. 나를 당당하게 해줄 수 있는 자격증이야말로 꼭 준비해야할 것 중의 하나입니다.

다큐멘터리(다큐IT)를 보고서



최대호

봄비가 내리고 난 후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던 5월에 어느날이었다 TV에서는 “다큐잇(IT)”이라는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는데 나는 간병 및 사동도우미라는 일을 하고 있었기에 다큐 프로그램과는 점심시간이 조금 겹쳐어 지는 바람에 첫 시작부터 시청하지는 못하였지만 보기 시작하였던 부분은 무척 나의 시선을 끌어 당기는 내용이었다.

다큐잇이라는 프로그램의 이름 외에도 프로그램 상단에 <비닐봉지>라는 이번 챕터의 주제명인 것 같은 제목이 붙어 있었는데 처음엔 비닐봉지? 혹시 환경과 관련된 주제인가? 라는 생각을 가졌지만 막상 보니 노숙인(홈리스)분들의 관한 이야기였다. 사실 노숙인이라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정적인 생각먼저 떠올리지 않을까 싶다(사지 멀쩡하면서 일을 하면되지 왜 일을안해?, 저런 사람들은 전부 자기가 귀찮으니까 저렇게 사는거야 등등)뭐 지금까지 나는 이런 생각을 가져본 적은 없지만 주위 사람들이 하는 흘러가는 얘기로 심심치않게 들어왔던 말들이다.

물론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중에서도 몇분은 있으시지 않을까 생각이 된다 그렇다 해서 잘못된 생각이라 말하고 싶지는 않다. 사람은 저마다의 생각과 개성이 있는 것이니 말이다(꼭! 이 말이 하고 싶었다) 그 분들도 우리가 너무 쉽게만 생각하는 것들과는 달리 자신만의 말 못할 사정이나 심적인 고통 등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우리는 꺾어 보지도 않았고 들어 주지도 않았으면서 그저 자신만의 생각을 담아 지레 짐작만을 너무나 많이 하며 살고 있지 않은가 이 다큐멘터리를 보고나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 꼭 이 주제만을 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주제를 떠나서(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말하는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나의 잘못된 인식을 깨닫게 되었는데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노숙자라는 개념은 100이면 100 남자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여자 노숙자 분들도 있다는 것이 (아니 우리가 모를 정도로 많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또한 장애를 가지신 분들도 서슴참게 볼수 있었는데 그 분들을 한 분 한 분 볼때마다 나도 모르게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그리고는 주제 넘겠지만 국가의 보호망이 이렇게 허술할 수 있단 말인가? 이런 보이지 않는(어쩌면 알고서도 외면하고픈) 약자들을 보듬질 않는데 어찌 국가를 국가라고 말할수 있겠는가 또한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처럼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이 가진 것을 조금씩 나누었으면 좋으련만 도대체 무얼하고 있단 말인가 등등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다.

그리고는 내가 사회로 돌아가면 할 수 있는 한 힘을 다해 그분들의 짐을 조금이나마 같이 짊어 져야 겠다고 마음을 먹게 되었다(물론 이런 이야기를 하나 주위의 동료가 비웃더라...). 전과자가 해봐야 뭐가 달라 지겠냐며, 국회의원이라도 출마해야 할 기세인데 전과자라 어쩌냐? 등등... 뭐 누군가 듣는다면 비아냥으로 들릴수도 있겠지만 나는 나의 걱정을 해주는 것이라는 좋은 뜻으로 듣기로 하였다. 어쨌든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요즘 사람들은 서로를 이해하고 돕는다는 것에 있어서 조금은 어렵게 생각하지 않는가 싶다는 말이다. 해보면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닌데 말이다 조금 쉽게 말을 하자면 그분들께서는 지금은 비록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 있지만 전에는 우리의 가족 또는 친구 였을지도 모르며 미래에라도 그렇게 될지 모르는데 지금은 그분들이 우리가 알지못할 어떤 상처를 입었고 힘든 일에 처해 있는지도 바라보는 것은 조금 바꿀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말이다. 우리가 조금씩만 다가간다면 국가라도 해내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의 힘으로 해낼 수 있고 이 힘든 사회가 조금은 더 미소로 물들 수있지 않을까?

특히 이곳이 더욱 특별한 곳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회보다도 더욱 마음의 문이 닫혀 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이곳보다 이해와 협력이 더 필요한 곳은 없다고 생각된다. 오늘부터라도 주위에 조금은 사정이 어렵거나 평소 이해하기 힘들었던 동료가 있었다면 다른 것을 떠나 따뜻한 차한잔 건네며 따뜻한 말 한마디 나눠 보는 것은 어떨까 싶다. 부족한 식견과 문장력으로 빈틈이 많은 글이지만 일어 주셔서 감사드리며 나의 글로써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은 달라질수 있다면 더할나위 없을 것 같다.

작품평 : 우리의 삶은 다큐멘터리입니다. 현실을 직시하는 것. 그래야 현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습니다. 세상이 점점 더 살기 힘들어지는 이유가 나누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도 생각해봅니다. 우리에게겐 각자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그것을 해내는 것이 최선이라는 생각도 함께 해보게 된 글입니다.

“소감문” 부문은 새길 심사위원 시인 신경민 선생님이 작품평을 해 주셨습니다.



보고싶지만, 볼 수 없는.... 본 적 없는 아들에게

윤석진

사랑하는 우리 아들!

네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지 벌써 100일이 넘었구나.
더 없이 소중한 우리 아들과 엄마곁에 함께 하지 못하고
후회와 죄책감 속에 못난 아빠는 너와 함께 할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단다.

네가 엄마 뱃속에서 사랑받으며 무럭무럭 자라고 있을 때
아빠는 이곳으로 오게 되어 아직까지 아들 얼굴도 보지 못하고
작은 손 한번 잡아보질 못했어.

코로나 19로 접견인원이 한명으로 제한됐고, 제한이 해제 되어도 아직
돌도 지나지 않은 우리 아들이 혹여나 위험해질까 걱정되어
정말 미치도록 보고 싶지만 볼 수 없는 이 아빠는 속이 새카맣게 타들어 간단다.

이곳은 주위가 온통 산으로 둘러쌓여 있어서 가끔 안개가 자욱하게 끼고 비가 내릴때면 정말
멋진 경치를 볼 수 있단다. 이른 아침 새소리에 잠이 깨기도 하고, 아빠 어릴적 들었던 뽀꾸기
우는 소리를 들으며 잠들기도 한단다.

장마라서 그런지 요즘들어 비가 자주 내리는구나.

네가 태어나기전 아빠, 엄마가 함께 살던 집 주위에도
많은 새소리와 맑은 시냇물소리에 항상 마음이 설레었었지.

엄마는 비내리는 날을 무척 좋아 했었고, 항상 아빠와 함께 빗소리를 들으며 즐거워 했던 날들이 머릿속을 스쳐지나 가는구나.

엄마가 아빠에게 말하기를 “여보. 우리 아들 당신하고 완전 붕어빵이야.” 이 말을 듣고 이 아빠는 정말 많이 울었어.

함께 있어주지 못한 미안함에 정말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리더구나. 아빠는 내가 태어나던 2020년 3월 30일, 너와 엄마에 대한 걱정으로... 이 아빠에 대한 자책으로 후회하고, 후회하고... 또 후회를 했었던다.

그런데, 그 날 이후 아빠는 세상을 조금은 달리 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겼고, 이곳에서 열심히 생활 잘해서 하루라도 빨리 널 안아보고 싶은 욕심도 생겼단다.

사랑하는 아들~

이 아빠는 너라는 선물을 만나기 전에는 이곳에서 과거에만 매몰돼 스스로를 자책만 하면서 괴로운 시간을 보냈었던다.

하지만 더 이상 지난 시간에 얽매여 괴로워하고, 힘들어하지 않고 더 밝은 우리 가족의 내일을 위해 한걸음 한걸음 발을 맞춰가면 이 모든 시간들이 우리 가족에게 더 없이 소중한 삶의 밑거름이 될거라 생각해. 비가 온 뒤 땅이 더욱 단단해지듯 우리 가족이 모두 함께하는 이 세상은 돌도 없이 소중한 화목한 가정이 될거라 믿어 의심치 않는단다.

늘 아빠, 엄마 둘이서 즐거움과 행복을 찾아 다니고 항상 꿈꾸어 왔다면, 이제는 우리 아들도 아빠 엄마와 함께 더 큰 행복을 같이 꿈꾸며 살자.

아빠와 엄마 사이에 태어난 우리아들.
그리고 우리라는 가족을 만들어준 엄마
정말 많이 사랑해. 그리고 고마워.

작품평 : 사랑은 보는 이에 따라 채도가 달라진다지요. 아직 보지 못한 아들의 보고픔은 말로 표현할 수 없겠지요. 붕어빵 아들이 ‘아빠’ 하고 부르는 날 곧 올 거예요. 채도가 진한 아버지의 사랑을 보네요.



어머님께 올립니다



김병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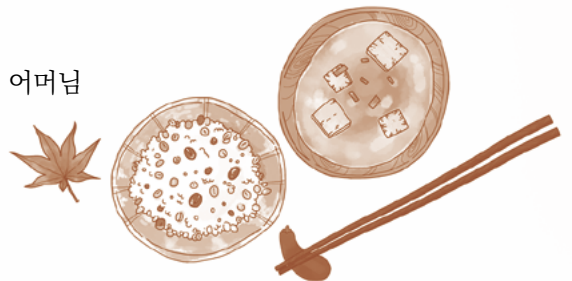
그 동안 힘든 세월을 살아오신 어머님께 올립니다.
화목이라는 것을 잊게 하는 고부의 갈등
누구나가 겪었던 관습과 세습의 풍속 속에서 바쁜 명절을 보내며
노예 같았던 세월들 한탄의 가슴속에 차곡 쌓으시며 아파하시었던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 사람들 또한 경험해 오던 삶입니다.
이제는 노예와 같은 생활을 아니 하셔도 됩니다.
세상은 그 만큼 변하였기 때문입니다.

화목은 서로에게 미루지 않는 정감이 있는 정성스러운 손길에서 모아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함께 나누고 웃음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문외한이 되지 않기 위해 열심히 배우며 살아 갑니다. 늦은 나이에 포기 하는 것 또한 절망이기에 정직하게 배우며 살아갑니다. “못 배워서 그렇다.”라는 어머님 가슴에 한이 되게 만들어 버린 못난 아들 늘 죄송한 마음입니다.

가슴 언저리에 참고 사시던 어머님
제 잘못으로 한이 된 것 지워 드리겠습니다.
울음 참으시며 우시는 것도 몰래 우셨던 어머님

누군가 들어줄 사람 있으면 담아 두신 눈물 가득 흘리시던 어머님
그 눈물 보이실 때마다 못난 아들은 마음이 아픕니다.





쇠창살 건너로 바라보며 이야기 하는 짧은 시간의 모습마저 보여드리기에
어머님 마음이 또 아파하실까 면회 하는 시간 내내 잘 있습니다. 건강합니다 하면서 웃음으로
건네지만 어머님은 자식 걱정에도 또 아파하십니다. 좋은 환경에 있지 못하기 때문인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오직 한 마디 어머님 면목 없습니다.

비록 이곳이지만 더 더욱 잘 하면서 사는 것이 어머님 마음 편하게 해 드리는 것이라 생각하기에
긍정적이고 정직하게 살아갑니다. 후회 남기지 말라 하시며 원망하지 말라 하시는 어머님. 네
그렇습니다. 자신의 인생관이 남의 것이 아니기에 자신을 지켜가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살아
갑니다. 늦은 나이에 배움이라는 것이 무슨 소용일까 라고 하는 것은 낙담하는 낙오자들의 생각
이기에 포기 하지 않으며 자랑도 하지 않으며 못다한 중·고등학교 졸업장을 받았습니다. 대학교
졸업까지 완수하려고 합니다. 배우는 것에서 무엇이 잘못이고 무엇이 바른 것이다 라는 것을
알면서 문외한이 되지 않는 정직한 배움으로 그 어떤 일에서나 영리적인 목적이 아닌 건강한
정신으로 바르게 살아가겠습니다.

어머님 가슴에 한 맺힌 행동을 하지 않는 아들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만 우시고 맘 편하게 계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어머님께 걱정드리지 않는 모습으로 더더욱 좋은 모습으로 살겠습니다.

오늘을 살면서 내일을 바라보기에 후회함이 없다면 내일의 하루중에 어제의 후회가 내일에 있지
않을 것이다 생각하면서 오늘을 감사하면서 건강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어머님께 못다한 웃음으로 드리지만 그 언젠가 더 좋은 기쁨과 행복이 있다는 믿음으로 정직하게
잘 살아가는 모습이라 생각하며 살겠습니다. 진수성찬은 아니지만 정성껏 잘 차려주신 어머님의
된장국이 그리울 때가 많습니다. 어머님의 따스하신 손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들 아들 하시며 기쁜 마음으로 부르시던 어머님의 둘째 아들 올림.

작품평 : 어머니는 부르는 것만으로도 가슴 언저리가 아파오는 존재인지 몰라요. 어머니 한도 풀어드리고 자기 발전을
위해 중·고등학교 졸업장에 이어 대학교까지 배움을 포기하지 않는 멋진 분이시군요. 어머니가 끌어주는
맛있는 된장국을 먹는 날이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서간문” 부문은 새길 심사위원 시인 이지호 선생님이 작품평을 해 주셨습니다.

새 출발을 위한 방향타(方向舵) - 새길

곽정환

작품평

새길은 향로를 일탈했지만
퍼려다임을 바꾸어 순항하고
새롭게 비상하라는
방향타지요. 디딤돌이지요.
'용서'라는 단어가 절절한
잡지지요. 뉘우치고 바뀌고
희망을 꿈꾸는 곳이지요.
비유가, 은유가 빛나는
글입니다.

연습없이 태어나 실습없이 죽는 인생, 후진도 안 되고
복사도 안 되고 스톱도 왕복도 없는 일방통행 나그네가 우리
네 인생입니다.

간혹 벽시계는 멈춰도 고장없는 세월의 초바늘에 실려 살
다가 언젠가는 당도할 종착역(死) 이전에 짧게나 길게나 간
에 징역 대합실에 들린 운명이 걸림돌 일까? 디딤돌일까?

모든 장르의 새길지 글들이 감동인데 특히 “용서를 구합니다.”
는 한 인간이 설토하는 도가니급 진실한 구곡간장입니다. 이
뜨거운 폭포수를 맞고(읽고) 있노라면 아려오는 몽클함에 그만
어금니 물고 속으로 읊니다.

“용서(容恕)”라는 단어가 이토록 절절하게 다가오는 잡지가
대한민국에 또 있을까 싶습니다. 지난 호에는 여덟 분의 글이
실렸는데 어떤 분은 용기내어 죄명까지 적시 하셨더군요. 참
회의 백기를 심장에 꽂고 꿇은 무릎 옆에 저도 조문하듯 조
용히 앉아 봅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진심으로 용서를
밉니다.” 새길지 예는 유난히도 ‘그만 한 순간에’ ‘욕심에 눈이
멀어’, ‘잘못 판단하여’, ‘참지 못하고’, ‘망각하고’, ‘착각하
여…….’ 이런 단어가 많이 보입니다.

머지않아 땅을 치고 통곡할 일을 구태여 하고, 속아서 하고
욕! 해서 하는 인간이여, 이 세상에 너 없으면 못살겠다고
결혼해 놓고는 이제는 너 때문에 못살겠다고 갈라서는 인간
이여, 남이 남이 됐다 놈으로까지 돌변하는 변화무쌍한 모순



에서 과연 누군들 자유로울까, 앞으로 간다고 씩씩거리지만 옆으로 기고 있는 “계”처럼 마음과 몸이 걸도는 연약함을 절감합니다.

‘순간 줄음 번쩍 저승’ 고속도로 운전주의 문구가 뜨끔했었는데 순간 일탈이 아불싸, 징역이 되어 자유 잃은 대합실에서 우글거리는 자화상이 아! 미워도 너무 밉습니다.

이렇듯 자기 모순투성이고 실수범벅 존재지만 인간의 위대함은 바로 회개(悔改), 뉘우치고 고침으로 그 비참 됨을 떨쳐낼 수 있음에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새길지는 항로 일탈로 우회비용이 아깝지만 추락이라고는 생각지 마라, 패러다임을 바꾸어 순항하라, 인생 궤도를 수정하여 새롭게 비상하라는 방향타임을 느낍니다. 읽을 때마다 인생의 의미는 길이가 아니고 깊이에! 속도가 아니라 방향에! 있음을, 후회는 아무리 빨라도 늦고 회개는 아무리 늦어도 빠른 것임을 새기게 합니다.

회한의 눈물이 묻어나는 한 자 한 자, 환골탈태 하려는 각오로 눌러 쓴 한 줄 한 줄이 직방으로 가슴 저며웁니다. “욕심을 내려놓고 보면 사형수의 신분으로 지금까지 살아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는 박광님의 말에서 참담한 과거를 디딤돌로 만들려는 38년 장교출신 황진성님의 통렬한 참회와 오독이 정신에서 희망을 봅니다. 도전을 받습니다. 기도합니다.

지난 호 앞뒤 표지에는 크고 작은 등대가 있네요. 여기가 돌아와야 할 항구라며 밤바다를 비추는 등대와 인생항로의 바른 눈금을 보여주는 방향타인 새길지는 하루에도 수십 번도 넘게 출렁이는 수형자(受刑者)들의 번뇌를 수행자(修行者)의 순례로 이어주는 가교와 초대장입니다.

써 주시고 읽으시는 모두에게 감동과 활력이 충전되길 두 손 모읍니다. 세심한 정성이 느껴지는 편집, 삽화, 디자인, 매호를 기다리게 만드는 사회복지과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꾸뻏^^

새길 여름호를 읽고

김희성

작품평

시, 수필, 기획기사 등
꼼꼼하게 읽고 느낌을 잘
전달했어요. 어쩔 수 없이 읽게
되었다가 하나의 낙이 되고
글까지 쓰게 만드는 것이
새길의 매력 아닐까요. '이제
가을이야' 하고 가을호가
속삭이겠죠.

새길 여름호를 처음 접하게 된 건 작년 처음 구속이 되어
2인실에 있을 무렵, 방에는 덩그러니 새길 '19년 여름호와
나, 그리고 다른 수용자만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읽게 된 새길은 어느새 이 답답한 수용생활에
하나의 낙이 되었습니다. 이번 여름호는 시원한 바다를
표지로 해 갑갑했던 마음을 조금은 위로하듯 내게로 와
'이제 여름이 왔어'라고 속삭이는 듯 합니다.

한 여름밤의 꿈이란 시들이 많았는데 그중 09쪽의 조효선
씨의 시가 계속 눈길을 끌었습니다. 특별한 말보다 항상 듣고
들었던 말 "왔어?"이 한마디. 땀인지 눈물인지 그렇게 꿈을
깁다. 이 구절에서 그 장면들이 머릿속에 그려지며 가슴 한
구석에서 찡한 뜨거움이 올라오는 것은 아직 저에게도 따뜻
한 마음이 남아 있던 뜻이겠지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야 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일 것입니다.' 라고 평을 남기셨는데 우리는 사랑
하는 사람, 가족, 친구, 남편 혹은 아내 연인 등 그들이 우리
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힘이 되기에 여기서도 씩씩하고
밝게 지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에게는 특히 가족이 그렇더군요. 27년, 평범하게 살아온



저의 시간입니다.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좋지 않은 일에 휘말리게 되고 법에 대한 무지함으로 인해 이렇게 들어와 생활하게 되었죠. 전혀 생각지도 못한 소식에 부모님께서서는 얼마나 놀라셨을지 아직도 그 심정이 가늠되지 않습니다. 여기계신 모두가 그렇겠지만 부모님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픈니까? 그 부모님들은 어떻구요. 많은 위안을 받은 시였습니다.

수필 중에서는 절망 속, 여름이 가져다준 꿈 이란 14쪽의 수필이 있습니다. 사회 초년생이던 저에게 앞으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살아가며 충분히 경계해야 할 사례를 이야기 해 주신 듯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의욕이 있다면 다시 별떡 일어설 수 있음을 일깨워 주는 다시 한 번 저에게도 용기를 주는 글이었습니다.

전과자 신분으로 이제 내가 사회에 나가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라 비관하던 저에게는 다시 앞으로 달려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힘을 주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이 글을 나눠주신 이승훈님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새길에는 기획기사도 실려져 있는데 바로 미술에 표현된 전염병 그 공포의 기록입니다. 요즘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들썩이는데 과거는 미래를 보는 창이란 말이 있듯이 과거의 질병들을 미술을 통해 한번 들여다보고 앞으로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처하는 데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이 있는지 해서 관심 있게 읽게 되었습니다.

전염병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우리를 얼마나 위협하고 있는지 사례를 들어 설명해 주었는데 특히 인류 문명사에 전염병이 큰 흔적을 남겼단 이야기는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었

새길 여름호를 읽고

습니다. 천연두는 오래전부터 세계 전역에서 사례들이 기록되어 있으며 잉카문명 멸망에도 큰 기여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페스트, 스페인독감, 말라리아 등 여러 전염병들은 계속 인류를 위협해 왔고 아직도 우리 곁에서 남아있음을 알게 해 주었습니다. 사회와 단절되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위험과 사회적 분위기를 직접 경험하지는 못하였지만 간접적으로 경각심을 일깨워 주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용서를 구하는 글, 감상문 등을 읽으며 나오는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읽게 됨으로써 나는 새로운 세상을 하나씩 배워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명 한 명의 사람은 그들 자신만의 생각으로 하나의 세계를 구성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들 한 명 한 명이 자신의 의견, 생각을 글로 표현하였으니까 그 또한 하나의 세상이 아닌가? 라는 생각에 더욱 집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새길’ 제목처럼 내가 앞으로 나아갈 새 길을 씩씩하게 나아갈 수 있게 힘과 용기를 주며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주는 희망찬 미래의 디딤돌 새길 가을편을 기다리겠습니다.



새길 여름호를 읽고

오현숙

작품평

감동과 슬픔, 희망을 전해주는 사람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소중한 이야기에 당신도 주인공입니다. 사랑과 정이 넘치고 피톤치드로 치유하는 길이 있는 곳이지요. 새길을 만나면 일어나는 변화를 짧은 시로 함축해서 표현할 수도 있고요.

아침에 맑은 바람이 오가고 따뜻한 햇살이 비치는 창 앞에 가만히 서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몸과 마음이 충만해지는 여름이다. 수년간 담장안에서 살아오고 있는 나의 삶. 그 삶 속에서 감동과 슬픔 그리고 희망을 전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바로 새길지에 사연을 실은 주인공들입니다. 그 사연을 읽을 때마다 어둡고 쓸쓸한 교도소에서 희망을 가지며 살아갈 용기가 생깁니다. 새길을 읽는 내내 수 많은 사연을 접하면서 나보다 더한 고통과 아픔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기쁨과 슬픔 그리고 추억이 공존하는 사연을 접할 때면 그 감정을 주체할 수 없어 나도 모르게 막 흥분하게 됩니다. 구속이 된 후 나의 삶은 한동안 어둠속에 갇혀있는 것처럼 앞을 볼 수 없는 미래로 매사에 의욕이 없고 삶의 의미가 무의미하게만 느껴졌습니다.

새길 문예지는 모든 수형자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해 주고자 하는 걸까요?

시, 수필, 독후감, 수기, 서간문 등 테마 글을 쓰고 읽음으로 절망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수형자들에게 반성할 시간을 갖게 하여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동기부여를 주고자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새길 여름호를 읽고

자신의 얘기를 글로 써 누군가가 읽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랑은 서슴없이 하지만, 자신의 어두운 과거는 꼭 꼭 숨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새길 문예지에 실려있는 글들은 과거의 잘못을 후회하고 반성하며 가족의 소중한 함을 일깨워줍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잊혀지지 않는 소중한 사람들의 이야기. 오래오래 기억되는 일과 가족의 사랑과 정이 넘치는 따뜻한 이야기 .

파도 소리를 들으며 걷는 길. 지친 심신을 피톤치드로 치유하는 길. 사람사는 온기와 새 삶을 위한 준비를 인도하는 새길. 새길 속 글을 읽고 나와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이해하는 처지이지만 과거에 얽매어 있으면 새로운 변화는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괴롭더라도 현실을 뚜렷하게 직시하여야 합니다. 새길지 사연 속의 주인공처럼 목표를 확고히 정해 모든 시간을 목표를 위해서 매진해야 합니다. 아직도 수많은 수행자들은 과거에 매달려 있기도 합니다. 꿈도 없고 희망도 없이 지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럴수록 나약해지고 매사에 근심과 걱정만 쌓일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바꾸어야 합니다. 자신이 세운 결심을 확고히 하여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 여름 밤의 꿈속에서 나는 많은 것을 생각하고 추억하고 그리워했습니다.

새길 너를 만나면

마음에 생기가 돌고 따뜻해진다.

새길 너를 만나면

어지럽게 맴돌던 생각이 맑아진다.

새길 너를 만나면

어두운 미래가 밝아지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자신감과 용기가 생겨난다.

새길 너를 만나면 가족의 소중한 함을 알게 해 준다.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길 위에서 한 번의 실수는 할 수도 있습니다. 인생에는 역전과 반전이 있듯 나에게도 인생역전의 새길이 놓여지리라 믿습니다. 새길문예지를 읽고 얻은 교훈을 지팡이 삼아 절대 다시 돌아오지 않는 나날들을 정성을 다해 살아가자는 마음자세로 오늘도 힘차게 하루를 시작하려 합니다.

새길지 여름호를 읽고

이석환

작품평

좋은 친구 새길지를 두셨군요. 친구 덕분에 용기 내어 글을 써보고 과거의 모습을 추억하며 아내에게 미안하다고, 웃음을 주겠다고 다짐을 하네요. 동료들 비롯한 주위 분들께 고마움도 전할 수 있는 참 좋은 친구를 두셨군요.

올 여름에도 어김없이 저를 찾아 왔습니다.

잘못된 생각과 어리석은 선택으로 영어의 몸이 되어 이곳에서 지낸지 어느덧 3년.

이 시간을 보내는 동안 「새길」은 저의 마음을 따스하게, 때로는 아련하게, 때로는 웃음을 주는 친구 같은 존재가 되어 주었습니다.

맨 처음 「새길」이란 친구를 만나게 된 것은 「2018년도 봄호」로 그때에는 읽을 책도 없었고 마땅히 할 일이 없어 시간이나 보내자는 마음으로 책꽂이에 있는 「새길」을 무작정 집어 들어 보게 되었는데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지난 잘못에 대한 저의 어리석음과 잘못된 생각 그리고 가족에 대한 소중함과 미안함을 지난 저의 과거 시간들이 한편의 영화를 보여주듯이 스치고 지나갈 때마다 마음이 먹먹해지는 것을 처음으로 가질 수 있었고 「새길」이란 친구가 저의 친구가 되어주었으며 계절이 바뀔 때마다 「새길」이란 친구를 마냥 기다리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계속적으로 「새길」이란 친구를 만나면서 저의 마음과 닿는 글을 노트에 적어 한두 번씩 되새겨 보기도 하고 가족이나 피해자분들께 어떻게 하면 용서를 구할 수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참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새길지 여름호를 읽고

「새길」을 만나면서 언젠가 한번쯤 「새길」이란 친구에게 글을 써야지 하며 마음은 있었지만 괜히 망신이나 당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에 쓰고 버리기를 수차례 반복하였지만 「용서를 구합니다. 김지현님」의 용서의 글에서 솔직하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용기 있는 모습을 보며 못 쓰는 글이지만 용기를 내어 한자 한자 적어봅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황진성님」의 글을 보면서 지난 저의 과거 모습을 추억할 수가 있습니다. 제 자신도 군 부사관 출신으로 약 23년간의 군 생활을 하고 제대 후에 사회에 대하여 잘 모르는 상황에서 선배님의 말만 듣고 「믿음」하나만 가지고 선배님과 함께 일을 하다 일이 잘못되어 영어의 몸이 되었고 제 자신이 사랑하는 가족과 저를 믿고 업무를 맡겨주신 피해자 분들께 크나큰 실망과 어려움을 드린 잘못에 대해 선배님 탓만 하며 잘못을 인정하지도, 반성조차 하지 않는 이기적인 마음이었지만 「새길」이란 친구를 만나고 나서는 자의든 타의든 간에 모든 잘못의 원인은 나 자신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으며 지난 일에 대한 뼈저린 후회와 함께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정수님의 '한여름 밤에서 깨어나'」 글을 읽고 홀로 고생하고 있는 아내에 대해 다시 한 번 마음 다짐을 되새길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만나 친구로 10년, 남편으로 22년, 총 30년을 넘게 함께한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처음 만났던 풋풋한 만남을 시작으로 함께했던 시간동안 좋았던 시절에는 웃음이 나오고 힘들었던 시기에는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난 「2019년 새길 가을 호」에서 본 한 글귀가 생각납니다.

「여러분 사건의 피해자는 가족임을 명심하세요. 여러분 가족에게 정말 큰 죄를 지었습니다.」

이 글귀처럼 제 사랑스런 아내에게 큰 죄를 지었습니다. 사랑스런 아내에게 경제적으로 풍요롭지는 못하더라도 마음만큼은 힘들게 하지 않겠다. 약속하며 함께 시작하였고 살아

가면서 내 자신 나름대로 아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하지만 「새길」을 보며 지난 아내와 함께한 시간동안 정작 내 자신이 아내를 위해 노력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스런 아내가 못한 남편도 남편이라고 힘들 낼 수 있도록 더욱더 아낌없이 희생했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으며 뼈저린 후회와 함께 미안함에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저의 빈자리를 대신해서 여자의 몸으로 굳은 일까지 마다하지 않고 두 딸과 가정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아내에게 더 이상 실망시키지 않고 변화된 모습으로 아내에게 쓰여 진 그늘을 웃음이란 빛으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제 자신과 약속하며 다시 한 번 다짐하였습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김지애님」의 글을 보면서 이곳에서 함께 지내고 있는 작업장 계장님과 반장님 그리고 동료 분들께 고마움을 전해봅니다. 저는 2020년 4월에 청각장애인 장애 등급을 받았습니다. 제 자신이 군 생활을 하면서 함정(배)안의 기관실에서 오랜 시간동안 근무를 하여 귀의 상태가 좋지 않았지만 소리가 조금 안 들린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사람들과 소통하는데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하였는데 이곳에 오고 나서 재판 등 신경적 스트레스로 인해 귀상태가 안 좋아져서 어느 정도 큰소리가 아니면 잘 알아듣지 못할 정도로 생활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었으며 특히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는 공동 생활 속에서 제 자신이 불편함을 드리고 있다는 사실이 제 마음을 힘들게 하였습니다.

일을 할 때나 일상생활에 있어서 정상적인 상태라면 한 번에 알아듣고 불편함이 없게 행동해야 하는데 제 자신은 잘 들리지 않은 귀 때문에 1~2번 반복해야만 들을 수 있는 현실에 그래도 제가 같이 생활하는 동료라고 대신 말을 전해주거나 실수없이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며 또한 보청기를 할 수 있도록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게 여러 가지로 신경을 써주신 계장님과 반장님 그리고 동료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인사를 올립니다. 제 자신이 많이 부족하지만 한 공동체의 일원으로써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새길지 여름호를 읽고

교도소란 곳에 처음으로 왔을 때 저에게 아무런 희망도 없었으며 삶을 거의 포기하고 들어온 곳이기도 아무런 생각없이 시간만 가기를 무의미하게 보낼 수 있었던 시간을 「새길」이란 친구를 만나면서 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고 앞으로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새길」이란 친구가 보여준 웃음, 기쁨, 슬픔, 아픔을 보고나서 가족에 대한 생각, 피해자분들의 죄송함, 동료들에 대한 고마움 등 저의 마음에 있었던 부정적인 생각들이 긍정적으로 바뀌었으며 앞으로 살아가면서 더 이상 실망시키지 않는 나 자신이 되기 위해 더욱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음밖에는 없습니다.

「새길」이란 친구는 어떤 땐 ‘인생의 선배’로서
어떤 땐 ‘인생의 친구’로서
어떤 땐 ‘인생의 동반자’로서
저에게 희망찬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준 친구

“고맙다 새길아.”
이 한마디는 꼭 하고 싶었습니다.

“감상문” 부문은 새길 심사위원 시인 이지호 선생님이 작품평을 해주셨습니다.

